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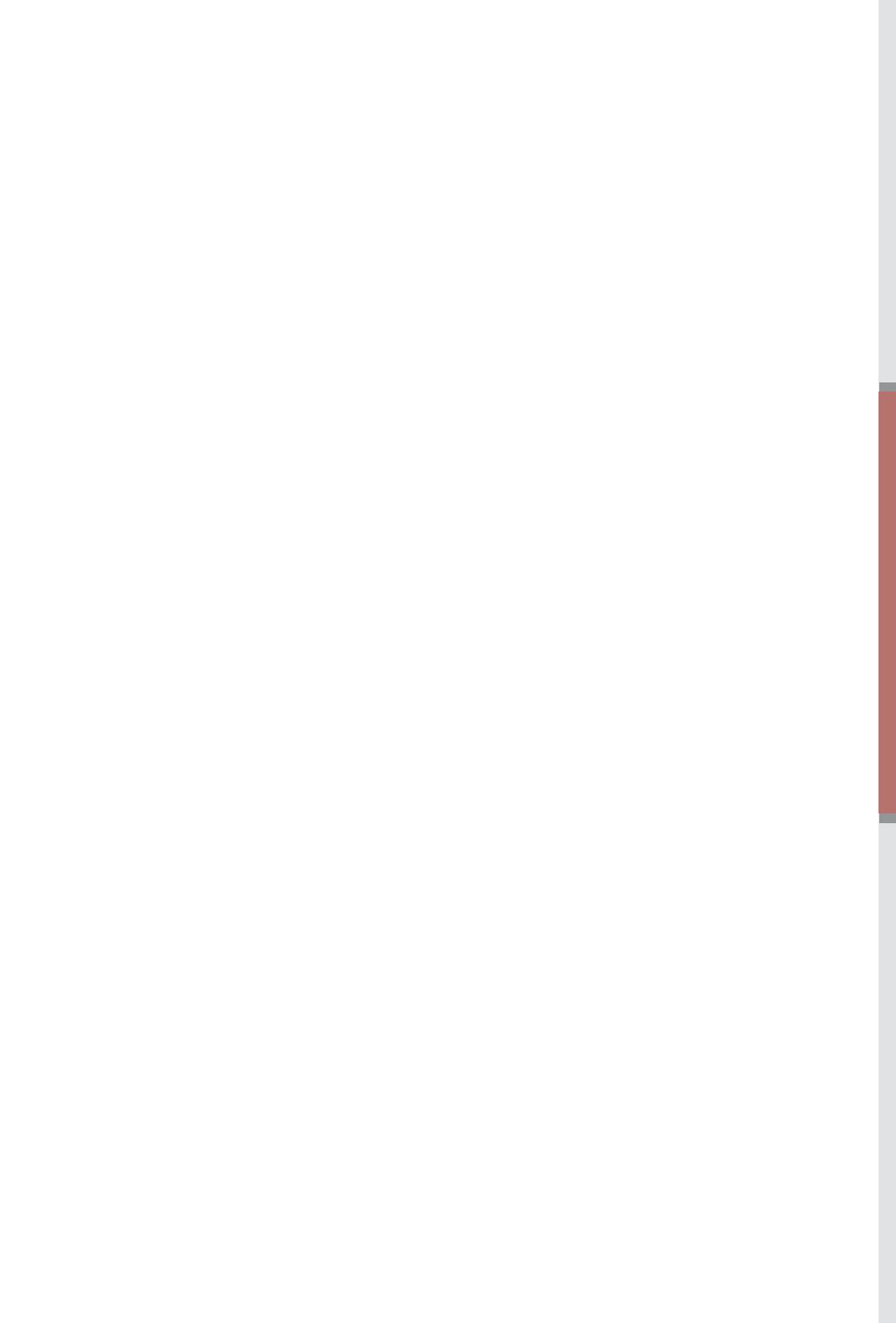
통권 제35호 | 2020

황성문화



明月照
夜士奇
以克寧後
玉橫斜
雪梅

황성문화원



문 | 화 | 비 | 전 | 선 | 언

문화는 삶을 담은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하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30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2020년은 온 나라가 ‘코로나 19’ 로 인하여 일상이 부자연스러운 고통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도 정초부터 정월대보름 행사를 비롯하여 황성군민 4·1만세운동 101주년 기념행사, 전통문화 체험학습, 문화유적답사 및 탐방, 어르신 노래자랑, 국악대공연 등도 접어야 했으며 문화학교 프로그램운영도 일부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학교 프로그램의 4개 강좌 증설 운영, 향토사료집 발간,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발표회 및 각종 대회 입상 등 노력의 성과도 많았으며 실외 소나무식재로 정서적인 환경도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황성시네마 작은 영화관을 11월부터 문화원이 운영함으로써 황성문화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향토지 ‘황성문화’ 통권 제35호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원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로 인하여 황성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19’ 로 인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문화원 사무국 직원이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 가 종식되어 2021년 새해에는 활기차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 회원님, 임원님, 군수님, 문화체육관광과 장유진 과장님, 박근식 계장님 등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치 있는 ‘황성문화’ 가 나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어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2020. 12.

황성문화원장 박 순 업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시기에 「횡성문화 제35호」 발간을 5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소 지역 문화 창달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오시며, 이번에 뜻깊은 문집을 발간하신 횡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과 문화원 관계자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횡성문화」는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

화를 재조명하여 자랑스러운 향토 문화의 발굴과 선양을 위한 정보지로 우리군의 문화융성과 군민들의 애향심 고취에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1세기 요즘 개발과 발전이라는 논리 앞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잃기 쉬운 것이 되어 버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의 향토문화는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지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가치가 높아지고 보존함으로써 사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구심점이 되어온 횡성문화원의 역할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로 서른다섯 번째 발간되는 「횡성문화」의 가치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횡성문화」가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의 소재를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우리지역의 문화를 폭 넓게 이해를 돕는 역할은 물론, 21세기 품격 있고 유서 깊은 고장 횡성의 위상을 높이고 창조적 발전을 이끄는 대표 문화지로 명성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문화 길잡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횡성문화 제35호」 문집 발간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횡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횡성군수 **장신상**

축사 | Congratulatory Message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주고 애항심을 고취시킬 ‘횡성문화 통권 제35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등의 여파로 문화 행사 및 사업이 축소 운영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고 올바른 자료 발굴을 통해 이번 ‘횡성문화’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신 횡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풍부한 향토문화 창달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지금, 우리 지역 고유의 독창적인 가치를 찾아나가고, 문화를 정립시키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며, 후손들을 위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일이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내일이 되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과 뿌리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하여 문화적 역량을 쌓아가고 있는 ‘횡성문화’가 매년 발간됨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향토사 연구와 문화 자료의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의 창달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횡성 문화의 진정한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책이 발간되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과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고장을 지켜나가고 지역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문예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횡성군의회 의장 권순근



황성문화(文化), 그 아름다운 개화(開化)를 위하여

김 성 수



등 푸른 태기산(泰岐山)이
동해(東海)의 빛난 해를 건져 올리면
눈부신 황성 산하(山河)엔
새날이 밝아온다.

굽이굽이 풍요(豐饒)의 들판을 흘러가는 섬강은
군민의 꿈과 소망을 안고
천년을 흘러왔고,

마을마다 골골마다
도타운 정과 사랑이 서리인
우리의 황성은 예로부터
축복의 땅 이 곳에
찬란한 문화(文化)의 꽃을 피워왔다.

한우총각 더덕아가씨 눈이 맞아서
사랑의 울실로 행복을 수놓는
여기는 미래(未來)의 땅
아름다운 황성.





우리의 문화 속엔
이 고장 순박한 민초(民草)들의
숨소리가 서려 있다.
방울방울 땀방울이 맺혀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보람찬 내일을 가꾸려는
군민의 의지(意志)가 알알이 영글어 있다

참다운 문화(文化)의 창조(創造)는
새 역사(歷史)를 여는 또 다른 시작이며
인류 행복의 바로미터가 되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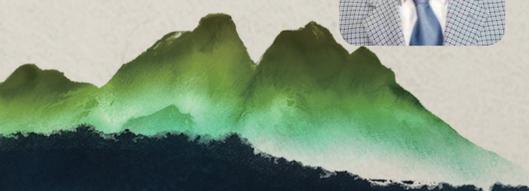
더 향기롭게
더 아름답게 피어올라라
소망을 담은 찬란한 문화의 꽃송이여
송이송이 맺힌 이슬을 떨고
화알짝 새 아침을 열어 놓아라.

만세(萬歲), 만세(萬歲), 만만세(萬萬歲)!
횡성문화(橫城文化) 그 아름다운
개화(開化)를 위하여.....



김성수 약력

- * 1944년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출생
- * 조선일보신춘문예, 신춘평화문학상, 월간문학신인상으로 등단(登壇)함
- * 이육사문학상, 강원도문학상, 강원도문화상, 강원예술대상, 한국예총예술문화상 대상, 시조사랑문학상, 문예창작지도상 등 수상
- * 저서: '시가 흐르는 섬강' 외 시집 20권
- * 강원문협 자문위원, 원주문협 고문
- * 현재 횡성문화원 회원.





태기산의 새



부엉이



물까마귀



태기샾의 새



되지바퀴



물까치



태기샾의 새



호반새



황여새



태기샾의 새



방울새



큰오색딱따구리



태기샾의 새



파랑새



긴꼬리딱새



태기샷의 새



피꼬리



대륙지바퀴



태기살의 새



이 계 철

- 전) 그린피아(주) 대표
- 제천관광사진공모전 금상
- 고창관광사진공모전 금상
- 전주관광사진공모전 금상 외 입상, 입선 다수
-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Content

문화비전선언문

발간사 | 문화원장

격려사 | 횡성군수

축사 | 횡성군의장

축시 | 횡성문화(文化), 그 아름다운 개화(開化)를 위하여 - 김성수

사진 | 태기산의 새 - 이계철



I. 향토사의 숨결

020 ▶ 조선중기 재상 고흥산 위민행정과 그의 가계 고씨동굴 연관성 고찰 - 민준식

054 ▶ 2020 향토사료 발굴조사를 다녀와서 - 윤병철

061 ▶ 횡성군 둔내면의 융성한 문화의 힘 - 이연숙

075 ▶ 역사 속에 비춰진 횡성의 고귀한 흔적들 - 김동정

091 ▶ 운암정의 내력, 운암정서 - 이철영

098 ▶ 고장의 새싹을 키워 온 화성유치원 - 박순업

112 ▶ 횡성의 문화재를 찾아서 '육절러' - 횡성문화원 편집자

II. 문화유산

118 ▶ 횡성향교 명륜당 동재 개축을 기념하며 - 이병곤

123 ▶ 국가 문화재 분류, 의미 및 보존에 관한 고찰 - 현원명

III.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160 ▶ 횡성에서 보는 새 - 한상균

188 ▶ 우리 토종오이, '물외' 에 대한 단상 - 정재영

205 ▶ 횡성의 전문예술단체 '농음' 이 걸어온 길 - 김지희

- 216 ▶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 민준식
- 221 ▶ 트럼펫과의 인연 - 진용근
- 226 ▶ 다섯 살 배기의 잊혀지지 않는 6.25전쟁- 심재원
- 229 ▶ 춘당 아홉꿈동이들의 사물놀이 이야기 - 이영재

IV. 문예마당

- 238 ▶ (시) 귀가 - 김은주
- 239 ▶ (동시) 너도 그랬어 - 김정자
- 240 ▶ (수필) 건망증 유감 - 연영흠
- 248 ▶ (수필) 부치지 않은 편지1 - 김명숙
- 252 ▶ (시) 고요를 흔드는 햇살 - 박현숙

V. 문화학교

- 256 ▶ 횡성 한국무용단 동아리 탐방 - 김종성
- 259 ▶ 횡성 실버에어로빅 동아리 탐방 - 김종성

VI. 문화사업실적

- 267 ▶ 2020 문화사업실적



I

향토사의
숨결

조선중기 재상 고흥산 위민행정과 그의 가계(家系) 고씨동굴 연관성 고찰



황성문화원 사무국장
민준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황성읍 정암 3리 망백마을 오솔길 길가 언덕에는 앞뒤로 붙어 있는 부부(夫婦) 고분 2기가 자리 잡고 있다. 전면 양 옆에는 문관석, 촛대석 각 2개, 비신과 하엽이 하나의 돌로 이루어진 특이한 형태로 세워진 묘비가 있는데, 문관석 목이 떨어졌던 사연은 무엇이며 또 200여 미터의 발둑 도랑가에 버려진 거북 돌은 이 묘의 주인공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의문점이다.

1969년 봄 귀부대석으로 인하여 소동이 벌어졌었다. 발 가운데 주인 없는 거북 돌로 경작에 장애가 되던 발주인은 덕고초등학교¹⁾에 국민교육헌장비를 세울 대석²⁾으로 갖고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 하에 교장선생은 운반 날 짜를 정해 놓았는데, 고판서 신도비 대석인 가문의 역사적 자료의 훼손과 무단 반출(고씨 문중의 문제제기)하려 한다는 이유로 학교장은 당국에 고발당하였다. 그런데 학교장은 더 산골학교로 자리를 옮기는 선에서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 후 무관심속에 발 경작에 장애가 되던 거북 돌은 굴려져 발둑에 방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의 숨겨진 역사적

1) 1969년 덕고초등학교 박순업 증언

2) 당시는 학교마다 국민교육헌장비를 세웠음

존재 가치를 탐구해 볼 필요를 느꼈다.

정암리 사람들조차 이 고장에 고관서 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의 삶과 업적, 역사적 흔적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삶의 터전인 향토 곳곳에는 조상들이 살면서 남기고 간 가치 있는 흔적들이 묻혀있으나 무관심 속에 잊혀 지거나 인멸되어 가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크고 작은 가치 있는 향토사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모두 다 발굴, 가치를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그러므로 가까운 그 지역에 사는 관심 있는 인사들이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이를 고찰, 탐구해 밝혀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특히 문관석의 목이 잘린 묘역에 잠든 고흥산은 조선 중기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요직을 두루 거친 횡성 출신 인물로서 생전에 역점사업으로 백성의 편의를 위해 100여 년 전에 닦아놓은 대관령 길 확장이 역적의 굴레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임진왜란의 슬픈 사연이 있는 영월 고씨동굴이 있다. 왜 고씨동굴이라 명명되었으며 고흥산 가계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 위민행정을 펼쳤던 고흥산은 강원도민일보와 한국문화원 연합회 강원도 지회에 의해 2002년 10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었고 동년 10월 16일 횡성문화원 주관으로 횡성문화관에서 강대덕박사의 고흥산을 주제로 한 강연회도 가졌었다.³⁾

또한 2011년 8월 GTB의 찬란한 강원문화유산 프로그램에서 고흥산의 업적이 방영되었다. 위와 같은 약간의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 어떤 위민행정을 어떻게 펼쳤는지 영월 고씨동굴은 고흥산의 가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3) 강대덕, 조선시대 횡성인물 고흥산의 현대적 재조명 일선양강연회, 2002.10.16



지를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이의 연구를 통해 임금과 주변 인물의 신뢰 속에 펼쳐진 위민행정을 고찰하고 고씨동굴과의 관계 탐색, 이를 통한 의미와 가치 부여를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향

- (1) 고흥산과 관련된 조선시대 사료(조선왕조실록) 분석
- (2) 고흥산 유적지 대관령 옛길, 묘소 및 석물 고찰
- (3) 고흥산과 관련된 지역의 설화 조사
- (4) 고흥산 관련 문헌 분석
- (5) 고씨동굴과 고흥산 가계와의 연관성 조사

3. 고흥산의 관직 진출

27세 때인 1480년(성종11년) 小科(式年生員試)를 거쳐 1483년(성종14년) 춘당대시(春塘臺試)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관직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문과방목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흥산의 문과방목(文科榜目)

성종 14년(1483년) 춘당대시(春塘臺試) 병과(丙科) 21인 급제
인적사항

생년(生年) ----- 1453(癸酉)

자(字) ----- 정숙(靜叔)

시호(諡號) ----- 위열(威烈)

본관(本貫) ----- 횡성

봉호(封號) ----- 익평(翼平)

(2) 가족사항

부(父) ----- 고사신(高思信)

조부(祖父) ----- 고습(高襲)

(3) 이력 및 기타

소과(小科)

특별시(特別試)

전력(前歷) ----- 생원(生員)

관직(官職) ----- 우찬성(右贊成)

문과급제자 명부인 국조방목(國朝榜目)은 조선 태조 초기부터 1877년(고종 14년)까지 문과 급제자를 기록한 책으로 황성의 고씨 합격자 수는 2명이다.

(4) 황성의 고씨 문과급제 명부

성명	자	호	시험	등위
고형산(高荊山)	정숙(靜叔)	위열(威烈)	성종14(1483)춘당대시	丙科21
고경오(高敬吾)	여일(汝一)		선조38(1605)증광시(增廣試)	丙科1



II. 고흥산의 삶과 위민(爲民) 행정

1. 고흥산이 수행한 관직⁴⁾

- (1) 성종 때 : 지평현감
- (2) 연산군 때 : 종사관, 사헌부 장령(掌令), 함경도 경차관(敬差官), 사간원 간원, 사헌부 집의, 해주목사, 함경북도 절도사
- (3) 중종 때 : 함경북도 관찰사, 형조참판, 형조판서 강원도 관찰사, 전운사, 한성부 판윤, 승정대부로 충청, 전라 체찰사(體察使),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호조판서, 사헌부 대사헌, 공조판서, 병조판서, 예조판서, 이조판서 겸 우찬성

2. 효행의 실천

(1) 노모 봉양을 위한 사직서 제출

중종 6년(1511년) 고흥산은 계모가 79세가 되어 보살펴야 함으로, 횡성으로 갈 것을 결심, 형조판서직을 사직하려 하였으나 중종은 윤허하지 않고 강원도 관찰사로 고힥에서 목민관 역할을 하며 모친을 봉양 효도하도록 배려하였다.

(2) 모친 묘소를 돌보기 위하여 사직

중종 7년 전운사(轉運使)로 재직하다 모친이 세상을 뜨자 사직하였다.

3. 향토사회에 전래되는 고흥산 설화

(1) 통통바위 전설⁵⁾

횡성 생운리 입구 굽이쳐 흐르는 전천에는 통통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옛날에는 물이 빙빙 돌뿐 아니라 명주실 한 꾸러미가 다 들어갈 정도로

4) 강대덕, 『조선시대 사료를 통해본 횡성』 도서출판 목민 2001. 20쪽

5) 횡성군, 『횡성군지』 강원도민일보사, 2001. 1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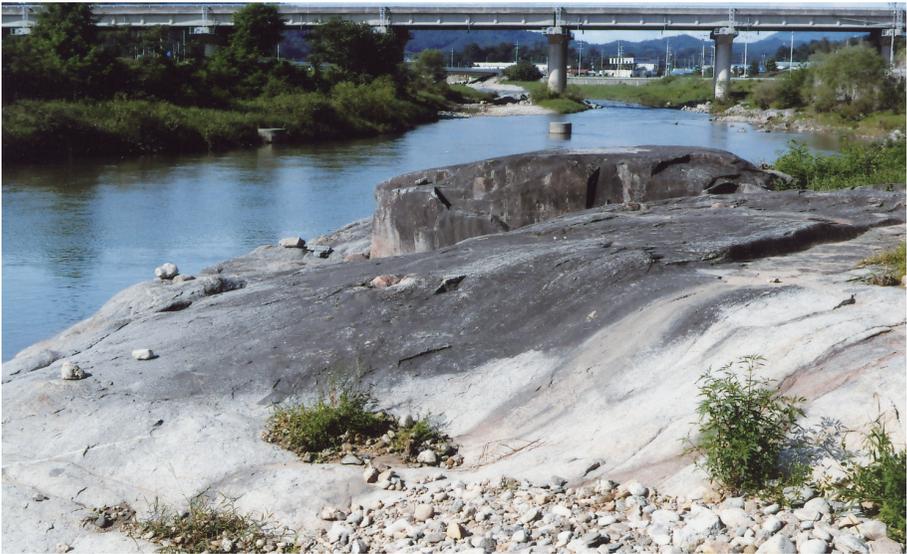
물이 깊었다고 한다.

이 바위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옛날 고씨 성을 가진 소년이 매일 이곳을 지나 청룡리 마을로 글을 배우러 다녔다고 한다. 위낙 머리가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난지라 서당 훈장이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알 정도였다고 한다.

어느 날 이 소년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쉬어 갈려고 이 바위 위에 앉았다 깜박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비몽사몽간에 이 소년에게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췌, 조용히! 고관서께서 잠을 주무신다. 그래 지체 높으신 어르신께서 잠을 깨시면 안 되잖아.” 그 소리에 눈을 번쩍 뜬 소년은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바위 주변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다만 물소리만이 들려 올 뿐이었다.

이 소년이 바로 횡성의 인물로 손꼽히는 고흥산이었다.



통통바위



(2) 솟을묘의 전설⁶⁾

횡성읍 조곡리 새골 안마을에는 고판서의 할머니 묘가 있는데 고행산이 과거에 합격 승승장구하다 판서가 되어 삼현육각을 울리며 금의환향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봉분이 솟아올랐다고 한다. 그 후부터 사람들이 이 묘를 솟을묘라 부르고 있다.

한편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고행산 할머니는 내 손자가 판서가 되면 춤을 추겠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늘 말했었다고 한다. 죽어서라도 무덤 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고.



손자가 판서가 되자 솟아올랐다는 횡성고씨 묘(솟을묘)

(3) 도깨비의 계시

하루는 고행산의 아버지 사신이 출타 중 밤길을 걷는데 도깨비를 만났으며, 도깨비는 그를 등에 업고 어느 야트막한 산자락에 내려놓고 이곳이 명당이다 중얼거리며 사라졌다고 한다. 얼마 후 고행산의 할머니가 세상을 뜨자, 아버지 사신(思信)은 모친의 묘를 그곳에 모셨는데 전설 속의 솟을묘가 된 것이다.

6) 횡성군, 『횡성군지』, 강원도민일보사, 2001, 1393쪽

4. 왕으로부터 신뢰받은 고행산⁷⁾

성종 때는 중6품관에서 정6품관으로, 연산군 때는 세 번이나 특진을 하였으며, 중종 때는 왕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더욱 신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1) 노모를 봉양 하고자 형조판서를 사직 정계를 떠나고자 하였으나 고향의 관찰사로 보내 효도하게 한 점
- (2) 계모의 상사로 황성에 내려와 있다가 병을 얻었는데 왕이 친히 약물을 내려 치료하게 한 점
- (3) 병조판서 고행산이 눈이 어둡고 귀가 멀었으면서도 그 직임에 오래 있었다 하여 두 세 차례 사직하려 하였으나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다는 점
- (4) 우찬성 고행산은 69세로 연로하여 사직하기를 원하자 왕은 만류하며 친히 궤장(几杖)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이를 사양하고 “특별히 신에게 본직을 주심은 감격함을 이길 수 없고 마음껏 일하려 하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막중한 국사에 그릇됨이 있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였으나 왕이 “경은 일찍이 호조를 역임하였는데 호조는 타조(他曹)와 달라서 경비조절과 더불어 구황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막중하므로 사양치 말라.” 한 점⁸⁾
- (5) “고행산이 죽었다 하니 매우 슬프다. 별례(別例)로 치부(致賻)한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고 중종이 말 한 점 등으로 고행산은 왕으로부터 신뢰가 컸음을 알 수 있다.



7) 강대덕, 『조선시대 사료를 통해 본 황성』, 도서출판 목민, 176~236쪽

8) 사신은 논한다. 고행산은 빈한한 가문에서 출생하였지만 변방계책에 유능하며 오랑캐들이 다투어 자식을 고행산이라 하였다. 처신이 간소하고 검박했으며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자못 많았다.

5.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난 고흥산⁹⁾

(1) 연산군 일기

연산군 5년

1499년 8월 7일 - 종사관 고흥산에게 삼수에 보를 설치하는 일이 적당한 지 살피게 하다.

연산군 6년

1500년 1월 20일 - 고흥산에게 사헌부 장령으로 제수하다.

1500년 1월 26일 - 경연에 납시었다. 장령(掌令 : 사헌부 정4품관) 고흥산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함경도 도사(都事)가 되었는데, 변방에 옮긴 백성들을 보니 지극히 영락 쇠진했습니다. 국가에서 백성을 북도로 옮길 때에는 밭갈이 할 땅을 골라서 주고서 3년을 한하여 복호(復戶:충신, 효자, 節婦가 난 집의 戶役을 면제해 주던 일)와 면세를 하여주니 위무(慰撫) 구휼(救恤)하는 도가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들이 모두가 위무 구휼하여 주지 않으며, 주었다는 전토도 유명무실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니 무엇으로 살밀천을 삼겠습니까. 청하옵건데 지금부터는 감사로 하여금 밭갈이할 만한 전토를 선택하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왕이 좌우 사람들에게 물었다.

고형산이 아뢰기를 “만일 관원을 보내어 조사해서 그들에게 준 전토가 흑시라도 이름만 그 수효를 채운 자가 있을 때에는 수령을 즉시 파출(罷黜)케 명한다면 거의 그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고형산이 아뢰기를 “신이 함경도에 있으면서 역로(驛路)의 폐단을 보았는데 홍원(洪原)에서 端川(단천)까지가 남도(南道)가 되고 길성에서 명천까지가 북도가 되는데, 그 중간에 고산, 거산, 수성 등의 3대 역이 있습니

9) 강대덕, 『조선시대 사료를 통해 본 횡성』, 도서출판 목민, 176~236쪽

다. 남도 병사는 북청으로 본영을 삼는데, 만일 삼수·갑산에 적변이 있어도 시기에 맞추어 달려가 구원합니다. 그런데 북청에서 가산까지가 3백30리요, 그 사이에는 제인관·종포·옹이·허천 등의 역이 있고, 갑산에서 삼수까지가 2백 10리인데, 그 사이에는 적생역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들은 큰길이 아니기 때문에 한 역에 말이 겨우 2~3필밖에 없습니다. 병사의 행차에는 군관·반인 등 허다한 사람들이 있으니, 말 짐바리가 반드시 많은지라 부득이 남도의 역마를 뽑아가지고 가는데, 다만 기한에 맞추려고 달리느라 죽는 말이 자못 많으니 정말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신은 원하옵건데 제인관·적생 등 역에는 큰길의 예에 의하여 마필(馬匹)을 많이 세우고 우리(郵吏)를 더 두어서, 남도 거산 등 역의 폐해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곧은길의 우역(郵驛)에도 그 폐해가 적지 않은데 야인이나 대소 사객(使客)이 왕래할 때에 진상하는 물품의 수송 등으로 마필을 쓸 때가 없습니다. 또 고산역의 폐단으로 말하면, 본영을 함흥으로 하고 안변 등의 관아에서 진상하는 물품을 함흥에 바쳐서 서울에 이르게 하는데, 그 왕래에 모두 역마를 사용하여 실어 나르고 부족하면 소바리로 실어 나르며, 소가 부족하면 남녀가 지고이고 하여도 지탱하지 못하니,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개 각 역에는 대·중·소에 따라 마필이 원래부터 정하여진 수가 있으며, 이보다 앞서 그 말수에 따라서 위전을 주고 공수전의 일수 역시 수를 채워 주기 때문에 역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신년(세종10년, 1428년) 양전(量田) 할 때에는 역이 있는 곳을 길의 대·중·소를 생각하지 않고, 당시 마필의 유무만 따라서 주었기 때문에 역로가 날이 갈수록 폐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해에 병조에서 역로를 회복하는 계획을 아뢰었는데, 함경도의 곧은길은 큰길의 준례대로 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법은 이러하지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신이 전에 감사(監司)와 함께 본도의 역로를 회복시킬 계책을 아뢰었는데, 청하옵건데 곧 그대로 새행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의 위전(位田) 공수전(公須田) 및 일수(日守)는 그 여로의 대·중·소에 따라 수에 준하여 주고, 역로가 희소한 것은 역시 각사(各司)의 노비로 충당 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병조로 하여금 절목을 상고하여 본 후 에 처치하겠다.” 하였다.

1500년 2월 6일

고형산이 각 관아에서 나누어 기르는 말의 관리를 책임지울 것을 청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장령(掌令)고형산이 아뢰기를, “각 관아에서 나누어 기르는 말이 죽으면 수령은 사(赦)가 있기 전임을 막론하고 파출(罷黜)됩니다. 다만 겸사복(兼司僕)도 사냥할 때 사복시 말을 타며, 여러 사람들도 사냥 그물을 말에 싣고 나가는데, 한번 먼 곳으로 나가면 혹 20일까지 되어서야 돌아오매, 그만 말이 여위고 병이 생기게 되는데, 아무 죄책을 받지 않고 유독 나누어 기른 각 관아 수령만을 죄 준다는 것은 애매한 듯합니다. 청하옵건대 금후로는 각 고을에 말을 먹이고 기르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죽게 한다든가, 사복시에서 병든 말을 치료하지 못하면 다 함께 국문하여 죄를 주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여러 재상들과 의논하라.” 하였다. 고형산이 아뢰기를 “윤대(輪對)는 조종조의 고사인데 오래도록 폐지하여 행하지 않은 것은 온당치 못하오니 행하소서.” 하였는데,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1500년 7월 6일

장령 고형산 등이 장성을 쌓는 일의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장령 고형산과 정언 심순문이 장성을 쌓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논계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고흥산이 또 동청례(童淸禮)를 위장(衛將)에 임명함이 불가하다는 일과 대간과 정조(政曹)가 상피하지 말도록 함이 불가하다는 것을 논계하니, 전교하기를, “장성을 쌓는 일은 마땅히 수의(收議) 하겠다.” 하였다.

1500년 11월 3일

함경도 경차관 고흥산에게 삼수에 어면보(魚面堡) 없이도 적을 제압할 수 있는지 조사하게 하다.

함경도 경차관 고흥산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난번 삼수(三水)지방의 어면(魚面) 신방구비(神方仇非)에 두 성보(城堡)를 설치한 것은 적군을 방어하기 편리한 것이다. 지금 듣건대 두 성보에서 경유하는 길이 매우 높고 험준하므로 남쪽 고을 군졸들이 왕래하기 곤란하여 폐해가 너무 적지 않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만약 옛 후주(厚州)에 성보를 설치한다면 적군의 통로를 제압할 수가 있으므로 어면보(魚面堡)와 신방구비(神方仇非)는 없어도 된다.’ 고 한다. 너희들은 갑산 부사 전오륜과 함께 급히 후주에 가서 그 형세와 이해(利害)를 살펴보아 그 적의 통로가 많은지 적은지를 자세히 들러보며, 그 방어하기 편리하고 유익하기가 어면이나 신방구비보다 나아 반드시 진을 두고 저 두 성보를 없애야 한다면, 그 토지의 넓고 좁음과 밭은 몇 경(頃)이나 만들 수 있고 사람은 몇 호나 거주할 수 있으며 토병(土兵)은 몇 사람이나 들여보내야 하고 수졸(戍卒)은 몇 명이나 두어야 할지 헤아려 보며, 삼수군 사람들이 또한 이사하여 거주하려는 사람이 있고, 만약 과연 진을 두게 된다면 어면, 신방구비보가 없이 유독 이 한 진만으로도 요새지가 되어 적들을 제압할 수가 있을 것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개록(開錄)하여 급보로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7년

1501년 12월 26일

한치형 등이 북방의 일과 고흥산에게 상줄 것을 청하다.

한치형, 성준, 이극균이 아뢰기를 “부령(富寧)에 진영을 옮겨야 할 일을 고흥산을 보내어 살펴보고 조치하게 하소서. 또 고흥산은 나랏일에 부지런히 일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되니, 포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두 품계 더 올려 주라.” 하였다.

연산군 8년

1502년 11월 22일

고형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형산에게 사헌부 집의(執義)를 겸직하게 하였다.

1502년 12월 5일

함경도 경차관(敬差官) 고흥산이 치계(馳啓)하기를, “서울의 흥리(興利: 이익을 늘림)하는 사람과 본도 백성들이, 금물(禁物)을 야인들에게 몰래 팔아서 그 폐단을 장차 금지하기가 어려우니, 감사와 각 고을의 관원으로 하여금 엄중히 금지하게 하고 위반한 자는 다른 사람이 사실을 고발하게 하여 법을 범한 자의 재산을 그에게 주고, 또 수령으로서 능히 금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면령(赦免令)이 전임을 가리지 말고 중죄로 논단함은 이미 그 법이 있으니, 감사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거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9년

1503년 1월 4일

고형산을 해주목사로 삼다.

해주목사가 결원이 되어, 이조가 의망(擬望)을 의논하여 아뢰니, 고흥산에게 써서 내리기를, “이 뒤에 큰 임무를 맡기겠으니, 특별히 두 품계를 올려 제수한다.” 하였다.

연산군 10년

1504년 6월 2일

함경도 절도사 고흥산에게 가선을 더해준다.

전교하기를 “함경북도 절도사 고흥산에게 가선(嘉善:특례로 특별히 승진시켜 계급을 올려주는 것)을 특가하라.” 하였다.

1504년 6월 2일

함경북도 절도사 고흥산이 전을 올려 은혜에 사례하다.

함경북도 절도사 고흥산이 전(箋)을 올려 은혜에 사례하였다. 고흥산은 보잘것 없는 신분에서 일어나 힘써 배워서 급제하였으며, 일을 맡아 처리하는 재주가 있었다. 왕사(王事:임금이 시키는 나라의 일)에 마음을 다하고 관의 일에 임해서는 자기 집의 일처럼 하여 조금도 게을리 한 적이 없어서, 모든 지낸 직임에 다 명망과 공적이 있었다. 여러 번 복녘의 구석진 고장에 봉사하여 변방의 일을 잘 알므로 대신이 천거하여 남도 절도사가 되었는데, 이제 특별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높여져 북도로 옮겨 임명되었으므로 사례를 올린 것이다.

(2) 중종실록

중종7년

1512년 8월 25일

고형산이 횡성에서 병을 얻었으므로 약을 내리고 육식을 허락하다.

승정원(承政院)이 아뢰기를, “계모의 상사를 당하였는데, 횡성에서 병



을 얻었으니, 바라건대 약물을 내리고 또 개소(開素:素食하다가 육식을 시작하는 것) 하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고 전교하였다.

중종22년

1527년 2월 2일

신상·윤풍형·남곤·고형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상을 경상도 관찰사로, 윤풍형을 사간원정언으로, 남곤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고형산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이자건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임명하였다.

중종23년

1528년 11월 20일

“고형산(판중추부사)가 죽었다 하니 매우 슬프다. 별례(別例)로 치부(致賻:임금이 몸소 賻儀를 내줌)한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고형산은 본관이 횡성이며 대대로 그 고을에 살았는데, 초야에 있던 사람으로서 성종조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처음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상례로 외방의 고을에 제수되었는데 크게 성적이 있었으며 만년에는 포부를 펴서 설시(設施)한 것이 많았다. 또 변방의 일에 익숙하여 나라의 중신이 되었으며, 성품이 근검하며 질박하고 겉치레가 없으며 성심으로 봉공하였다. 라고 사신은 논하였다.

고형산은 성종25년(1499년)지평현감을 역임할 때 백성들의 숨은 고통을 부지런히 돌보며 그 폐단을 제거하는데 힘썼다하여 선무랑(宣務郎:종6품관)에서 승훈랑(承訓郎:정6품관)으로 제수된 이래, 연산군 7년(1501년 12월 26일) 영의정 한치영 등 중신들이 그가 나랏일을 함에 다른 사람보다 갑

절이나 되니, 포상하기를 청하여 두 품계를 더 올려 받았고, 9년 해주목사가 결원이 되어, 이조가 의망(擬望)을 의논하여 아뢰니, 왕이 고흥산에게 써서 내리기를, “이 뒤에 큰 임무를 맡기겠으니, 특별히 두 품계를 올려 제수한다.” 며 해주목사로 삼았다. 또한, 10년(1504년 6월 2일)함경북도 절도사 당시 왕으로부터 가선(嘉善)을 특가(特加:특별히 승진시켜 계급을 올려주는 것) 받은 것처럼, 자신의 노력과 능력 발휘로 신임을 받게 되었고 연산군 5년(1499년 8월 7일)과 6년(1500년 11월 3일)에는 각각 삼수에 보(堡)설치하는 일이 적당한지, 삼수의 어면보(魚面堡)없어도 적을 제압할 수 있는지 조사해보고 하라는 것, 부령에 진영을 옮겨야 할 일을 살펴보라는 왕명을 받고 최선을 다하였음을 실록을 통해 알 수 있다.

6. 실록을 통한 고흥산의 위민행정 분석

관직 초기인 지평현감 재직 시, 백성의 숨은 고통을 부지런히 돌보며 폐단 제거에 힘써, 그의 업무 수행을 인정받은 이래 주요 요직에서 다음과 같이 백성의 편에서 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 변방 평안도에 옮긴 백성들이 안접(安接)하지 못하고 쇠진해 있으니 구휼(救恤)하느 방안과, 함경도 역로(驛路)의 폐단 개선책을 왕에게 아뢰어 해결책을 찾은 점.(사헌부 장령시절)
- (2) 각 관아에서 나누어 기르는 말의 관리 책임 문제와, 장성을 쌓는 일의 불가함을 아뢰어 오류를 시정하려 한 점.(사헌부 장령 시절)
- (3) 성 쌓는 일을 중지하라는 상소를 올려 백성의 무리한 부담을 덜어 주려한 점.(대사헌 사간 시절)
- (4) 서울의 흥리하는 사람과 본도 백성들이, 금물(禁物)을 야인에게 팔아서 그 폐단을 장차 금지하기 어려우니, 감사와 각 고을의 관원으로 하



여금 엄중히 금지하게 하고 위반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고발하게 하여 법을 범한 자의 재산을 그에게 주고, 또 수령으로서 능히 금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면령이 전임을 가리지 말고 중죄로 논단함은 이미 그 법이 있으니, 감사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거행하기를 청하여 관철한 점.(함경도 경차관 시절).

- (5) 해주목사 고행산 등을 모아서 부령진(富寧鎭)을 옮겨 배치하는 것이 편리한지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고행산이 의논드리기를, “부령진을 옮겨 배치할 곳을 신이 작년에 직접 가서 편리한지의 여부를 조사해 보았는데, 정승파오달(政丞波吾達)에는 진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자세히 기록해서 아뢰었습니다. 정승파오달로부터 홍빈(紅濱)의 하단인 천파(泉坡)에 이르는 1식 거리 안에는 지세가 험착하여 진을 설치하는데 적당하지 않고, 천파로부터 홍빈, 제봉 앞에 이르러는 토지가 넓어 10여리가 평탄하니, 만약 이 곳에 진을 설치하면 신영동(新營洞), 이원형동(李元亨洞), 속초동(束草洞)의 적로(賊路)와 허통동(虛通洞), 최달동(崔達洞) 등지의 적로를 막아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을 설치할 곳에는 4월에도 쌓인 눈이 녹지 않고, 9월에는 얼음이 벌써 단단하게 얼므로, 신이 두 차례나 왕래하면서 솜옷을 겹쳐 입었으며, 추위가 본부(本府)보다 갑절이 더하여 오곡이 미처 익지 않은 듯 했고, 게다가 모두 땅이 모래와 돌이므로 오곡을 심기에 적당하지 못했습니다. 신은 듣건대, 중국에서는 방어하는 군졸들에게 의식을 관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다만 적로가 긴요 한가 않은 가를 조사할 뿐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방어는 이와 달라서, 성내에 거주하는 구인들이 처자를 거느리고 머물면서 방어하고 자신들이 옷과 양식을 준비해야 하므로, 당연히 그들의 농사짓기와 방어하기에 다 편리한 것을 살펴서 진을 설치한 후에야 백성들이 생업에 편안하고, 방어 또한

튼튼할 것이오니, 신의 소견으로는 지금 진을 옮기는 곳이 편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산보(茂山堡)에서 풍산보(豐山堡)에 이르는 40리와 풍산보에서 회령진에 이르는 60리에는 그 사이에 방수(防戍)하는 곳이 전혀 없으며, 두 보루(堡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농사짓는 땅과 다니는 길이 모두 외지에 있으므로 적로가 가깝고 재세도 험하지 않으며, 검천(檢天)이하의 길가에 가까이 살고 있는 야인들이 연속해서 왕래하여, 작년 1년 동안에 두세 번이나 사람과 마소를 약탈해 갔으니, 경화(梗化)되는 조짐이 벌써 나타났습니다. 만약 때를 지어 일어나서 도둑질을 한다면, 무인지경을 들어오는 것 같이 장애될 것이 없으므로 변고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만약 무산로를(梁永萬洞)과 동양동(東良洞)과의 중앙에 옮기고, 풍산보를 삼기 근처에 옮기고 또 하거(下車)의 아랫지방에 다시 옛날의 보루를 세우면, 세 보루의 거리가 20여 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니 수미(首尾)가 서로 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고에 응하기가 편리할 것이요, 두 보루에서 농사짓는 논밭이나 다니는 길이 모두 내지(內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지을 수 있는 묵은 토지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토질이 또한 비옥하여 백성들 중에 옮겨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소견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북방정책 추진에 힘쓴 점.(해주목사 시절)

이처럼 고흥산은 백성의 편에서 그의 관직을 수행하였다. 성종 때는 현감으로서 백성의 숨은 고통을 찾아 해결해 주고 폐단을 제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특진되었고 연산군 때는 사헌부 내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능력 발휘로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함경도 경차관, 해주목사, 함경북도 절도사를 거치면서 북방정책의 기틀은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성종 · 연산군 때 단단히 다져놓은 그의 경륜은 종종 때에 와서 중신



의 반열에 오르며 그의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하며 중종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다음과 같이 백성들을 위해 행정을 펼쳤다.

- (6) 중종2년(1507년 2월)에는 함경도 관찰사가 되어 경흥부에 창고를 짓고 도민의 유리를 막는 등 백성을 잘 다스렸으므로 왕으로부터 치사를 받았다.
- (7) 중종6년(1511년 11월)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강릉진, 삼척진, 동포, 울진포, 대포 등 다섯 진포의 성을 쌓아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등 왜적을 방비하는 계책을 중앙에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쌓여있는 행정상의 불만을 정리하여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강원도관찰사 시절)
- (8) 강원도 관찰사와 공조판서를 역임하면서 우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대관령을 닦았고 동서를 관통하는 대동맥 서울 - 강릉 도로를 개통하는 등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 (9) 중종 11년(1516년 10월) 병조판서에 제수되고 5월 18일 죽궁을 만들어 그 우수성을 왕에게 설명 병기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성품이 정직하며 부지런하고 검소했던 그는 오랫동안 병사와 금전과 양곡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아오면서 곡식을 저축해 두고 흉작에 대비하는 사창법을 실시해 백성을 구휼(救恤)할 것을 주장하는 등 백성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였다.
- (10) 중종17년(1522년) 우찬성과 순변사 특진관(10)10) 고흥산은 횡성인으로서 소과와 대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찬성에 이르렀다. 성질이 질박하고 부지런하고 겸손하였다. 오랫동안 군의병사와 금전, 양곡을 관리하는 병조, 호조판서 직임을 맡아 처리가 매우 정밀하였으며, 일을 정비한 것이 많았다. 『신 증 동국여지 승람』 제46권 횡성현편 참조으로 겸직되어 국정을 두루 살피는 한편 제주의 양마와 왜구의 침략에 대

한 방비책을 여러 차례 상소하였다.

(11) 중종 19년(1524년) 비변사 당상과 중추부사를 거쳐 중종20년 순찰사를 역임하며 백성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 많았다.

이처럼 단종1년(1453년) 태어나 중종23(1528년)까지 평생 동안을 백성의 입장에서 불편을 듣고 직접 상소하는 등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이 자자했다.

7. 고흥산과 대관령¹¹⁾

대관령은 강릉시와 평창군 사이의령으로 높이가 832m, 길이가 13km 된다.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며 문화의 전달로이고, 자연의 경계지이다.

강릉에서 생산되는 해산물, 농산물들이 이 길을 통해 영서 지방으로 넘어갔고, 영서지방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이 성안면 구산리의 구산장, 연곡장, 옥계장 등으로 넘나들었다.

또한 이 길은 괴나리봇짐에 짊신을 신고 오르내리던 백성들의 애환과 역사적 향기가 어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길은 조선초기까지만 해도 사람 한 둘이 간신히 다닐 정도였으나 그 후 조선 중종 때 강원관찰사인 고흥산이 사재를 털어 우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혀 놓았다고 한다.

대관령 옛길은 역사의 오솔길, 트래킹 코스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고흥산과 대관령 길을 넓혔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8. 묘소에서 살피본 사후(死後) 역경¹²⁾

고형산의 사후 100여년이 흘러간 다음 병자호란이 일어났으며 국방력이 미흡하고 국력이 쇠잔했던 조선은 순식간에 한양을 점령당하는 감당하기

11) 박순업, 『횡성문화』, 횡성문화원, 2007, 22~23쪽

12) 모역 탐방조사(2011. 7. 5)



어려운 국치를 당하였다. 서울이 빨리 점령당한 것은 고형산이 잘 닦아놓은 길이 한 원인이라는 인조의 분노로,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도 고형산은 두 번의 죽음을 당하는 역적의 처지가 되어 묘역도 훼손되었다. 하지만 훗날 경강도로의 필요성, 편리성으로 인한 재평가로 역적의 누명에서 벗어나 명예회복을 하였다.

(1) 묘비

고형산의 묘비는 횡성읍에서 우천 방향으로 6번 도로를 따라가다가 조곡·정암 쪽으로 우회전하고 약 1km 직진 후 다시 생운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생운교를 지나면 정암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암3리 망백마을 입구의 사선생비 앞 갈림길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산(횡성읍 정암3리 산 207-1번지) 위에 있다. 묘비에는 정경부인 윤씨 지묘, 송정대부 의정부 우찬성 고공 지묘라 음각 되어 있다.



정면에서 본 것. 고형산 묘는 부인 묘에 가려 보이지 않음

(2) 묘

묘는 앞 뒤로 합장이며, 앞에 정경부인 윤씨묘, 뒤가 우찬성 고흥산의 묘인데 뒤의 묘가 작은 것은 인조 때 훼손되었기 때문이라 전해지고 있다.



앞은 정경부인 윤씨묘, 뒤는 고흥산묘

(3) 문관석

당시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 무거운 죄를 뒤집어썼지만 고흥산은 이미 세상을 뜬지 100여년이 흘러, 죄 값을 치를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애꿎은 문관석이 목이 잘렸다.



목이 잘린 문관석



(4) 귀부대석

대제학 홍언필이 찬 하였다는 신도비는 묘역에 묻었다고(납대 納隊) 하며 귀부대석은 도랑가 밭둑 풀 속에 방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귀부대석의 크기 : 길이180cm, 높이100cm, 폭70cm
- 신도를 세우려 했던 흙의 크기 : 가로60cm, 세로20cm



귀부대석에 신도비를 세우고자 했던 흙(60×20)

III. 고흥산의 가계와 고씨동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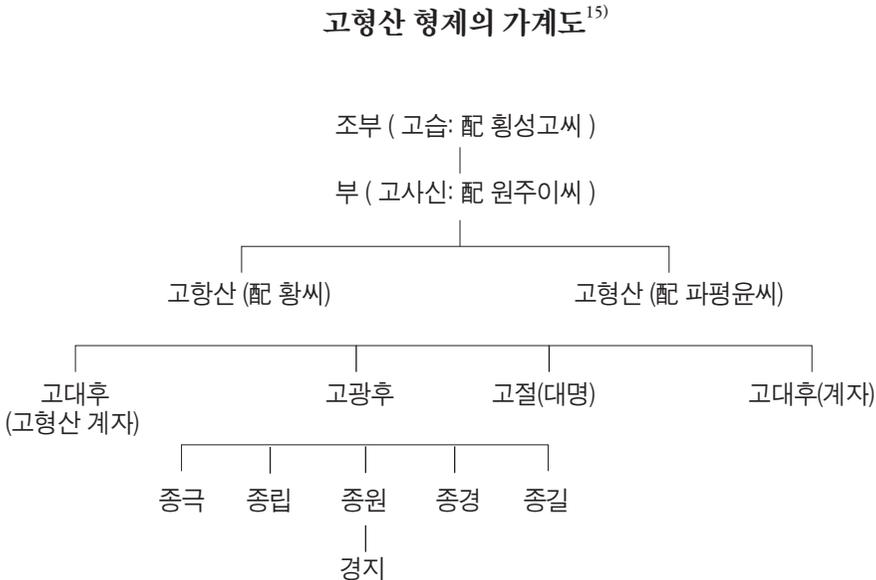
1. 고흥산의 가계(家系)

고형산은 횡성이 낳은 대표적 인물로서 계공랑(啓功郎: 종7품관) 전옥서승(典獄署 丞¹³), 사신(思信) 과 원주이씨 사이에서 1453년(단종 1년)에 태어나 1528년(중종23년) 75세 까지 살았던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정숙(靜叔) 시호는 위열(威烈)이다.

(1) 가족사항

부(父) ----- 고사신(高思信)

조부(祖父) ----- 고습(高襲)¹⁴



13) 고려시대 典獄署의 관직으로 구급된 죄수의 행간을 맡아보던 정9품관으로 고사신은 종7품관이었다.

14) 『횡성고씨 대동보상권16쪽』 고습은 제주인으로 태종조때 선무랑 행금성 현령결 권농단관이고 증2품 자헌대부 이조판서겸 의금부도사로 명기되었다.

15) 제주고씨 화전군과 대동보 1권



고형산은 1남 3녀를 두었으나 아들은 소년시절 과거 길에 횡사하였다 구전¹⁶⁾ 되어 오며, 큰 딸은 정암리 망백 마을의 이웃인 조준(趙俊: 횡성인), 둘째딸은 김용만(金用만:강릉인), 셋째딸은 민려손(閔礪孫:여흥인)에게 출가¹⁷⁾ 하였다. 아들 대명(고절)이 후사를 남기지 않고 요절하자 백씨(항산)의 장자인 대후를 계자로 하여 대를 이어 가고자 하였으나 이마저 요절, 대가 끊기게 되었다.

한편 고향산의 차남 광후는 목포만호 엄한우의 딸과 혼인하여 종극, 종립, 종원, 종경, 종길 5남과 2녀를 두었으며 다시 종길을 숙부(형산)의 계손으로 삼아 대를 잇게 하였으나 이마저 왜적에 살해되고 말았다.

고형산이 죽자 왕은 매우 슬퍼하였다. 그리고 1529년 2월 18일 국가에서 상(喪)을 맡아 횡성현 망백산 곤좌에 예장하였다. 고광후는 통한이 여기서 숙부인 고인의 비명(碑銘)을 예조판서겸 대제학인 홍언필에게 청하여 뜻을 이루었으나 치석을 하여 아직 세우지 못하였는데 병세가 심해졌다. 이에 자손(종원)에게 유교하여 그 뜻을 성취하도록 하였다.¹⁸⁾

2. 고씨동굴과 고향산 가계의 연관성

광후는 세상이 어수선하여 아들들을 데리고 횡성에서 원주, 제천을 거쳐 더 깊은 산골인 영월 김삿갓면 진별리로 이주하였다.

물 맑고 수려한 산중에서 아들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자연을 벗 삼아 시름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혹독한 임진왜란 전란은 조용하기 만한 영월 땅 김삿갓면 진별리도 비껴가지 않았다.

16) 횡성조씨 종친회장 조성진 고증(2010.5.1)

17) 제주고씨 화진군과 대동보 1권 6쪽

18) 유재춘 외 2인 「조선의 명재상 횡성인 고향산」 520쪽

(1) 영월 임진창의대장 고종경의 억울한 죽음¹⁹⁾

고종원은 동생 고종경과 함께 의병을 모집, 영월을 중심으로 강원도 전역에서 수 백 명이 모여들어 무예와 재예가 출중한 고종경이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에 고종경 의병장은 수 백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홍천과 영춘 사이의 험한 지형을 거점으로 삼아 왜적의 진로를 차단할 계획이었다.

그 때 강원도 관찰사 유영길이 영월에서 고종경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 원주 흥원의 군세가 미약해 관군 500을 줄 것이니 그곳에 가 싸우라고 명하였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원주로 향했는데 흥원진으로 가면 모두 죽는다는 소문이 퍼져 군사들은 야밤을 틈타 도망치자 고종경은 이를 추포하느라 도착 일자를 지키지 못하였다.

관찰사 유영길은 “군율을 범했으니 용서할 수 없다” 며 권두문 평창군수(영월군수를 겸함)에게 사형을 집행하라 명하였다.

며칠 사이에 만들어진 의병도 아닌 평소 훈련이 된 강원감영의 관병이 도망친 것은 관찰사의 잘못이 더 큰 것이다. 그러나 권두문 군수는 관찰사의 명이라 어쩔 수 없이 고종경을 처형하고 말았다.

훗날 관찰사는 잘못된 판단임을 깨닫고 사면하라는 공문을 내렸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2) 남은 가족의 피난²⁰⁾

형제들은 고종경의 억울한 죽음에 분개하여 왜적과 싸우려 하였으나 늙은 아버지가 있어 후일을 기약, 피난길을 택하였다.

가족이 함께 피난하면 모두가 위험할 것 같아 1592년 8월 17일 둘째는 아

19) 엄홍용 「영월 항일 독립운동사」 45쪽

20) 엄홍용 「영월 항일 독립운동사」 48쪽

버지를 모시고(첫째는 요절) 노곡리로 피난, 고종원은 처와 동생 종길과 함께 진별리 강 건너 동굴(이로 인해 고씨동굴이라 유래 됨)로 숨었다.

왜적들은 이를 알아내어 굴 앞에 섰을 쌓아 놓고 불을 질러 연기에 질식할 지경에 이르자 종원과 종길형제는 밖으로 뛰어나왔으나 기절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형제는 왜적에 붙들리고 종원의 처 조씨는 동굴 안 절벽에 뛰어내려 자결하였다. 이들 부부사이에는 아들 고경지와 딸이 있었다.

(3) 왜적의 포로가 된 형제 (고종원의 난중일기 ‘기천록’ 에서)

왜적의 포로가 된 형제를 묶어 목책에 가두고 밤에는 화롯불을 피우고 2명의 왜적이 지켰다. 그들은 항복을 권하였으나 고종원은 “하늘이 굽어보고 있는데 어찌 의리를 저버리고 너희들을 따르겠느냐.” 하였다.

1592년 8월 19일 왜적은 진영을 영월읍 부근으로 옮기면서 고씨 형제를 끌고 갔다. 고종원은 진별리와 원골 사이에 있는 독바위 위를 지나다가 강으로 떨어져 죽으려 하였으나 눈치 챈 그들은 미리 방비를 하였다.

(4) 고종원과 평창군수 권두문과의 옥중 재회

(고종원의 난중일기 ‘기천록’ 에서)

1592년 8월 19일 왜적은 고종원 형제를 봉서루에 가두었는데 평창군수 권두문도 이곳에 잡혀와 있었다. 고종원은 권 군수에게 말을 건네기도 전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

다음날 고종원 일행을 별도의 감옥으로 옮기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 때 고종원과 친근한 영월군 관리 엄윤득도 이곳에 잡혀왔는데 그는 가끔씩 문밖 출입을 하였다. 그에게 지필묵을 부탁하여 품속에 감추고 매일 일기를 기록하였다. 왜적들은 글씨를 알지 못했으므로 이를 보고 자기들끼리 지껄이면서 지나갔다.

(5) 제천, 원주로 이동 왜적들의 약탈 (고종원의 난중일기 ‘기천록’에서)
 영월을 점령한 왜적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략질을 하였다. 그들은 사방으로 나갔다가 해가 저물면 포목을 등에 짊어지거나 곡식 자루를 어깨에 메고 진영으로 들어왔다. 영월 곳곳에서 약탈한 물건들이었다. 1592년 8월 23일 왜적들은 약탈한 물건을 가지고 진영을 옮겼다. 그들은 고종원 일행에게 빨리 건기를 재촉했으나 여러 날을 굶주렸기 때문에 건기가 힘들었다. 아우 종길이가 영월 봉서루에 갇혀있을 때 숨겨둔 청무 두 뿌리와 대추한 움큼을 주었다. 이를 먹고 나니 굶주림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왜적들은 제천 고을 곳곳을 뒤져 약탈을 하고 또 여자들을 강제로 욕을 보였다. 영월 장릉을 떠나 해질 무렵에 제천 관아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목책에 감금되었다.

다음 날 8월 24일 제천을 떠날 때 밥을 조금 먹고 신림을 지나 원주 경계에 이르니 곳곳에 시체 썩는 냄새로 코를 들 수 없었다. 왜적들은 영월산성 전투가 있기 전날 선발대가 원주 신림에서 군인과 백성을 닥치는 대로 살육하였다. 왜적들은 해질 무렵 원주 공청에 목책을 치고 고종원 형제를 가두고 밤에는 불을 피워 엄격히 감시하였다.

(6) 고종원, 고종길 형제의 탈출

원주목을 점령한 왜적들은 인근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매일 포목, 식량 등을 약탈하였다. 고종원 형제는 왜적의 진영에 붙잡혀 있는지 여러 날이 지났다. 탈출을 꾀해봤지만 왜적들이 밤낮없이 지키고 또 손바닥을 뚫고 밧줄을 꿰어 묶었으니 도망이 불가능하였다.

1592년 9월2일 아침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였다. 왜적의 진영에서 밥을 주었다. 고종원 형제는 아침과 저녁밥을 몰래 싸서 감추었다. 밤 아홉시가 넘자 빗소리와 함께 번개 천둥이 치면서 화롯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

이 밀려왔다. 수직하는 왜적들도 처마 밑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 고종원 형제는 이빨로 밧줄을 끊으니 옆에 있던 권 군수 부자도 풀어 달라 간청하기에 힘을 합쳐 풀어 주었다.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폈다. 인적을 살피니 성안은 고요하고 코고는 소리만 들렸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원주 공청을 빠져 나오니 목책이 처져있어 나갈 수 없었다. 고종원 형제는 힘을 합쳐 목책 기둥 두 개를 흔들며 뽑고 그 곳으로 빠져 나왔다.

고종원 형제는 무너진 남쪽 성벽을 넘어 5리쯤 되는 단구역에 도착하였다. 얼마 후 탈출한 것을 안 왜적들이 추격해 왔다. 비가 와서 발이 빠져 더 달릴 수가 없었다. 결국은 또 붙잡히게 되어 동생 종길은 왜적의 칼에 죽음을 당하였다.

고종원은 역촌의 빈집에 들어가 돛자리와 새끼를 얻어 동생의 시신을 염습하여 짊어진 후 큰길을 피해 가리과재의 산길로 접어들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머리에 쓴 것도 없고 맨발이었다. 쏟아지는 빗물에 눈을 뜰 수도 없고 발바닥은 터져 성한 곳이 없었다. 굶주림 때문에 한걸음도 옮길 수 없었다. 원주 가리과 뒷산에 동굴이 있어서 그곳에다 시체를 누어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몸에 걸친 것은 8월에 입었던 여름옷인데 빗물에 흠뻑 젖어 찬 기운이 돌았다. 어두운 밤 깊은 산중에서 당하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7) 동생 고종길을 장사지내다

아침 햇살이 밝아오고 비가 그쳤다.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살펴보니 먼발치에 흙을 파내고 포막을 덮은 자리가 있었다. 가까이 가 보니 장사를 지내기 위해 광증을 만들어 석회로 내광까지 되어 있었다. 시체를 짊어지고 영월까지 갈 수 없었다. 훗날 이장할 생각으로 시체를 광증에 안치하고 작은 돌을 그 위에 쌓아 표시를 하였다.

굴을 찾아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인 9월 5일 비가 그치자 출발 준비를 하였다. 그 날 저녁 삼둔촌에 도착하니 촌락은 모두 불타 버리고 시냇가에 세 채 정도의 초가집이 남아 있어 그곳에서 하루를 묵었다.

9월 6일 일찍 길을 재촉하였다. 정오경에 영월읍에 도착하였다. 봉서루를 바라보니 죽은 아우 생각에 가슴이 메어지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해질 무렵에 진별리 집에 도착하였다. 부친은 형제가 잡혀간 뒤로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있다. 소식을 접하고 형제가 사로 잡혔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으니 이게 운명인데 어찌하겠느냐 하셨다.

마침내 세상일에 뜻이 없고 다만 왜적을 평정하고 임금님이 한양으로 돌아오기를 밤낮으로 기도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고종원은 선릉참봉을 제수 받았지만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장부로서 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부인과 두 동생마저 비명횡사로 잃어버리자 벼슬에 뜻이 없었다. 그는 평생 동안 글을 읽고 시를 쓰며 영월의 자연과 함께 하였다.

고종원이 1621년(광해군13) 12월에 세상을 뜨자 태화산 동쪽 언덕인 김삿갓면 각동리에 묘역을 만들어 지금까지 후손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다.



IV. 맺는 말

고형산은 단종1년(1453년)에 태어나 중종23년(1528년) 75세까지 살며 성종, 연산군, 중종 때 여러 관직을 거쳐 6조판서와 우찬성, 대사헌, 대제학 등 여러 주요 관직을 역임했다. 초야에 묻혀 있던 사람으로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의 인간 됬됨이와 탁월한 능력이 동료, 대신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마침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왕의 깊은 신임을 받아 중용되었다.

지평현감을 시작으로 해주목사, 함경남북도절도사, 형조판서, 강원관찰사, 한성판윤, 호조판서, 공조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 우찬성, 예조판서, 대사헌, 대제학을 거치면서 특히 호조판서는 네 번, 병조판서는 두 번에 걸쳐 중임되었었다.

왕으로 부터의 깊은 신뢰는 그의 관직에서 직무 수행에 활력소가 되었으며, 특히 힘없는 백성을 위해 폐단을 제거하고 제도를 개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문신이면서도 병조판서를 역임 왜구 방비, 북방정책을 효율적으로 폈으며 호조판서로서 구휼과 조세정책을 백성의 입장에서 실행하였으며 그 외 주요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위민 정책을 펴 나갔다.

그의 행적은 연산군 일기와 중종실록의 고형산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왕에게 신뢰를 받기까지의 인간적인 삶과 치세, 백성을 위해 펼쳤던 여러 관직에서의 직무 수행을 통한 위민(爲民) 행정을 고찰하였다. 또한 지역에 전래되는 고형산 관련 설화와 대관령 옛길, 묘역 등에서 그의 흔적을 찾는데 노력하였다.

그 중 주목 받는 것은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서울과 강릉을 잇는 경강도로를 개통한 일이다. 한 두 사람이 겨우 빠져 나가던 대관령 길을 백성의 편의를 위하여 우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닦은 그의 업적이 훗날 화근이

되기도 하였다. 그의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직계의 절손과 몰락, 무관심은 그의 위업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장애가 되었다.

500 여 년 전 고흥산의 훌륭한 삶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 고향땅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발굴 무덤 속의 주인공의 업적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고흥산은 외아들 고절(대명)이 일찍 세상을 떠 대가 끊기게 되었다. 고흥산의 형 항산은 대후, 광후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인 대후를 아우인 고흥산의 계자로 삼게 하였다. 그러나 대후 역시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계부(繼父) 형산보다 일찍 세상을 떠다. 이렇게 되자 가문의 대소사는 항산의 2남 광후가 짊어지게 되었다.

광후는 어수선한 세대에 종극, 종립, 종원, 종경, 종길 5형제를 데리고 고향인 횡성을 떠나 원주, 제천을 거쳐 더 깊은 산골마을인 영월 김삿갓면 진별리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으나 임진왜란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다.

종원, 종경 형제는 영월에서 의병을 창 의하였으나 강원도 관찰사가 관군 500을 주며 원주 흥원진에 가서 왜적과 맞서 싸우라 하였으나 겁먹은 관군이 이탈 이를 추포해 가느라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해 억울하게 처형되고 말았다.

이후 고종원은 처와 막내 동생 종길과 동굴(고씨동굴)에 피해 있다 왜군이 입구에 불을 지피 형제는 사로잡히고 부인은 동굴 내 절벽에 떨어져 자결하고 말았다. 포로로 잡힌 형제는 우여곡절 끝에 탈출하다 잡혀 고판서(형산)의 계손이 된 동생 종길은 왜적에 살해되고 말았다. 종원은 동생 종경, 종결 시신을 뒤처리하며 포로로 잡혀 보고 느끼고 겪은 참혹상을 기천록이라는 일기로 기록 후세에 또렷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예조판서 겸 대제학인 홍언필이 찬한 고흥산 신도비문²¹⁾ 중에는 ‘공은

21) 유재준 외 2인 「조선의 명제상 고흥산」 518-519쪽

평생 재산 축적을 도모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는 것을 걱정 하였지만 공은 부를 쌓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성품이 비록 대주객(大酒客)이었지만 그 주실(酒失)하는 것을 볼 수 없었고, 친구 간에 상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조문을 갔고 그 친구나 지인 대하기를 한결 같이 성신(誠信)으로 하였으므로 살아서는 창생이 우러러 보는 바가 되었고, 죽어서는 온 조정이 슬퍼하였으니 고금에 찾아보아도 지극히 드문 일이다. 아! 공의 덕행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후예가 번성할 것인데도 대명(고절), 대후가 모두 공보다 먼저 갔으니 천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닌가.

명(銘)하노니 공과 같은 조리(操履)와 공과 같은 기국(器局) 도량(度量)은 세상의 스승이 될 만한데도 연치(年齒)가 모(耄)에 이르지 못하고 후사가 이어지지 못하였으니 하늘의 이치를 알 수가 없도다' 하였다.

영월 고씨 동굴은 고흥산의 형 향산의 차남 광후 아들들이 피난했던 곳으로 5남 종길을 형산의 후사로 삼게 하였으나 이마저 왜적의 칼에 살해되고 말았다. 광후는 삼촌인 고흥산의 신도비문을 홍언필에게 부탁하였고 이를 이루지 못하고 자리에 눕자 아들(종원)에게 마무리를 부탁한 유언이 고헌후의 묘갈문에 기록되어 있어 고씨동굴은 고흥산 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황성 정암리 망백마을 동산에 묻혀있는 조선 중기 명재상 고흥산의 가계, 고씨동굴과의 연관성, 왕의 절대적인 신임으로 위민행정을 펼친 그의 행적을 살펴 향토사의 한 부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1. 이인재, 『횡성금석문대관』, 횡성문화원, 도서출판 해안, 2004년 7월 31일
2. 횡성군, 『횡성군지』, 강원도민일보사, 2001년 12월 20일
3. 강대덕, 『조선시대사료를 통해 본 횡성』, 횡성문화원, 도서출판 목민, 2001년 3월 30일
4. 횡성군, 『화성의 옛터』, 강원일보사, 1996년 12월 23일
5. 이영식, 『횡성의 지명 유래』, 횡성문화원, 도서출판 목민, 2001년 4월 25일
6. 이원필, 『횡성의 문화유산』, 횡성문화원, 누리기획, 1997년 12월 20일
7. 한국문화원연합회강원도지회, 『제18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 논문집』, 2008년 10월 23일
8. 횡성문화원장, 『역사에 빛나는 횡성의 인물』, 횡성문화원, 서원인쇄사, 1996
9. 유재춘, 이흥권, 한성주 『조선의 명재상 횡성인 고흥산』, 횡성문화원, 강원일보사, 2018
10. 엄홍용, 『영월 항일독립운동사』, 영월문화원, 2018



2020 향토사료발굴 자료조사를 다녀와서



황성문화원 부원장
윤병철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혼란에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응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형 방역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안심할 수준의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키면서 지난 5월 22일 향토사료발굴 자료조사를 다녀왔다. 황성문화원에서 매년 추진해 온 향토사료발굴 자료조사를 금년에는 둔내면 태기산 일원으로 정



했다. 이번 조사에는 문화원 임원 22명과 직원 4명 그리고 사료관련자 1명 등 27명이 함께했다. 먼저 오전 11시에 문화원에 집결해서 금번 조사에 대한 취지와 대상지에 대한 설명을 박순업 문화원장으로부터 들었다.



둔내 태기산에는 많은 향토사료가 존재한다고 한다. 산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의 공격에 대비하여 진한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이 성을 쌓았고 마지막 격전지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설화들이 태기산성, 갑천, 병지방 등의 지명들과 함께 현재까지 전래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해발 1,260m의 태기산 꼭대기에는 우리나라 절대빈곤의 시대를 상징하는 화전민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고 한다. 130여명의 화전민 자녀들이 공부했던 태기분교의 흔적은 어렵고 힘들었던 역경 속에서도 가난과 못 배운 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자녀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화전민들의 갈망과 집념의 역사가 알알이 새겨져 있다. 보릿고개, 초근목피, 구황작물이라는 단어가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보리개떡, 감자범벅, 수제비와 같이 살기위해 눈물겹게 먹었던 음식문화에서 당시 열악했던 화전민들의 생활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1960년대 초 생산증대라는 명목의 정부정책에 의해 태기산에 정착하게 된 화전민은 한때 74가구 377명에 달해서 태기리(泰岐里)라는 화전민촌이 형성되었고,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서 하늘아래 첫 학교라 불리었던 태기분교(泰岐分校)도 생겨났다. 60년대 말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화전정리법’이 공표되면서 화전정리 정책으로 비록 개교 8년 만에 태기분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태기분교는 당시 태기산 화전민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구세주 같은 존재였었다고 한다.

이러한 태기분교는 인간 상록수라 불리고 있는 이명순 선생의 살신성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학교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 인간 상록수 이명순 선생님 》

육민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촌봉사활동을 하던 중 언론을 통해 태기산 화전민들의 딱한 실정과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 실태를 접하고,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태기산 화전민촌에서 1965. 10. 1일부터 자원봉사 교육자로서 열성을 쏟아 부었고, 당시 도지사와 원조단체의 힘을 빌어 정규학교인 태기분교를 1966. 3. 15일 3학급 72명의 학생으로 개교시키고, 준교사 자격으로 근무하면서 화전폐지정책에 밀려 개교 8년 후에 폐교 될 때까지 역사를 함께한 증인으로 당시 언론에서 상록수 선생님이라 칭하기도 했다.

이번 사료조사가 더욱 뜻깊고 의미 있었던 것은 역사의 산증인인 인간 상록수 이명순 선생이 초대되어 현장답사를 함께 한 것이다. 이명순 선생이 직접 태기분교를 안내하고, 당시의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함께한 것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왔던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점심식사 후 본격적인 현장답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답사지는 ‘경찰전적비’ 였다.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호국영령에게 참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선열들의 희생정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음으로 이명순 선생의 안내와 함께 ‘태기분교터’ 를 답사하였다. 100평 남짓 직사각형에 교실 4개짜리 콘크리트 건물 잔해가 남겨져 있고, 옆에는 당시 학교의 애뜻한 사연과 화전민들의 애절한 스토리가 전시된 ‘태기분교 기념관’ 이 자리해 있다.

선생이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하신 중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해 본다. 당시 화전민촌에서는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쌀밥구경을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선생이 원주 친가에서 가져 온 쌀을 한꺼번에 밥을 지어 학생들에게 주었더니 좋아서 날뛰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선생은 이후 한동안 감자와 밀가루 음식으로 끼니를 대신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의 제자들이 이젠 65~70세의 노인세대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매년 6월 1일이면 자손들과 함께 동창회를 하면서 선생도 초대하고 있다는 말씀에서 가슴 뭉클한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태기분교를 뒤로하고 계단식으로 조성되었던 화전민터를 둘러보며 1,260m 고지 ‘태기산 전망대’에 도착했다. 전망대에서는 ‘태기산 풍력단지’가 한 눈에 들어왔다. 2008년도에 풍력발전기 20기와 발전소 1동이 신축되었고, 거대한 발전기는 높이 80m, 날개너비 40m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연간 전기생산량이 98.30M/W로 약 25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되고, 연간 6만톤의 탄소배출량 감축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함께 기념사진 촬영도 하고, 산림청에서 잘 조성해 놓은 생태탐방로와 야생화 군락지도 돌아봤다. 테크로 잘 만들어 놓은 산책코스 양 옆으로 각종 희귀 야생화가 가득했다. 고도가 높은 탓에 산 아래지역엔 이미 저버린 산철쭉이 한창이었고, 각종 동물 조형물도 조화롭게 배치되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으며, 짙은 녹음이 잣나무, 낙엽송과 어우러져 푸르름이 가득했다.





짧은 사료발굴조사를 마치고 문화원으로 돌아왔다.

금번 태기산 답사를 통해 잊고 있었던 과거를 돌이켜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화전민터와 태기분교의 모습이었지만, 어려운 시절 모진 시련을 겪고 어렵게 공부하며 번영을 이룩해 온 기성세대의 모습들을 풍요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의문을 가져본다.

정부의 시행착오적인 정책으로 생겨난 화전민과 같은 선대의 삶의 흔적을 통해 현재의 소중한 자원과 풍요로운 생활환경에 감사함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과 배움의 중요성을 전파하려 한 선각자의 굳은 의지와 열정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뜻깊고 의미 있는 향토사료발굴 자료조사를 다녀왔다.

횡성군 둔내면의 융성한 문화의 힘

<100년을 이끌어 온 힘, 100년을 추진할 힘>



이연숙

황금찬 시인요?

설마... 강원도 산골에?

이제 막 마을사진 기록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나에게 지인이 알려준 소식은 화들짝 놀라기에 충분했다. 학창시절 국어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분, 황금찬 시인이 강원도 고원지대인 이곳, 둔내면에서 둘째 아드님 댁에 머무르시면서 여생(1918~2017)을 마치셨다는 것과 그 후 그분의 시비가 이곳 ktx 둔내역 앞뜰에 건립(2018.11.24.)되었다는 것, 그 두 가지였다.



2018.11.24. 시비 제막식



시인 추모 2주기 기념 시낭송회

황금찬 시인께서 우리 마을에 머무르시며 여생을 보내신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지만, 우리 마을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마을사진 기록가인 나에게서는 매우 큰 기사(奇事, 기적과 같은 일)였다.

음~. 세계적인 팝스타가 하룻밤 머물렀다는 것만으로도 그 곳은 명소가



I 향토사의 숨결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하물며 문학계의 큰 어른이시지 않은가... 이는 마을에서도 매우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면단위 마을에 이 일이 생긴 것만으로도 매우 큰 영광이라며 오직 마음으로만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일이 과거 80년 전 일제강점기에서 우리 선조들의 일과 연관이 있을 줄이야!!!

황금찬 시비가 세워진 것을 안 때는 내가 마을사진 기록가로 활동한지 약 6개월쯤 되었던 터라, 마을에 대해서는 많이 몰랐다. 아니 거의 몰랐었다. 그렇긴 하지만,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가야겠다는 열정은 많았었던 듯하다. 주로 둔내면과 횡성군에서의 행사나 마을 소식이 있는 곳이라면 달려가 사진촬영 후 포스팅을 해서 SNS에 올리며 매일 소식을 함께 나뉘왔었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주민들과의 인터뷰.

맞다.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며 둔내면에 묻혀있었던 바로 그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

주민과 인터뷰를 한 그날, 내가 사는 화동리의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뵙고 나오면서 보게 된 입구에서 있던 커다란 바위는 눈길을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었다. 워낙 덩치도 큰데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흔적이 보이기도 했고, 더구나 한자가 그득 쓰여 있는 모습은 과거를 알려주는 훌륭한 단서가 될 것처럼 여겨졌다. 인터뷰를 마친 주민께 여쭙니, 잘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마을 이장님을 하시며 왕성하게 활동하신 어르신(김규성님)을 소개해주었다. 김어르신은 제가 궁금해 하는 것에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듯 밝게 웃으시면서 둔내면지를 꺼내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둔내 지방이 비록 산간 벽지로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한 한적한 산촌에 불과하였으나, 안삽교를 비롯하여 많은 지식인들이 기거하였고 일제강점기 정책 하에서 우리의 전통 교육을 말살하고 신식교육을 강요하던 1930년대에 둔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지식인들이 모여 전통 학문의 하나인 시문(詩文)을 공부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사회가 있었다.

(둔내면지 1998년 327쪽 제공)

와우~ 너무 놀라웠다. 내가 있는 고장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야말로 식민지화로 인해 상실된 자기존재감의 부정과 무너진 자부심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 시문으로 하신 일들 중 하나가 바로 ‘둔내11경景’ 이라고 하니 더욱 관심이 짙어졌다.

1937년 둔내면 영호리 주병황 선생, 둔방내리 강홍길 선생, 현천리 김복래 선생 등이 주축이 되어 둔내면 11개리의 지명과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11개리의 특색 있는 것을 하나씩 골라 둔내명승지 11개를 선정하고 둔내11경이라고 하였고, 시회를 열어 명승지에 대한 시를 지었다. 면단위 지역에서 마을마다 빼어난 명승지를 정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니와 여기에 대한 한문시를 남겼으니 둔내면이 문인의 고장이라고 자랑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둔내면지 1998년 328쪽 제공)

이 사실을 알고, 화동리부터 돌아다니며 시비를 촬영, 모아봤다.(시로 노래를 했을 당시의 풍경은 사라져 시비만 사진으로 남겨서 많이 아쉽다.)

각 11개리(그 당시 행정구역)의 시비를 하나씩 살펴보자.

(다음 내용은 둔내면지 2020의 415~426쪽 제공, 사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본인이 촬영)

석문리의 화연춘우~ 석문리 앞 강가에는 아름다운 꽃벼루가 있는데 봄이면 그 경치가 가히 절경이었다. 이 절경을 두고 시인은 화연춘우 化硯春雨 멋진 시를 남겼다.





화연춘우 花硯春雨

가랑비 내리는 봄날의 경치는 더욱 아름다운데
꽃벼루에는 한 쌍의 새 지저귀는구나

복숭아꽃 활짝 핀 마을에는 향기 가득하고
버들잎 핀 시냇가 푸르름 들뜬에 가득

동리 어귀 안개 가득 해 멀고 가까움 모르겠고
저마 끝 물 떨어지니 높고 낮은 알겠더라

구름 걷히고 달은 청명하데
당 위의 제비는 오락가락 하는구나

(둔내면 석문리 소재)

둔내 서쪽으로는 흐르는 주천강, 지금은 수량이 그리 많지 않으나 옛날에는 작은 상선이 드나들 정도로 수량이 많았던 듯하다. 그래서 시인들은 그 당시 드나드는 배를 시제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자포상선 自浦商船

자포리에 고기가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나라, 초나라 장사배가 밤낮으로 상주하네

원근의 거리때문에 자주 왕래하지 못하니
쉽게 매매를 말하나 친소가 있구나

주민의 생활이 모두 부유하니
행여의 경윤도 누만의 여유가 있구나

비록 아름다우나 어찌 능히 마음을 믿으랴
시비하고 쟁리함이 낮과 밤이 갈더라

(둔내면 자포곡리 소재)

새 중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새, 학.

그 학이 소나무 아래에서 졸고 있다는 곳에 비유해 송정수학 松停睡鶴이라는 멋진 한시를 남겼다.



송정수학 松停睡鶴

사시에 푸른솔은 온갖 풍진 이겨내고
학과 더불어 살아온 온갖 풍진 이겨내고

그림자는 멀리 비쳐 날개펴고 나는듯 하고
소리는 하늘에 들려 은혜로움이 내려지네

푸른 빛을 홀로 띠어 만물중에 으뜸이요
한가로이 꿈속에서 구름타고 노는듯 하네

졸음을 이기지 못하니 깨닫기도 어려운데
세상일을 알 수 없으니 재촉한들 무엇하랴

(둔내면 마암리 소재)

3

둔방내리 안창말 뒤 언덕의 석양 풍광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를 두고 시인들은 우곡낙조 牛谷落照라 명하고 아래와 같은 멋진 시를 후세에 남겼다.



우곡낙조 牛谷落照

양곡 (해뜨는곳) 에서 어찌 해지는 연려를 논하랴
부상은 차고 느릅나무는 기울어 각각 방위를 나누었네

맺부리에 비스드림 비친 그림자는 높고 낮으며
물에 비친 가는 빛은 있다가 바로 없어지네

돌아가는 배에서 부는 피리 소리는 서로 친구를 부르고
걸음을 빨리 하는 행인은 급히 호수를 건너네

산사와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느니
쇠잔한 등불 곳곳에 나그네의 창문이 고독하네

(둔내면 둔방내리 소재)

4



예전 이곳 주천강에는 유독 물고기가 많았다. 주민들은 틈만 나면 밤에 횃불을 들고 밤고기를 땄다. 시인들은 이 시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멋진 시를 후세에 남겼다.



이호어화 梨湖漁火

이호의 물이 흘러 강물이 되었으니
고기잡는 불빛 복창에 가득하네

그물 던지는 강가에는 물고기 퍼덕이고
놀라 줄렁이는 물결위에는 백로 쌍쌍이 난다.

별빛 같은 불빛 돛대에 달고
한 자는 실히 되는 은빛고기 술독과 바꾸었네

낚시 끝내고 돌아가는 길
청아한 흥에 겨워 맑은 노래 부르네

(둔내면 조항리 소재)

현천리 덕고산은 현천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이곳에서는 늘 맑은 바람이 불어 덕고청풍 德高淸風이라 불렀으며 시인들은 이것을 시제로 다음과 같은 시를 후세에 남겼다.



덕고청풍 德高淸風

청량한 바람은 여름도 아니요 겨울도 아닌 가을 연상케 하고
신선한 것 가장 좋아하는 나를 밤낮으로 따라오네

승지인 곳이 분명하니 신선 노는 곳이요
바람소리 소슬한 소나무 학이 사는 곳이다.

천 여개 나열된 산봉우리에는 구름이 일고
만 여개 연결된 골짜기 안개는 산 얼굴 가리었네

명승지 경관 아름답지 않은 곳 없으니
시인의 발길과 지팡이 수없이 멈추게 하네

(둔내면 현천리 소재)

영랑리는 둔내 가장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을 흐르는 주천강에 달이 뜨면 그 풍광이 가히 절경이었다. 이를 시제로 시를 지었으니 칠언절구 영호명월 永湖明月이다.



영호명월 永湖明月

물은 주천강에 가득하고 달은 동쪽에 가득하니
맑게 흐름과 밝게 비치음이 둘이 서로 통하는구나

함께 요조장을 노래하는 이는 청춘객이요
홀로 은린을 낚는 이는 백수옹이더라

강언덕에 물결이 부딪치니 연류가 푸르고
하늘에 맑은 그림자가 비치니 계수나무꽃이 붉더라

명구에 뛰어난 경치는 참으로 어느 곳에 있는고
백가지 모양이 함께 어우러진 이 가운데 있더라

(둔내면 영랑리 소재)

태기산에는 항상 흰 구름이 떠 있어 시인묵객들이 기산백운이라 부르며 그 아름다운 풍광을 아래와 같은 한시를 남겼다.



2019년 7월 촬영



I 향토사의 숨결



기산백운 岐山白雲

태기산 흰구름은 태고적 같고
하늘을 감추고 땅이 신비로우니
경치가 더욱 새롭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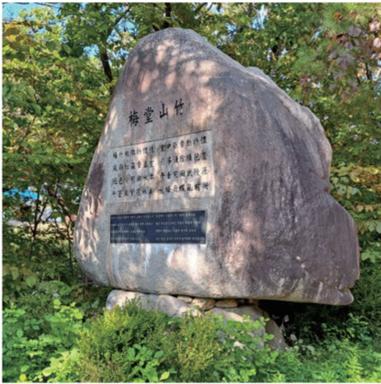
보리가 풍년드니 때는 여름이요
동자가 목욕하니
시기는 모춘이구나

이름이 사방에 진동하니 별계라 칭하고
공은 삼국보다 나으니 풍진을 겪었더라

바위에서 나서 무심히 배회하는 곳
산중에 선경이 있으니 몇 사람이나 올랐는가

(둔내면 화동리 소재)

삼교리는 고산지대라 산죽이 많아 시인들이 매당산죽 梅堂山竹이란 시제로 다음과 같은 한시를 남겼다.



매당산죽 梅堂山竹

매죽이 서로 이웃하여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졌으니
당중에서 구경하는 자 사회가 동하더라

바람에 붉은 떨기가 비치니 향기가 집에 가득하고
달은 청음을 인도하고 푸름은 벼랑을 안았네

아름진 빛이 분명하니 소상강 언덕이요
단청이 완연하니 무릉의 물가와 같구나

천창만자한 꽃 수풀 아름다우니
나는 벌과 춤추는 나비가 앞거리에 어지럽더라

(둔내면 삼교리 소재)

우용리 문단 마을에는 백구들이 많이 날아와 장관을 이루었기에 시인들이 이를 시제로 다음과 같은 한시를 후세에 남겼다.



문탄백구 文灘白鷗

서리같은 몸과 눈같은 깃에 높은 뜻 가지고
오랜 세월 문탄 마을 떠 있으니 물노니 얼마나 되었던고

다만 아침저녁 바람 흠이지만
물고기도 가면 다시 오는것 더딘들 무슨 상관 있으리오

아까 보니 천파지경에 분주하더니
문득 한 뫄대가지에서 주저함 보겠네

세상 흥진에 결국 물들지 않으니
맑고 한가한 멋 능히 누가 알리오

(둔내면 우용리 소재)

두원리 미악골 단풍은 아름답기로 유명하여 시인들이 미악단풍이라는 시
제로 한시를 남겼다.



미악단풍 美岳丹楓

미악의 경치 아름답지 못하다 누가 말했는가
단풍숲에 말 매고 앉아 돌아감 잊었노라

비단 같지만 입지 못한다 하니 사람들 믿지 못하고
꽃 같지만 향기 없으니 나비 날지 않더라

한 산에 봄빛 푸르름 처음으로 파리해 보이고
만 가지 나무 가을소리는 붉은 것이 도리아 살 찢더라

참된 형상 분명 해 모두 그림 채색 같으니
마을자리 활활 해 난간에 의지 하네

(둔내면 두원리 소재)

12

이처럼 면단위 지역에서 마을마다 빼어난 명승지를 정하고 이를 시로 남
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며 전국 면단위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랑스럽고 또한 이때 지
어진 시들은 문학적으로 名文으로 문학적인 가치도 매우 높다.

(이상은 둔내면지 2020 414~426쪽 내용 제공, 사진은 본인이 촬영)



이렇게 우수한 둔내 11경 시비와 황금찬 시비가 연결되어 생각되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었을까? 황금찬 시비를 제안하고 추진하신 분께 여쭙니, 둔내 11경이 있었는지 모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이것 기운이라고 부른다. 일제강점기에도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둘러 흐르는 선조들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기운은 어느 덧 현대에 까지 미쳐(우연처럼 보인) 황금찬 시비(2018년)에 잠시 머무르신듯하더니 이제, 현대시인 100선 중 25선을 황금찬 시비 근처에 세워갈 예정이라는 계획도 달성하게 하신 듯싶다.(2020. 11월 말 완성) 둔내면의 안정과 발전을 생각해 볼 때, 학문과 자연을 사랑하는 선조들의 기품 있는 생활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 100년(조금 못미치긴 하지만)이 지나서도 후손들인 우리들이 그 덕을 누리고 있는 듯하다.



황금찬 시비

길 따라 둔내공원이 형성되며 이곳에 현대 시인들의 작품(25선)이 시비로 제작될 예정

시를 읽으면
품성이 맑게 되고
언어가 세련되며
물정에 통달하니
수양과 사교 및 정치 생활에
도움이 된다.

- 공자 -

문화 :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온 물질적 · 정신적 과정의 산물
(네이버 검색 제공)

폭넓은 의미로의 문화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만을 담아낸 산물이라고 한다면, 이는 원시적 의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삶을 통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인간의 사고와 표현(시와 문학과 예술)이 더 역사적으로 깊은 이해를 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하며 나아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문화’는 미래에도 나와 우리를 지속, 찬란하게 이어 갈 것이라 생각한다.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한다. 100년 단위로 역사마다 중요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커다란 포인트 위에 서있는 듯하다. 초기 사회적 혼란을 넘어선 듯하더니, 삶에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왕좌왕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100년, 우리들은 후대에 ‘어떤 문화’를 남길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하며 ‘코로나 시대’ 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황금찬 시인은 ‘꽃 한송이’ 를 살며시 내밀어 주시며 용기를 북돋워주시는 듯하다. 그 꽃 한송이를 마음에 품고 어떤 미래를 창조해야 할지 조용히 그려보아겠다.

여전히 희망이다!!!

꽃 한 송이 드리리다.

꽃 한 송이 드리리다.
복된 당신의 가정
평화의 축복이 내리는
밝은 마음 그 자리 위에
눈이 내려 쌓이듯 그렇게

꽃 한 송이 드리리다.
지금까지 누구도
피워본 일이 없고
또한 가져 본 일도 없는
맑은 향기 색깔 고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밀고
계절이 놓고 가는 선물처럼



있이 살고
즐기가 살아나며
죽어가는 뿌리,
그리고 기후도 살게 하는

신기한 꽃
그 한 송이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여.

어린 행복 위에
성장한 정신위에
가남한 금고 안에
땀 흘리는 운영 위에
꽃이여, 피어나라.



I
향
토
사
의
숨
결

임술년
새날 아침부터
이 해가 다하는 끝날까지
피기만 하고
언제나 지는 날이 없는 꽃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 또한 높아
하늘의 천사 등도 부러워하는
그 꽃 한 송이를
축원의 선물로 드리됩니다.

- 후백 황금찬 시인 -

역사 속에 비춰진 횡성의 고귀한 흔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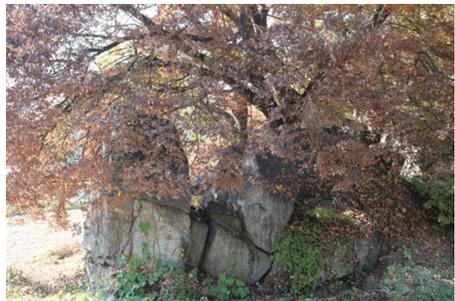


김동정

2019년 11월 8일 더 없이 맑고 높은 하늘과 단풍과 맑은 물 그리고 함께 유적을 탐방하는 정겨운 마음들이 하나 되어 역사 속에 비춰진 유적들을 대하니 감개가 무량하다. 박순업 문화원장, 민준식 문화원사무국장과 함께 선바위-한강대-이승만대통령 별장터-구일현감 관개이민물세불망비-향교-용암 등을 답사했다. 2020년 9월 22일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 두 분과 선바위-이승만대통령 별장터를 다시 한 번 답사를 하였다.

문화원장과 국장 함께 답사할 내용을 확정하고 셋이서 답사를 떠났다.

제일 먼저 들른 곳이 선바위였다. 한 눈에 보아도 선바위 같이 보였다. 『횡성현읍지』(18세기 후반)에는 “입석(立石) ; 현(縣)의 남쪽 6리에 있으며, 대석(大石)이 세 겹이고 높이가 8·9장(丈, 1장-3.03m)이 된다. 옛날에 부자 고세린(高世麟)이 그 아래에 살았다” 고 한다.



남쪽에서 본 선바위 모습(좌) 과 북쪽에서 본 모습(우)



I
향토사의 숨결

다음으로 들른 곳이 한강대(寒岡台)였다. 한강대를 향하여 가는 중 산은 온갖 붉고 노란 형형색색을 띠고 있었고 눈에는 가을걷이가 끝나 벼동치들이 이곳저곳에 덩굴고 있었다. 한강대에 도착하자 은빛 갈대가 춤을 추며 반기는 듯 했고 너럭바위와 맑은 물, 갈대와 온갖 풀들이 곱게 차려입고 우리 일행에게 맞이하였다.

『강원도지』에는 정구(鄭逵, 1543~1620)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한강대 모습

호는 한강(寒岡)이고 곤수(崑壽)의 동생이다. 선조 계유년(1573)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예빈참봉(禮賓參奉)에 제수되었다. 지평(持平) 승지(承旨)와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고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문집이 있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목(文穆)이고 서원에 배향되었다. 반구(槃丘)에 살았다. 이공량

(李公亮)이 서울로부터 와서 유동(柳洞)에 우거하면서 집을 짓고 편액을 ‘안분(安分)’으로 달고 여년을 마쳤다.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라고 하여 한강 정구는 강원도관찰사를 지내면서 강원도와 인연을 맺었다.

『횡성현읍지』에서는 한강대(寒岡台)를 “현(縣)의 서남쪽 7리에 있다. 청룡수류암(靑龍水流岩) 위에는 한강(寒岡) 정선생(鄭先生)이 우거(寓居)하면서 그곳에서 놀며 감상하였다. “라고 하였다. 청룡수류암 위에 한강 선생이 우거했다고 한다. 『횡성현읍지』에는 수류암(水流岩)을 “현(縣)의 서남쪽 7리에 있으며, 청룡(靑龍) 땅이다. 서천 하류의 한강대(寒岡台)는 아래가 물줄기에 임하여 있고 울퉁불퉁하지만 수심이 얕을 수 있다. 또 한 물속에는 흰 돌이 들쭉날쭉하고 곳에 따라 얕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한강대의 수류암 모습

이어서 반구대를 향하였다. 흐르는 냇물을 따라 동쪽으로 2km 남짓 가니 길가에 『횡성면장오공규환기념비(橫城面長吳公圭煥紀念碑)』가 세워져 있었다. 뒷면을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跋涉大川을架橋建陸하여通學兒童과里民産業開發上多蒙惠澤하니是誰之功
가橫城面長吳圭煥氏의錦密한○動과不斷한勞力으로本郡守와千百七工兵團
에謀忠하여對民支援事業으로本校를架設하여一般交通上貢獻이多大함으로南
村四個里民이齊聲認德하여本紀念碑建立함

西紀一九六九年六月 日





횡성면장오공규환기념비

당시 다리가 없어 불편하게 되자, 오규환 면장이 횡성군과 1107공병단에 요청하여 목교를 건립하였으므로 통학하는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교통 및 산업개발상의 도움을 주었기에 4개리 주민의 정성을 모아 기념비를 건립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 기념비 반대편에는 한 안내판이 서 있었다. 가서 보았더니, 『위험구역설정 안내판』 이었다. 그런데 소재지가 횡성군 목계리 출렁다리라고 되어있다. 즉 과거에 이곳에 반대편으로 건너기 위한 출렁다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곳 도로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위에 반구대가 서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길을 따라 올라가보니, 폐가가 한 채이었고 왼쪽으로 올라가니, 문화원장님이 ‘이곳이 반구대터’ 라고 하셨다. 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 맑은 검푸른 냇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앞에 도

로가 나지 않고 자연그대로의 모습이라면 더 운치있고 아름다웠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횡성현읍지』에는 반구정(伴鷗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현(縣)의 서남쪽 10리에 있고 청룡수(靑龍水)가 바위를 휘감고 아래로 흐르므로 한림(翰林) 이당(李塘)이 세웠다. 층암(層岩)은 물에 닿았고 물은 푸르고 모래는 반짝인다. 앞에 갈풍역 봉만(葛豐驛峰巒)의 경치(景致)를 대하니 매우 좋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소나무 그늘이 수 무(畝) 있었다.

『강원도지』에는 반구정(伴鷗亭)을 “횡성면 반곡리에 있다. 한림 이당이 건립하였다. 층진 바위가 물을 차단하고 있는데, 물은 푸르고 모래는 맑아 경치가 제법 뛰어나다. 중간에 허물어져 자손들이 중건하였다.” 고 하였다.



반구정 터(도로 기암 위 전봇대 부근, 반구정 터에서 본 냇물)

이곳에서 맑고 푸른 냇물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 별장터를 향하였다. 목계리 성남교회 입구에 들어서자 『이승만 대통령 별장지』 안내석이 있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I
향
토
사
의
숨
결

이승만대통령 별장지

소재지 : 황성군 황성읍 목계리 산5-6

“목계리 성남교회 뒤편 있었던 대통령 별장은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국정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안식처였다. 그 후 이 건물은 4·19와 5·16을 거치면서 헐려 없어지고 터만 남아있다.

목계리 대통령별장은 1955년 10월 1군사

령관 백선엽장군이 건립 황성군지(2001.12.20.) 황성문화원” 라고 적혀 있었다.

입구에서 교회 쪽을 보자 좌측에는 성남교회 본건물이 보이고 중앙에는 창고와 사택이 있었다. 사택 뒷산으로 올라가니 옛 건물이 한 채 보였다. 접근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칙닝쿨에 뒤덮혀 어떤 건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이승만대통령 별장안 안내석



이승만 별장터(성남교회 옆 붉은 지붕 주택 뒷산, 칙닝쿨에 뒤덮힌 별당건물)

별장터 우측으로 내려가 보았더니, 화장실로 보이는 건물터와 경비실로 보이는 경비실 터가 있었다. 문화원장님 말씀으로는 이곳에는 헌병이 늘 상주하고 있었다고 하셨다. 85세 되신 마을 주민 한 분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오시는 날에 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나가 보지도 못

하였는데, 당시 대통령이 오셔서 어찌 이곳은 한 사람도 살지 않냐고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주었다고 한다. 잠시 후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주민들을 만나 보기를 원하시니 별장으로 오시라” 고 하여 가서 대통령도 뵙고 사진도 같이 찍었다고 하였다.



경비실로 추정되는 터 모습

다음으로 향할 곳이 구일 황성현감의 『관개이민물세불망비』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도착한 곳은 황성읍 마산리 675번지 들판이었다. 황성에서의 마산은 진산이다. 진산 맞은 편 남쪽에는 남산이 있는데, 이 남산은 현재 덕고산이라 한다. 들판은 옛 고향 향취를 그대로 간직한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갖게 하였다. 아마도 따스한 늦가을 햇살과 사방의 단풍이 조화를 이루어 훈훈한 정감을 자아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마산(馬山)에 관해서는 『황성현읍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현(縣)의 동북쪽 10리(『승람』에 보임) 현내(縣內) 땅에 있다. 현의 진산(鎭山)이고 후곡(後谷)에는 좌수현(坐睡峴)이 있다. 산천(山川)의 기운은 이곳에서려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전해지길 ‘승지(勝地)라 이른다.

라고 하였으며, 『관동지』에는 “현의 동쪽 2리에 있으며, 정금산(鼎金



山)에서 서남쪽으로 30리를 와서 읍(邑)의 주산(主山)이 되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맞서 남쪽에는 남산(南山)이 있어 『횡성현읍지』에는 “현(縣)의 남쪽 6리(『승람』에 보임) 청룡(靑龍) 땅에 있다.” 고 하였고 『관동지』에는 “현의 남쪽 6리에 있으며, 원주(原州) 치악산(雉岳山)에서 북쪽으로 50리를 와서 관아터[邑基]의 안산(案山)이 되었으며 법흥사(法興寺)가 있다.” 라고 하였다.



마산(위)과 남산(현재 덕고산) 전경

들판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큰 너럭바위 위에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손짓이라도 하듯 정겹게 맞이해 주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발길이 없었는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온갖 잡초와 가시넝쿨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안내문이 있는 곳으로 접근은 했지만 안내문도 20년 가까이 비바람을

맞아 글씨조차 희미하였다. 더욱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개이민물세불망비(灌溉利民沒世不忘碑)

이 비석은 조선왕조 효종 9년(1658년) 구일(具鎰) 횡성현감이 부임하여 당시 황무지이던 횡성 앞들을 민관합동으로 개간(1658)에 착수, 이듬해 옥답으로 만들어준 공덕을 기리는 것이다. 당시 횡성 앞들은 황무지여서 이를 개간하면 양식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착수하지 못했다. 구일(具鎰) 현감이 횡성보를 축조하고 농토로 개간, 숙원사업을 해결하니 주민들이 두고두고 칭송하였다. 그 후 1678년 정수업 등이 불망비를 세우고 당대의 문장가이며 좌의정을 지낸 이만하에게 비문을 받았다.



비석은 당초 횡성면 교항리에 세웠는데, 1969년 경지정리 사업 시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구일(具鎰) 현감의 공로는 횡성군의 자랑이요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만한 일이므로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2001년 6월 14일 횡성군수

구일 횡성현감이 관개수로를 개척한지도 360여 년이 지났고 비석이 세워진지도 340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교항리에 세웠다가 1969년에 이곳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횡성현감 구일의 『관개이민물세불망비』 모습(좌측의 것)



『횡성현읍지』 「금사리보(金寺里洑)」 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현(縣) 동쪽 7리 전천(前川)의 상류는 효종 10년(1659) 현감 구일(具鎰)이 뚫어서 물을 대었으니, 읍저(邑底)의 전지(田地) 2백 890석락(石落)이었다. 읍(邑)의 사람들이 비를 세우고 상국(相國) 이단하(李端夏)가 지은 글이 있다.

“내가 횡성에 있는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상을 당해 사임하자 구일(具鎰) 현감이 대신했다. 내가 시전(視篆)¹⁾ 할 때에 수리(水利)를 크게 일으키고 관개(灌溉)를 끝여 들었으니 읍저(邑底)의 민전(民田)이 약 수백천 무(畝)였다. 백성들이 지금에 이르러 그 공로를 노래하고 외우니 장차 큰 비를 세워 후세에 전하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하루는 읍내에 살고 있는 유생 정수업(鄭洙業)군이 와서 비명을 새겨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는 이미 시관(尸官)²⁾ 이고 지극히 작은 혜택도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돌아보건대 일찍이 이 역(役)에 뜻은 있었으나 역시 여기에 대한 겨를이 없었다. 재주와 능력, 재간과 민첩에 의뢰하여 단번에 큰 공적을 이루어 내니, 내가 읍민의 경사스러운 일로 여기는 것이 마치 내가 한 일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다. 하물며 후(侯)가 나에게서 중표형(重表兄, 어머니의 형제·자매의 형)이 되고 내가 그 일을 즐거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서문을 쓰고 글도 새긴다. 후(侯, 구일 현감)는 능성인(綾城人)이고 자(字)는 중경(重卿)이다. 임오년(1642)에 진사급제 하였고 무술년(1658) 4월 13일 부임하였으며, 신축년(1661) 9월 초 4일에 체직되어 돌아가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한성우윤(漢城右尹)이 되었다. 후(侯, 구일 현감)는 현에 있으면서 관청을 잘 정비하여 볼 때마다 매번 새로워졌으니, 이 또한 선정(善政)의

1) 일을 보고 도장을 찍는다는 뜻으로, 벼슬아치가 사무를 봄을 이르는 말이다. 시인(視印)이라고도 한다.

2) 무능하여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녹을 받는 관리를 말한다.

일단이고 백성들이 칭송하는 바이다. 특히 그 중요한 것을 게시하여 말한다. 명(銘)에 이르기를, “전지(田地) 1만 무(畝)를 관개했으니 은택이 천추(千秋)에 흐르네. 백성들의 사모함과 시소(尸素)³⁾의 부끄러움이여! 물이 아래위로 조금씩 뚫어서 길을 냄이 다 거론할 수 없다. 대개 물을 대니 기(畿)에는 수백 석락(石落)이었다고 한다.”

[金寺里湫在縣東七里前川上流 孝宗大王十年具侯鎰所鑿溉邑底田二百八九十石落邑人立碑有李相國端夏所撰文曰余在橫城未暮歲以喪去具侯鎰代余視篆大興水利引灌溉邑底民田若數百千畝民到于今



남쪽에서 북쪽으로 본 모습

謠誦其功不兼將樹穹碑以寓後世之思一日邑子鄭君洙業來請銘于余余既尸官無涓滴惠澤及民顧嘗有意於

斯役而亦未遑焉賴才力幹敏一舉而成丕績余爲邑民慶幸不啻若自吾身出況侯於余爲重表兄余故樂道其事而爲之序銘侯綾城人字重卿中壬午進士戊戌四月十三日莅任辛丑九月初四日遶歸登武科令爲漢城右尹侯在縣繕治廨宇觀瞻一新此又善政一端而民之所頌持揭其重云云銘曰灌田萬畝流澤千秋黎黔之思尸索水上下小小開鑿不可悉舉大都所溉畿數百石落云]

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향교를 향하였다. 『횡성현읍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3)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녹만 먹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옛날에 현(縣)의 북쪽 3리에 있었다(『승람』에 보임). 인조(仁祖) 26년(1648)에 이건(移建)하였고 현의 동남쪽 5리에 있었다. 세상에 전해지기를 “옛 향교 땅은 낮고 습하였고 야생사슴의 기이함이 있었던 까닭에 이 건했다” 고 말한다. 갑천(甲川) 포동리(浦洞里)는 옛 향교동(鄕校洞)에 있었다. 어떤 사람은 “옛 화전현(花田縣)에 세워졌다고 하나 여부를 알지 못한다” 고 했다.



황성향교 대성전을 향하는 신문과 공부자묘정비 모습

『강원도지』 [교원(校院)] 향교조에는 진사(進士) 이탁(李瑋)의 기문

옛날 선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기름에 교화를 크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 힘써 태학을 세워 가르쳤다. 나라에서는 상서(庠序)를 설립하여 교화하였고 읍(邑)에서는 시서예악(詩書禮樂)의 글로 백성을 가르치고 효제충신(孝悌忠信)의 도리로써 풍속을 교화하였다. 그런 즉 교화의 임무란 것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 주현(州縣)에 학교가 있는 것은 곧 나라에 학교가 있는 것이다. 건물을 건립하고 제기(祭器)를 진설하여 옛 성인을 존송하는 곳으로 삼고 인간의 윤리를 밝히고 예의를 숭상하여 인재를 교육하는 곳으로 삼으니, 세도(世道)의 비태(否泰)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관료들의 정치의 득실이 매이게 된다. 그런 즉 현(縣)에 학교가 있는 것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 본 읍의 향교도 다른 읍과 같아 정전은 대성전이요 앞 건물은 명륜



황성향교 전경과 명륜당

당이다. 헌관소와 장방이 그 왼쪽에 있고 제기고와 재방이 그 오른쪽에 있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기와가 갈라지고 서까래가 퇴락하여 비가 새어 진실로 성현을 존숭하고 모시기에 부족했고, 당우(堂宇)는 무너질 듯 남아 또한 향교의 전례를 벗어나게 되었다. 중수한 전례가 없지 않지만 고을이 작고 학교는 쇠잔하여 재물과 인력을 내어 큰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 머뭇거리면서 거행하지 못한 것이 여러 해가 되었다. 그러므로 온 고을의 선비들로 탄식하고 애석해 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날이 갈수록 그 한탄은 더욱 깊어졌다. 읍재(邑宰)인 이유룡이 이곳에 부임한 지 몇 달, 재장(齋長) 조석대, 장의 진경은 모두 훌륭한 선비로 유림의 신망을 지고 있었는데, 군수와 향교를 고치는 일을 함께 시작하자고 청하고 개연히 탄식하고 척연히 두려워하면서 물러나 의론을 정하고, 드디어 향교를 고쳐서 보수하는 일을 즉시 감영에 보고하고 목재와 기와를 모으는 데에 그들의 힘을 쓰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계책을 세워서 재정을 마련하는 데에 그들의 정성을 모두 쏟으며 막 일을 시작하려는 즈음, 국운이 불행하여 헌종이 돌아가시어 성현의 모당을 옮겨서 봉안하는 예를 감히 임금의 장례식 전에 행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대성전을 중수하려는 의론은 잠시 중지되고, 그 다음 당우와 제기고 및 기타 건물을 먼저 보수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유년(1849) 가을 7월 7일이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군수께서 일의 버리를 잡고 지휘하



시면서 툼툼이 오가며 백성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힘을 태우게 했다. 재임(齎任)과 간사(幹事)는 공사장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정성을 다하고 그들의 힘을 다하여 30일이 채 못 되어 일이 완성되었음을 고하니, 그 달 26일이다. 만약 군수께서 인화(人和)를 다하지 않으셨더라면 어찌 이와 같이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그것을 완성할 수 있었겠는가. 명륜당, 제기고, 장방은 빛나게 새로워졌으나, 대성전의 보수는 임금님의 장례 이후를 기다려 다시 의론하기로 하였다. 이듬해 경술년(1850) 2월 길일 상정(上丁)⁴⁾에 석채(釋菜)⁵⁾의 예를 행하고 다섯 성현의 신위를 명륜당으로 옮겨서 봉안하였다. 8일 신미일에 목공을 불러 일을 시작하며, 빠진 기와는 고치고 썩은 서까래는 바꾸어, 그 일은 귀중하게 하되 폐단은 간결히 하였으며 재물을 쓰는 것에는 절도가 있게 하고 백성을 부림에는 농사시기에 맞게 하여 부지런하면서도 정성스럽게 하여 잠시라도 나태하게 함이 없었다. 19일 임오일에 모든 일꾼들이 공사가 끝났다고 알리니, 일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20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묘당은 옛날과 같이 되었고 당으로 오르는 섬돌도 새로워졌다. 다음 날 계미일, 군수가 많은 선비를 이끌고 목욕재계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던 신주를 제자리에 모시고자 희생과 폐백을 갖추어 제기(祭器)를 진설하고 제사를 올리는 예를 거행하였다. 아! 아름답도다. 대성전의 빗물 새던 기와는 바뀌어 다시 새로워졌고, 명륜당 퇴락한 서까래는 고쳐져 정돈되었다. 나머지 제기고와 장방의 무너질 듯한 곳도 한꺼번에 옛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였다. 어진 우리 군수님께서 조정을 받들고 성현의 묘당을 존중하고 어진 인재를 기르려는 지극한 뜻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오늘과 같은 바꾸어 완성하는 공적을 이룩하고 수많은 선비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겠는가. 장차 하늘이 우리 유학을 없

4) 상정(上丁) : 음력 매달 상순에 드는 첫째 정(丁)일.

5) 석채(釋菜) : 소나 양의 희생없이 채소만 올리고 지내는 간단한 석전.

애어 학문과 교화를 폐지시키고자 하지 않으셨으므로 어진 군수께서 적시에 부임하셨고 뜻있는 바른 선비가 또한 그 임무를 관장하시었다. 같은 때에 서로 만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구제하여 우리 유학이 활짝 열리고 학교가 부흥하게 된 것이니, 이 어찌 이 땅의 많은 선비들의 행운이 아니겠는가. 또한 다만 이 땅의 많은 선비들의 행운일 뿐만 아니라 이 어찌 천고의 수많은 선비들의 행운이 아니겠는가. 이에 이 사실을 글로 적어 어진 군수의 정성과 부지런한 뜻을 잊지 아니하고 이글을 받들어 뒤의 군자를 기다린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현자가 향교에 애를 써 퇴락하는대로 고쳐서 이곳에서 덕 높은 성현을 공경하여 받들게 되리라.

라고 하였다. “향교안의 문묘(文廟)에는 작은 규모로 위패를 배열하였다.” 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섬강의 용바위(龍巖)이었다. 고즈넉한 맑은 가을 햇살에 비친 용바위 주변의 냇물은 아름다운 데칼코마니를 연출하였다. 용모양의 바위! 1세기 전 주민들이 지역에 환란이 닥치면 하늘에 비었던 신성한 바위이다. 지금은 황성한우축제 할 때만 이곳 주변에 사람들이 붐빈다. 축제 형태는 달라도 황성군민들이 바라는 소망은 같을 것이다.

『황성현읍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현(縣)의 북쪽 5리에 있으며, 현내(縣內)의 땅이다. 서천(西川) 상류의 반포(盤鋪) 냇가의 주변은 수 무(畝)가 될만하다. 물이 넘치면 침수되고 형태는 대부분 기이하고 괴이하여 상태를 형언할 수 없다. 해마다 가뭄이 들면 승려와 무당을 모아 이곳에서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한다.



라고 하였으며, 『관동지』에는 “현의 북쪽 5리 후천(後川)에 있다. 형세가 마치 반룡(盤龍)⁶⁾이 깊은 물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혹은 가뭄이 들어 현감(縣監)이 이곳에서 정성으로 기우제를 지내면서 세운 것이라고도 한다.” 라고 하였다.



용바위의 전경과 근경

이번 유적답사는 기존답사와는 좀 다른 답사였다. 『신중동국여지승람』, 『관동지』, 『횡성현읍지』, 『강원도지』 속의 내용을 따라 답사한 것이다. 많은 유적이 유실되어 흔적도 사라지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유적도 있었고 사라졌지만 여전히 고귀한 흔적임을 뽐내는 듯한 유적들도 있었다. 역사 속에 빛나던 고귀한 유적들이 내일에도 빛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6) 아직 하늘에 오르지 않고 땅에 서려 있는 용을 말한다.

운암정의 내력, ‘운암정서’



글/사진 이철영

섬강을 내려다보는 승지봉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정자를 품고 있다. 정자의 이름은 운암정(雲巖亭). 이 운암정에 대한 설명은 2001년 12월 발행된 <횡성군지> 하(下)권 982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도 그대로 올라가 있다. 내용의 일부는 이렇다.



< 운암정 >

“횡성에서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살아온 김한갑(金漢甲), 이원식(李元植)은 무척 가난하게 살아 왔는데, 이 두 사람은 잘 살아 보자고 굳은 결심



I
향토사의 숨결

을 하고 가난을 이기기 위하여 피눈물나는 노력을 계속하여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그들이 40대가 되었을 때는 횡성에서 제법 부자가 되었고, 50대가 되었을 때는 수 백석의 지주가 되어 품었던 꿈을 이루게 되었다. 회갑이 되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입지(立志)를 기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자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이곳에 정자를 세우기로 하고, 공사비를 두 사람이 반분하여 1937년에 완공하였다고 한다. 정자의 명칭은 김한갑의 아호(雅號) ‘운수(雲水)’와 이원식 아호 ‘청암(靑巖)’에서 한 자씩을 택하여 ‘운암정(雲巖亭)’이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 자료의 내용과 달리 현재 운암정 입구에 있는 안내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암정은 이 지역 출신인 김종운(金鍾雲), 이원직(李元植) 두 사람의 자수성가를 기념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롭게 하고자 1937년에 건립하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익공양식에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장대석(네모지고 긴 석재로 기단에 가로로 길게 놓은 돌)으로 된 1단의 낮은 기단 위에 비교적 가늘고 둥근 기둥으로 되어 있다. 정자 옆에는 조그만 연못을 만들어 놓았으며, 정자 아래로 흐르는 강물과 군데군데 솟아 있는 바위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경치를 맛볼 수 있게 한다. 지금은 비록 강 건너에 세워진 아파트로 인하여 옛 운치를 많이 잃었지만 정자의 터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

위에서 보드시피 두 자료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분명 둘 중 하나는 잘못된 내용이 분명하다.



운암정 현판(1937년 박석균)



운암정 현판

군지에는 정자를 지은 사람이 김한갑, 이원식으로 나와 있지만, 운암정 안내판에는 김중운, 이원직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군지에 나오는 이원직은 ‘식(植)’과 ‘직(植)’의 미세한 차이에서 발생한 오타로 추정되지만 김중운이 김한갑으로 바뀐 연유는 알 수가 없다.



운암정에는 밖에 걸린 현판 외에 안에 정자의 내력을 담은 ‘운암정서’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밖의 현판은 정자를 지은 해인 1937년에 만들어졌고, 안에 걸린 ‘운암정서’는 1944년에 만들어졌는데, 운암정서에 의하면 ‘김중운’과 ‘이원직’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횡성군지의 내용은 차후 개정판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자로 빼곡하게 적힌 ‘운암정서’의 내용이 궁금해서 다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알 수 없어 대전의 한학자 조규도 선생께 번역을 의뢰했다. 운암정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어려운 작업을 해주신 조규도 선생께 감사드린다.

운암정서(雲巖亭序)

동쪽의 산에는 복사꽃이 붉고 서쪽의 험한 산악에는 지초가 자라며, 남쪽에는 내가 흘러가고 북쪽에는 물결이 넘실넘실 일렁인다. 하늘은 큰 들판을 나누어 영실좌(천자의 별자리)의 별빛이 드리우고, 대지가 펼쳐놓은 화성에는 봄바람 속에 사람들이 살아간다. 신령스러운 땅의 기운을 보고 인걸이 태어날 것을 알며, 사물의 화려한 모습에 공감하여 조물주의 솜씨가 훌륭함을 인식한다. 지경이 이미 그윽하고 뛰어나니 어찌 아름다운 감상을 빠뜨릴 수 있을 것인가!

난초 핀 물가를 걸으며 멀리서 정자 이름이 적힌 현판을 쳐다보고, 말을 타고 가서 구름을 헤치며, 지팡이를 날리며 바위에 올라선다. 두 눈이 활짝 트이며 모든 경물이 시야에 들어오니 물은 흐르고 산은 높아 백아의 거문고 연주를 듣는 듯하고, 노을이 물들고 따오기는 날아서 등왕각에 오른 것 같다. 바위는 남산에 우뚝하고 구름은 황학산에 유유하니 강가에서 낚시하는 노인이 꿈을 사냥하기를 기다리는 듯, 성 밑에 사는 빨래하는 여인이 왕

손이 남겨 놓은 음식을 바라는 것처럼 기운과 형상은 아침저녁으로 환상적인 경치를 드러내고, 소리와 빛같은 바람과 달의 기이함을 온전하게 연출한다.

예전의 일을 되새기며 길게 탄식하고 지금을 생각하며 한바탕 휘파람을 부니 산 계곡이 매아리쳐 울고 구름과 놀이 서로 비추어 빛난다. 한강대 위에는 높은 피가 우뚝하게 솟았고 반구정 아래에는 백구가 오랫동안 물위에 떠서 논다. 솟구친 바위에 비껴 흐르는 구름은 일단의 귀인 행차가 지나가는 것 같고, 아름다운 못물에 비치는 달빛은 천고에 깨끗한 거울과 같다. 꽃이 피어나길 꿈꾸는 정자의 물은 봄의 신이 비단물결을 보태고, 물에 흘러가는 바위꽃에는 때때로 향기로운 바람이 분다. 낚싯배에서 부르는 뱃노래 소리가 들리고, 서당에서 읊조리는 글 읽는 소리와 울린다. 흘러가는 물속에 가로놓인 다리에는 봄 구름이 용처럼 피어오르고, 큰 길을 가는 수레에는 여름비가 그쳤다가 우레가 친다. 못 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를 굽어보고 하늘에 배회하는 신선세계의 새를 바라본다.

이것으로 알 수 있나니, 섬강이 화성의 정수를 얻었고, 이 운암정이 섬강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였음을. 따뜻한 봄에 날씨가 화창하면 꽃과 버들을 노래하는 것은 시인들의 몫이고, 여름의 장맛비가 때에 맞추어 갠다면 이 때문에 취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전들이 할 일이다. 마름에 바람 불고 여뀌꽃에 달이 뜨면 피리소리가 맑고 소리 높여 노래 부르는 것은 어부들에게 달려 있고, 섬계에 달이 밝고 냇가에 눈이 내리면 노를 저어 맑은 흥취에 젖는 것은 은자들이 하는 행위이다.

사계절의 아름다운 경관을 겸비하여 완상하고 즐기면서 남들과 함께 하니 아, 이 정자의 주인이여! 은혜로운 자가 아니면 좋은 사람이다. 저 물가의 어수리 풀을 쳐다보면서 다만 이 주인을 생각할 뿐이다.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화암 이원직 노인과 지은 김종운 어른이다. 이 사람이여, 이 사람



이여! 바위도 이사람 같고 구름도 이사람 같구나. 바위여, 구름이여! 모든 것이 이사람 같구나. 구름에 의지하여 지초 노래를 부르니 한결같이 은거하는 선비와 같고, 바위에 기대어 물을 쳐다보니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바위는 마멸되지 않고 구름은 영원히 존재하며, 정자는 천추에 전하여 두 사람의 명성이 빛날 것이다. 이 정자를 통해 나의 회포를 쏟아내니 옛사람과 지금 사람에게 부끄러운 감회가 든다. 아! 나의 고치지 못할 습관은, 착한 일을 한 것을 보면 번번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 한 수를 덧붙이니 옛사람의 운자를 따라 짓는다.



운암정 연못터

북천 언덕에 운암정이 있으니
 구름 깊고 바위 기이해서 경치가 아름답다
 십리길 꽃핀 언덕에 안개가 끼고
 백구 나르는 강물은 세차게 흐른다
 녹음이 짙어가니 바둑두기에 좋고
 한가히 달 오르니 또한 뱃노래 부른다
 이처럼 아름다운 흥에 나도 즐거운데
 다정한 시인이 어찌 그냥 지나치라

1944년 갑신 봄, 횡성군수 유태명

- * 성씨의 ‘유(楡)’ 는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에 의한 표기로서 본래는 ‘유(兪)’ 이다.
- * 등왕각 : 중국 당나라 태종의 아우 등왕(滕王) 이원영(李元嬰)이 장시성(江西省) 난창(南昌) 시의 서남쪽에 세운 누각.



고장의 새싹을 키워 온 화성유치원



황성문화원장
박순업

1. 시작하며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구한말 민족 각성과 무지를 벗어나기 위하여 한문과 유학 위주의 서당교육을 벗어나 새로운 문물이 접목된 교육이 필요했으며 이 무렵 선각자들에 의하여 사립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는 1883년(고종 때) 설립된 덕원부 원산학사이다. 설립자는 황성출신인 덕원부사 박원 정현석이다. (교방가요. 성무경역. 2002.11.30. 19쪽).

황성군수였던 심홍택은 독자적으로 1908년 화성학교를 세워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일제가 흡수하여 1911년 황성보통학교로 탄생시켰고 이는 황성보통학교의 전신이 되었다. (황성의 근·현대교육사 20쪽. 박순업. 1912. 황성문화원)

황성 감리교회에서도 일제의 억압 속에서 정화여학교, 야학에 이어 1920년 화성유치원을 설립, 100여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이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2. '화성(花城)'용어 고찰

역사적 사실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황성의 소재지 읍지가 화성이라 불렀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수몰지역이 된 갑천면 화전리에 구읍지가 있었다고 전하여 오고, 앞 별관을 화성 별이라 불려왔다.(군지 1905쪽 참조)

「고려사」, 「세종 실록지」에 횡성의 별호가 화전(花田)이라 되어있는 바, 이는 현재의 갑천면 화전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전리에는 향교 터, 감사고개, 동헌 터, 망복산(적군을 감시하던 곳), 부동리의 옥담(감옥 터), 중금리의 군량골 등 구전되어 오는 설화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횡성지역에서는 ‘화성’이라는 단어를 지명, 기관명, 상호 등에 많이 쓰고 있다. 화성로, 화성학교, 화성유치원, 화성초등학교, 화성택시, 화성목욕탕 등이 그 예이다. 한편 학교 교가 가사를 살펴보면 화성 별 푸른 숲은 우리의 자랑(횡성초등학교), 섬강 물 흘러 흘러 화성 별 살찐 곳(성북초등학교), 어답산 정기 받은 화성 옛터에(화성초등학교) 등 화전리 앞뜰, 또는 횡성 앞뜰을 화성이라 표현하고 있다.

횡성 최초의 사립학교 이름도 화성학교이다. 화성학교는 1908년 10월 1일 신학문을 통한 민중 각성 교육을 위하여 당시 심홍택 횡성 군수가 설립하였으며 1911년 일제에 의하여 횡성보통학교로 흡수 계승되었다. 이렇듯 화성이라는 용어는 역사의 숨결이 어려 있다.

3. 횡성감리교회와 교육사업

(1) 정화 여학교와 야학

횡성 읍상리에 위치한 횡성감리교회는 1906년 4월 6일 미국 기독교 선교사 모리스 부처의 선교활동으로 창립되어 2020년 현재 114년의 역사를 가진 횡성의 대표적 기독교 교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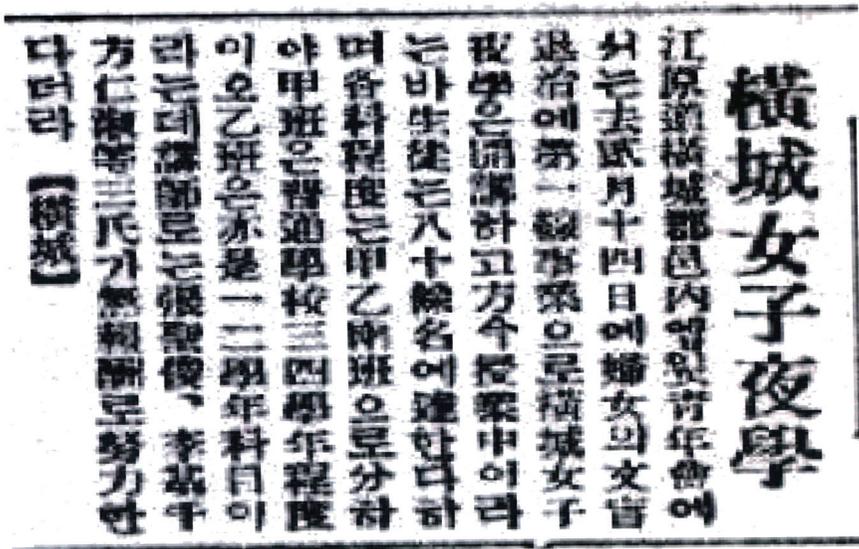
횡성감리교회는 민족 각성을 위하여 신문화 교육에 힘썼다. 그 예로 1913년 부속학교로 정화여학교(매일학교)를 설립, 여성교육에 공헌하였으며 강원여성교육의 시발이기도 하였다.

당시 여학교는 근대식 신지식을 가르쳐 여성을 양반사회에서 예측적 지

위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아주 까다로운 규칙 적용과 탄압으로 정화여학교는 정규 학교로 발전하지 못하고 1917년 자진 폐교하고 여자 야학회 운영으로 지속적 신학문 교육을 이어가기도 하였다. 1924년 8월 23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횡성 여자 야학



강원도 횡성군 읍내에 있는 청년회에서는 1924년 8월 14일에 부녀의 문맹퇴치에 제일 해결책으로 횡성여자 야학을 개강하고 수업 중인데 생도는 80여명에 달한다 하며 각과 정도는 갑을 양반으로 나누어 갑반은 보통학교 3, 4학년 정도고 을반은 역시 1, 2학년 과목이라는데 강사로는 장성준, 이기천, 방인숙 등 세분이 무보수로 노력한다라고 하였다.

橫城女夜學修業式

六月廿八日橫城女子夜學會에서
 本邑耶蘇教會堂內에서修業式
 을舉行한바牧師趙根英氏引導下
 에張忠心嬢의開會辭가有한後主
 日學校女學生三人의合唱이了하
 자家庭衛生이라는演題로朴南海
 柳貞淑兩女史의講演과勸勉이라
 는演題로金乙善女史의講演이畢
 한後에橫城青年會長趙楸九氏의
 祝辭와趙根英氏의答辭가有하고
 柳奎輔氏가修業證書及貨品授與
 了한後午前十一時에閉會

(橫城)



6월 18일 횡성여자 아학회에서는 본읍 나소교회당내에서 수업식을 거행한 바 목사 조근영씨 인솔하에 장충심 양의 개회사가 있는 후 학교 여학생 3인의 합창이 끝나자 가정위생이라는 연제로 박남해, 류정숙 양 여사의 강연과 근면이라는 연제로 김을선 여사의 강연이 끝난 후에 횡성청년회장 조철구씨의 축사와 조근영씨의 답사가 있었고 수업증서와 상품수여를 마친 후 오전 11시 에 폐회하였다는 내용이다.

(2) 화성유치원

그 교육 열기는 화성유치원 설립으로 이 땅의 새싹·미래 그리고 유일한 희망인 유아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

1920년 3월 화성유치원 설립 당시 발기인은 다음과 같다.

발기인 한성교(韓聖敎) 심용보(沈容保) 방현영(方顯榮) 정영헌(鄭映憲)
 신현남(申鉉南) 심기용(沈其龍) 정호열(鄭鎬烈) 조용한(趙龍漢) 조철구(趙
 轍九) 윤태환(尹泰煥)

당시 교육기관 일부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教育機關		▲公根公普校
設立昭和二年四月一日	設立時	生徒一五〇
現在生徒一八〇	教員二	校長嚴圭昌 ▲安興公普
設立大正十五年四月一日	設立時生徒一二〇	現在生徒二〇
五教員三	校長井上 ▲晴川公普	校 設立大正十五年四月一日
立時 生徒一三〇	現在生徒一	七〇 教員二 校長中村本 ▲花
城幼稚園 設立大正十二年四月	一日 設立者卓英才	設立時生
徒三〇	現在生徒五〇	教員二
園長申洪植 ▲橫城勞農夜學	設立者尹	立昭和二年四月一日
徒五	教員四	校長尹泰煥 ▲
屯內私立學院 設立大正九年四	月一日 設立者安國善	設立時
生徒五〇	現在生徒一〇五	教員二
院長安國善		

당시 교육기관 현황에서 화성유치원을 살펴보면 설립자는 탁영재, 설립시 생도는 30명, 현재 생도 50명, 교원 수 2명, 원장 신흥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횡성노동야학은 설립 1927년 4월 1일, 설립자 윤태환, 설립시 생도 40명, 현재 생도 51명, 교원 4명, 교장 윤태환으로 기록되어 있다.

윤태환은 횡성청년회 회원이며 야학에 깊이 관여하였던 인물로 감리교회에서 활동하였고 1919년 3월 27일 1차 횡성군민 만세운동 때 맨 앞에서 큰 태극기를 흔들고 주도했다. (조동걸 저, 횡성과 3·1운동 횡성문화원 발행 참조) 4월 1일 2차 운동에는 감리교인으로 정해경, 탁영재가 앞장섰다. 이렇게 횡성감리교인들은 국난극복에 적극 동참 선봉에 섰었다.

화성유치원 설립 발기인 대회 1년 후 기독교신보 (1921년 4월 30일자) 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다.

횡성을 화성유치원은 작년에 미국선교사부인회의 찬조와 유지인스의 찬성으로 설립되어 으동 四十여명을 모집하여 一年간 교육 후든바 三月三十일 오전 十一시에 본례 卮당에 학예회를 기최하고 수백명의 립빈이 모혔으며 기회로 관동학우회강연단 일행도 참석 하야 유치원에 대한 연설이 잇섯스며 꽃송이 갖흔 으히들의 유희는 자못 卮관자의 흥감을 주었다. 卮 참 식국민을 양성하난 식 卮관이라 하겠도다.

횡성유치원 이원식

橫城幼稚移園式 江原道橫城
 幼稚園에서는元來當地禮拜堂을
 빌려서가르치오든바狹窄하고不
 便한점이 많으므로靑年會館을修
 繕한後去二十一日午前十時頃에
 同會館內에서移轉開學式을尹兌
 鉉氏司會下에舉行하였다는데來
 賓祝辭와어린이에對한訓話도잇
 은後同十二時頃에閉式하였다고
 (橫城)

강원도 횡성유치원에서는 원래 당시 예배당을 빌려서 가르쳐 왔는데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청년회관을 수선한 후 21일 오전 10시경에 동회관내에서 이전 개학식을 윤예현씨 사회 하에 거행, 내빈 축사와 어린이에 대한 훈화도 있는 후 동 12시경에 폐식하였다고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화여학교가 폐교 되고 서당 글방 형식으로 야학이 운영되던 중 유치원



형태로 교육사업을 계속 하고자 교회지도자와 지역의 유지들은 힘을 합쳐 화성유치원이 설립하게 되었다. 그것은 신앙을 떠나 미래 황성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며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 대도시도 아닌 황성에 이토록 훌륭한 유아교육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 금지였으며 황성지역 주민들은 교인이든 교인이 아닌든 자녀들을 화성유치원에 보냈다. 설립하던 그해 화성유치원은 40명의 원아를 모집하였다. 일 년 간 화성유치원은 황성주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위의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유치원 1주년 행사에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와서 축하하였다. 그야말로 황성 전체의 잔치였다. 이렇게 시작된 황성교회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유치원으로 발전하였다. 유치원 교사는 여성교육의 최고봉이었던 이화학당의 사범과 교사가 황성에 상주하며 교사로 봉직하였다.

기독신보 보도 내용

張淸心 送別會

강원도 황성을 교회에 부속화성유치원에서 七월 十五일 오후에 동교당에서 유치원 보모이던 장청심씨의 송별회를 조근영씨사회회에 거행하였는데 부인덕표 박누티아씨의 송별스와 유치원대표 함기섭씨와 본교회와 유년주일학교덕표 조근여씨의 석별사가 있은후 유치원유지회와 녀자야학생一동과 유년주일학교 三단체로서 약간의 기념품의 진명이 있은후 씨의 답사로 폐회되었다더라(1922년 10월 11일)

유치원개학

본교회는 四월 十三일 윤태현씨 스회로 청년회관에서 유치원개학식을 거행하였는데 신입생도 만었으며 조모는 금번 리화유치원 사범과를 졸업한 조경희양이라고.(1926년 4월 28일)

위의 기사를 보면 당시 최소한 2명의 화성유치원 교사 실명이 거론되었다. 장청심과 조경희이다.

이들은 초창기 화성유치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여기에 거명되는 장청심은 후에 여류민족시인으로 많은 활동을 한 장청심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횡성여자야학 수업식에서 개회사를 한 장충심도 같은 인물로 보인다.

장청심은 1898년 개성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장효경은 초기 개성의 남감리교인으로 장청심을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시켰다.

장청심은 그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개성의 남감리교 여학교인 호수돈여학교에 진학하였고 졸업 후 이화학당 유치사범과(3회)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에는 고향인 개성 호수돈유치원 교사로 1920년까지 봉직하게 되었다. 1927년 그녀는 <청년>지에 ‘기도실’, ‘병상’ 이란 시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그녀는 민족의 한을 담은 시를 발표함으로써 빼앗긴 조국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였다. 그녀는 1920년 후반 감리교 협성여자신학교에 입학하여 1929년 졸업하였다.

우수한 교사를 초빙하려는 생각은 미감리회 여선교사들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당시 미감리회 여선교사들은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이들이 여럿 있었다. 그들은 이화학당 사범과에서 교육학을 교수하며 한국에 유아교육을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선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화성유치원 교사를 구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해서 초빙한 교사가 바로 장청심이었다.

이런 추측은 장청심보다 늦게 부임한 조경희 선생의 경우가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그녀 역시 이화 사범과 출신으로 시골인 횡성에 와서 일하였다.

따라서 원 설립부터 유아교육의 전문가가 교육을 담당함으로 화성유치원

은 이 지역뿐 아니라 강원도에서 매우 우수한 유치원 교육기관이 되었다.

한편 횡성 유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설립된 화성유치원은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의 협력 속에서 발전하였다. 설립 후 화성유치원 운영은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한 듯하다.

우선 화성유치원은 스스로 유지회라는 것을 구성해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운영비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종 단체들도 화성유치원 운영에 적극 협조하였다. 다음의 기사가 이를 입증한다.

유지의 기부

본교회유치원을 위하여 당디 상업조합에서는 금 三十원을과부하고 기성 박척봉 김모란 량인은 연주회의 수입금 三十원을 귀부하였다더라.
(1923년 7월4일기독신보)

이 기사는 상업조합이 30원을 기증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기생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연주회의 수입금을 기증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화성유치원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선 기생들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기금을 기증했다는 것은 화성유치원이 얼마나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들은 비록 기생의 신분이지만 횡성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싹들을 위해 흔쾌히 돈을 내놓을 수 있었다.

(횡성교회 90년사 횡성의 종소리,1996. 8. 26, 김진형저 참조)

94년 전 화성유치원 36명 원아들이 졸업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아직 생존해 있다면 100세쯤 되었을 터인데 아마 이 세상에 남아 있는 분은 없을 것 같다. 사진 속에서 그 당시의 복장, 신발, 그리고 예배당 모습을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암울했던 시대였지만 이들은 나라의 미래와 횡성을

이어 갈 희망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화성유치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1926년 3월 20일 화성유치원 제2회 졸업기념 사진

폐허가 된 1954년 6·25전쟁 직후 최영기 목사님과 찍은 화성유치원 졸업사진이다. 전쟁이 할퀴고 간 상처로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볼 수 있으며 황성의 미래가 밝게 펼쳐질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화성유치원은 100년 동안 고장의 희망인 어린 새싹들을 소중하게 키워왔다. 이제 화성유치원은 비약적으로 발전된 교육환경에서 100년의 역사 그 정신을 흔들림 없이 이어 갈 것이다.



100년 전에도 내빈을 모아놓고 학예회를 했었고 그 후 꾸준히 이어와 2019년 학예회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발표회가 어려울 것 같지만 희망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



어린이는 가정, 고장, 나라의 유일한 희망으로 화성유치원은 100년간 이를 실현해 왔다.



2019년 화성유치원 졸업식에서 졸업생과 신윤희 원장님. 원장님 외 4명의 교사가 82명의 꿈나무를 지도하고 있다.



I
향
토
사
의
숨
결



어린이들이 모두의 희망인 이유는 다음 세대를 계승 한 시대를 발전시킬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3. 마치며

어린이는 가정, 교장, 나라 미래의 기둥. 인간으로써 살아가야 할 규칙, 도리 등을 거의 유치원 시절에 습득한다고 하였으니 1세기 동안 화성유치원

은 그 역할이 지대하였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황성감리교회 지도자 및 선각자들은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여성교육, 야학 등 계몽운동을 실천하였으며 황성 3·1운동 때에는 분연히 앞장섰었다. 그리고 향후 이 땅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의 기초·기본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화성유치원을 설립 유아교육에 힘써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한편 6·25전쟁 동란 때에는 황성감리교회가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 곳에서 1951년 2월 12일 중공군의 기습으로 네덜란드 대대장을 비롯하여 많은 장병이 전사하였으니 일제강점기, 민족상잔의 6·25전쟁도 황성감리교회를 비껴가지 않았다.

그러나 민족의 수난기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가르침과 배움의 열기는 끊겨 지지 않았으니 희망의 새싹이 자라나는 화성유치원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횡성의 문화재를 찾아서 ‘육절려’

횡성문화원 편집자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 ‘베이스볼 파크’에서 수백리 방면으로 1km쯤 가면, 마을을 가로 지르는 중앙고속도로의 고가도로 부분이 나온다. 그 밑을 지나자마자 왼쪽 마을길로 다시 1km쯤 가면 수령이 400년 가까이 되는 느티나무 고목이 있고, 오른쪽으로 정면 4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인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65호인 ‘육절려’가 있다.



육절려는 임진왜란때 진주성에서 왜적과 싸우다 전사한 진주목사 서예원(1547년 ~1593년)과 그의 일가족의 충·효·열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서예원은 이천서씨 시조 서신일의 16세 손이며, 고려조 서희 장군의 13대 손이다. 27세에 무과에 등과(1573년)하여 선전관, 나주관관, 도총부도사 겸 비변랑, 경력, 보성군수, 광산군수, 1591년 김해부사로 임명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이 김해성을 공격하자, 초계군수 이유검과 함께 성을 지키며 적의 공격을 세 차례나 격퇴 하였으나, 계속되는 왜군의 물밀듯한 공격으로 하는 수 없이 성을 수호하지 못하였다. 그는 곧바로 의병장 김면에게 달려가 중군사가 되었으며, 성산을 거쳐 거진에 들어갔으나 우리 군이 모두 패한 뒤였다. 그 후 지례 전투에서 공을 세웠으며, 거창 우지현 전투 등 여러 전투를 거치며 용인에 이르러 갈천 전투에서 잡혀 갔던 사람과 우마 및 군수물자를 노획해 찾은 것이 많았다. 이 무렵 임진왜란 제 1차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목사 김시민이 총상으로 위독해지자, 1592년 순찰사 김성일은 서예원으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게 했으며, 다음 해(1593년) 4월 15일 정식으로 진주목사에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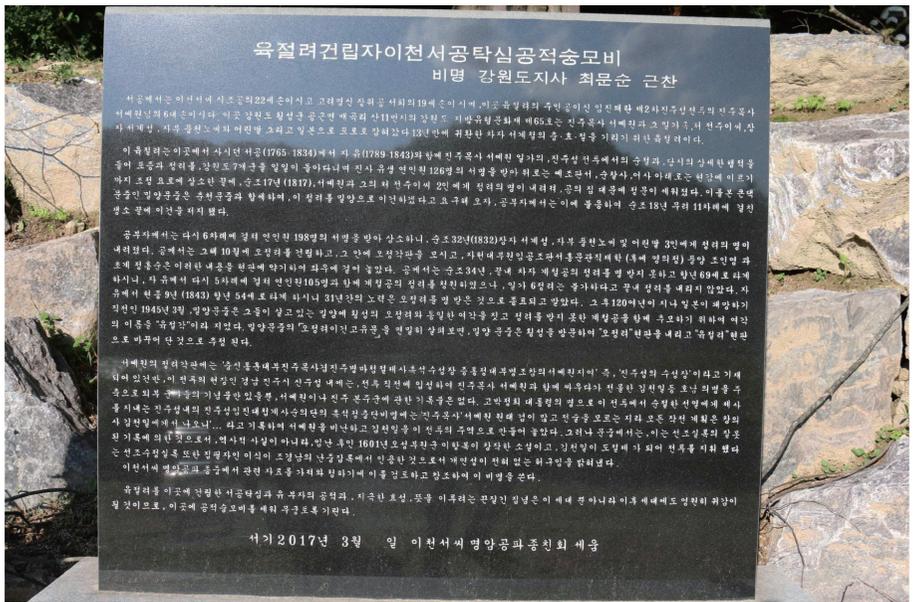


서예원은 진주목사로서 1593년 (선조26년) 왜군의 제2차 침공을 맞아 부족한 병사와 무기를 가지고 진주성을 굳게 지키다 전사하였다. 또한 그의 부인 전주 이씨와 큰아들 서계성, 며느리 풍천 노씨 그리고 어린 딸도 밤낮



을 가리지 않고 군사들을 도와 항전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뛰어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둘째아들 서계철도 강물에 몸을 던졌으나,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13년 뒤에야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 육절려는 이곳에서 사시던 서예원의 6대손인 서탁심(1765~1834)과 아들 서유(1789~1843)가 서예원 일가의 진주성 전투에서의 순절과, 당시의 상세한 행적을 들어 포증과 정려를 조정에 상소한 끝에, 1817년(순조 17) 서예원과 그의 처 전주 이씨 2인에게 정려의 명이 내려져, 서탁심의 집 대문에 정문이 세워졌다. 다시 6차례에 걸쳐 상소를 하여 1832년(순조 32) 큰아들 서계성, 떠느리 풍천 노씨 및 어린딸 3인에게 정려의 명이 내려졌다.



그해 10월 오정려를 건립하고, 그 안에 오정각관을 모시고, 자헌대부원임 공조판서 홍문관 직제학(후에 영의정) 조인영과 정홍순은 이러한 내용을 헌 판에 약기하여 좌우에 걸어 놓았다. 서탁심과 아들 서유가 5차례에 걸쳐 정

려를 청원하였으나 일가 6정려는 불가하다고 끝내 정려를 내리지 않았다.

그 후 1945년 3월 큰택문중인 밀양문중은 황성의 오정려와 동일한 여각을 짓고 정려를 받지 못한 서계철을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여각의 이름을 '육절각' 이라 지었다. 밀양문중의 「오정려 이권 고유문」을 살펴보면, 밀양문중은 황성을 방문하여 '오정려' 현판을 내리고 '육절려' 현판으로 바꾸어 단 것으로 추정 된다.





II

문화유산

횡성향교 명륜당 동재 개축을 기념하며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바란다



횡성향교 전교
이 병 곤

오늘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라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따라 하는
이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하여 청소년과 노년층 계층 간에 취미와 배움이 다르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는 자연히 관심이 덜해 지는 분야이지요.

조선이 개국 하면서 국가정책에 의하여 모든 백성에게 유학을 배우고 실
천 하도록 장려하며 지방에 향교를 세워 '지방관학'으로서 지방 수령들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어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마을 단위의 서당
(현재의 초등학교)에서 기초를 배우고 향교(현재의 중·고등학교)에서 배
운 후 초시(初試)에 합격하면 조흔첩을 주고 '김초시', '이초시'라 불렀다.

- 식년(式年) 봄 2월에 한성(예조, 주관)에서 생진시(生進試)를 시행하여
생원 100명, 진사 100명을 합격시켜 백패(白牌)를 수여하고 하급관리에
등용하거나 성균관 입학 자격을 주었다.
- 대과(大科) 초시는 식년(式年) 전 가을에 한성부 및 도 감영(관찰사 주
재)에서 전국에 240명을 선발하였다.

- 대과 복시(覆試)는 식년(式年) 봄 (예조 주재)에 한성부에서 전국에 33명을 합격 시켰다.
- 대과 전시(展試)는 복시에 합격한 33명을 다시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등급을 정하여 갑과중 장원(종6품) 1명, 2등, 3등(정7품) 2명과, 을과중 7명(정8품)과, 병과중 23명(정9품)을 선발하여 벼슬을 주었다.

※ 과거는 위와 같이 5단계 식년(式年, 子, 卯, 酉, 牛)에 시행하여 초시(初試)는 식년전 가을 8월에 시행하고 복시(覆試)는 식년 되는 해 봄 2월에 시행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모아 향교의 동재 와 서재에서 기숙하고 강의 공간인 명륜당에서 공부를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 때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1906년 학제 개혁을 단행할 때 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명륜당에서 한학을 배우는 일은 오늘날의 학교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 까지 계속 되었는데 현재의 읍상5리는 향교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향교마을’ , 어린학생들을 부모들이 학교가 보이는 장소인 읍상4리 언덕까지 배웅해주는 장소이어서 ‘배웅골’ 이라는 지명이 유래 되었다.

횡성향교는 현 위치로 이전한 지 37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대성전만 남고 나머지 건물들은 폭격으로 인하여 모두 소실된 것을 선배 유림들께서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초까지 각자의 성금과 노력봉사, 관청의 도움으로 재건축 하였으나 그 또한 낡은 건물이 되고 명륜당의 경우 1층 부분이 시멘트 기둥과 블럭벽으로 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어 2019년 도비3억 군비 4억 5천 총7억5천의 예산이 확보되어 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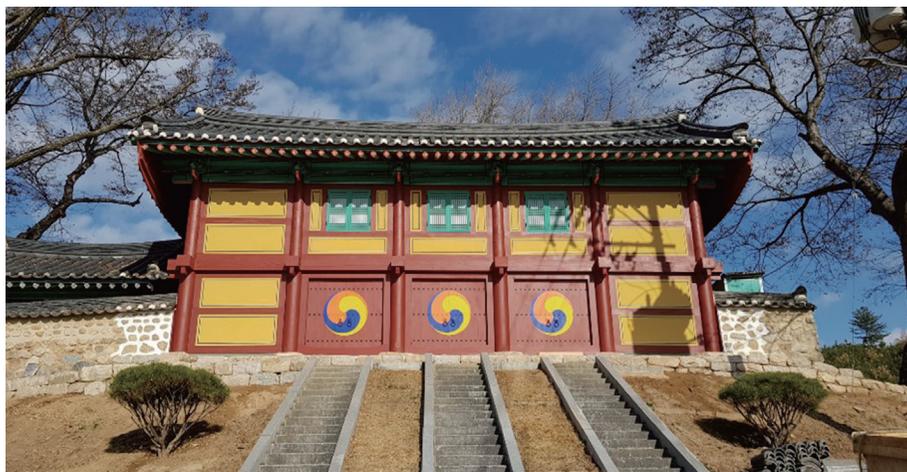
의 크기대로 문화재 규격에 맞는 건물을 재건축하고 2020년에 명륜당 재건축 예산 잔액 중 일부가 기울어져있던 동재 재건축에 사용 완공하였다.

향교 모든 건물이 새롭게 일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예산부족으로 동재의 단청공사를 못하게 된 것이 아쉬우나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는 쉽지 않고 배우려 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있지만, 인간이 생존하는 동안 역사와 전통은 귀감이자 민족의 정기이므로 세월이 가고 세상이 변화 한다 해도 역사와 전통은 영원히 교훈과 지혜를 담고 있으므로 전통 학문의 중요성을 재조명 하고 정통성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할 책무인 것이다. 명륜당과 동재의 재건축에 재정지원을 한 관계기관에 감사하며 유림은 유지 보수에 정성을 다할 것이다.



명륜당 재건축 후 사진 1



명륜당 재건축 후 사진 2



동재 재건축 전 사진





동재 재건축 중 사진



동재 재건축 후 사진

국가 문화재분류, 의미 및 보존에 관한 고찰

國家文化財分類, 意味 및 保存에 관한 考察

1. 文化財 概要 및 分類

문화재(文化財)란 조상들이 남겨놓은 정신적, 물질적 유산(遺産)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아서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만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문화재를 보존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1982년 12월 전문 개정되었으며 전문 7장 94조로 편성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는 건축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파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를 말한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기념물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명승지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며,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민속자료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으



현 원 명
(황성향교교육원장)



로 되어 있다.

또한 누가 지정했느냐에 따라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와 등록문화재(登錄文化財)로 분류된다. 지정문화재에는 다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및 국보,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민속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 자료 등으로 나누어진다.

■ 국가 지정(등록) 문화재 현황

분류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소계	316	1727	518	84	534	121	268
해제	-2	-34	-37	-2	-112	-7	-4
계	314	1693	481	82	422	114	264

■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문화재

분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민속자료
시도지정 문화재	지방유형문화재		지방무형문화재	지방기념물			지방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도지사가 인정한 것						

유형문화재들 중 역사, 학술, 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보물로 지정한다. 그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것을 골라 지정한 문화재가 바로 국보이다. 국보는 건축물, 책, 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등 다양하다. 국보를 정할 때는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시대를 대표하거나, 유례가 드물고 우수하며 특이하거나,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식적인 규정은 없지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최소 50년 이상은 돼야 하고,

국보의 경우 100년은 넘어야 자격이 있다고 학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국보(國寶)는 현재 숭례문(崇禮門)을 포함해 314건, 보물(寶物)은 흥인지문(興仁之門)을 포함해 1693건이다. 우리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하기 시작한 것은 1955년부터이다. 앞서 1933년 일제가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발표하고 보물 고적 등을 지정하기 시작했으나 국보 호칭은 일본 문화재에만 적용했다. 국권을 잃은 조선은 국가가 아니어서 국보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10년 동안 지정된 보물은 340건, 고적 101건,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은 146건이었다. 그 가운데 남대문(南大門)은 보물 1호였다.

2020년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 332호로 승격되었다. 자료에 보면 국보와 보물을 합쳐 2,000여 점에 가깝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거의 200,000점에 이른다고 한다. 그 수에 비하면 우리가 지닌 문화재의 숫자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전 국토가 유린되는 처참한 전쟁을 5번이나 겪으면서, 이 땅에 주인이 없어 방황하던 시절이 근 100여년 이상 지속된 과거의 역사들을 감안했을 때 이들 문화재가 지금까지 이 나라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들추지 말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우리나라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문화민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도 문화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울 때가 온 것이다. 이미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일이 결코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 문화재를 분류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잘 보존하는 공부법이 필요할 것이다.



■ 국가 지정(등록)문화재 명칭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번호	현재 명칭	지정일
국보 국보 국보	제1호	서울 송례문	1962. 12. 20
	제2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1962. 12. 20
	제 316호	원주 화암사 극락전	2011. 11. 28
보물 보물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1963. 01. 21
	제2호	옛 보신각 동종	1963. 01. 21
	제1727호	경주 향교 대성전	2011. 12. 02
사적 사적 사적	제1호	경주 포석정지	1963. 01. 21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1963. 01. 21
	제 518호	경주 문성왕릉	2011. 07. 28
명승 명승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	1970. 11. 23
	제2호	거제 해금강	1971. 03. 23
	제84호	영실기암과 오백나한(제주도)	2011. 10. 13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제1호	대구도동측백나무숲	1962. 12. 03
	제11호	광릉 크낙새 서식지	1962. 12. 03
	제534호	진주 호탄동 익룡, 새,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2011. 10. 14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1964. 12. 07
	제5호	판소리	1964. 12. 24
	제121호	번화장	2008. 10. 21
중요민속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호	덕온공주 당의	1964. 12.07
	제5호	강릉 선교장	1967. 04. 20
	제268호	안동 번남택	2011. 11.09

■ 국보 및 관리 기관

순위	국보 명칭	종수	관리 기관
1	금동미륵보살반가상(제78호)	59	국립중앙박물관
2	정선의 인왕제색도(제216호)	34	리움박물관
3	무령왕릉 출토 12종	14	국립공주박물관
4	성덕대왕신종(제29호)	13	국립경주박물관
5	훈민정음(제70호)	12	간송미술관
6	첨성대(제31호)	9	경주시
7	청화백자매죽문호(제222호)	8	호림박물관
8	조선왕조실록(제151호)	7	서울대학교(규장각)
9	다보탑(제20호) 삼층석탑(제21호)	6	불국사
10	무량수전(제18호)	5	부석사

■ 국보 순위별 분류 및 종수

순위	분류	종수
1	탑	38
2	불상	27
3	청자	24
4	장신구	21
5	대장도감본	20
6	백자	19
7	불전	12
8	보살상	11
9	비(碑)	11
10	금속활자본	7

■ 지역별 국보 분포

지역	서울	경북	충남	전남	충북	경남	경기
종수	156	53	27	18	13	10	9
비율(%)	50.5	17.2	8.7	5.8	4.2	3.2	2.9

지역	강원	전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인천
종수	9	6	4	3	2	2	1
비율(%)	2.9	1.9	1.3	1.0	0.6	0.6	0.3



■ **횡성군 지정 문화재 현황**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강원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합계
	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기념물		
1	16	10	2	3	1	2	19

지정번호	명칭	수량면적	소유자	지정일	소재지
천연기념물 국가, 제248호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23,140m ²		73.10.01	서원면 압곡리
도,무형문화재 4호	횡성 회다지소리	선소리	양재학	84.12.28	우천면 정곡리
도,무형문화재 6호	전통자기 도공	기능 보유자	장송모	89.05.01	공근면 창봉리
도,유형문화재19호	중곡리삼층석탑	2기	국유	71.12.16	갑천면 구방1리
도,유형문화재20호	상동리석불좌상	1구	국유	71.12.16	공근면 상동리
도,유형문화재21호	상동리삼층석탑	1기	국유	71.12.16	공근면 상동리
도,유형문화재22호	읍하리석불좌상	1구	국유	71.12.16	횡성읍 읍하리
도,유형문화재23호	읍하리삼층석탑	1기	국유	71.12.16	횡성읍 읍하리
도,유형문화재60호	신대리삼층석탑	1기	봉복사	79.05.30	청일면 신대리
도,유형문화재65호	육 절 려	1동	사유	81.08.05	공근면 매곡리
도,유형문화재69호	풍수원천주교회	1동	사유	82.11.03	서원면 유현리
도,유형문화재110호	문정공조총지석	1점	횡성조씨 대종회	89.05.01	횡성읍정암리산
도,유형문화재142호	공양공김관영정	1기	연양김씨 종친	01.12.29	갑천면 상대리
도,기념물제 82호	철기시대 주거유적	1,322.6m ²	횡성군	03.01.18	둔내면둔방내리
문화재자료16호	태종대	1동	횡성군	84.06.02	강림면 강림2리
문화재자료17호	운암정	1동	횡성군	84.06.02	횡성읍 읍하리
문화재자료100호	횡성향교	일원	향교 재단	85.01.17	횡성읍 읍하리
등록문화재163호	풍수원성당구사제관	1동	원주교구	05.04.15	횡성군 서원면
등록문화재371호	횡성성당(천주교)	419m ²	원주교구	08.02.28	횡성군 읍상리

2. 崇禮門은 국보1호, 興仁之門은 보물1호의 유래

송례문(崇禮門)은 조선시대 서울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이다. 태조(太祖) 4년(1395년)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1398년)에 완성했다. 현재 건물은 세종 30년(1448년)에 고쳐 지은 것인데 1961~1963년 해체 수리할 때 기록에 의하면 성종 10년(1479년)에도 큰 공사가 있었다. 송례문은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대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정남쪽에 위치하지 않은 것은 풍수적 생각 때문이다. 즉 북한산 - 경복궁 - 송례문 - 관악산의 축선 상에 대문을 배치하다보니 정남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송례문 대문을 관악산과 일치시킬 경우 관악산의 불기운이 한양 도성에 바로 뺨치게 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대문의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 놓았다. 송례문의 대문이 보고 있는 방향에는 오늘날 효창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2008년 2월 10일 송례문 방화 화재로 누각 2층 지붕이 붕괴되고 1층 지붕도 일부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5년 2개월의 복구공사 끝에 2013년 5월4일 준공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송례문(崇禮門)과 흥인지문(興仁之門)이 국보 1호와 보물 1호로 나뉜 것은 송례문이 1398년 지어진 가장 오래된 도성 건축물로 절제와 균형미를 갖춘 반면 흥인지문은 1869년 새로 지어지면서 지나친 장식성을 강조하여 미학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보(國寶) 1호 문화재를 바꾸자는 논란이 뜨겁다. 한편 왜 송례문이 국보 1호, 흥인지문이 보물 1호가 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한국 사람은 드물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문화재를 조사하여 보물 고적(古蹟) 등으로 지정해서 1934년에 공포했다. 보물 1호는 남대문, 보물 2호는 동대문이었다. 국보가 없는 것은 식민지에 무슨 국보가 있겠느냐는 논리였다.

한 일본인 학자 오타 히데하루의 연구에 의하면 일제는 1905년 도시계획



에 따라 교통문제 장애 때문에 남대문을 파괴할 예정이었다. 당시 용산을 중심으로 50만 명 수용의 대도시를 만들려던 일제는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漢城)의 정문인 남대문을 철거하려 했다. 당시 조선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2대 조선총독)는 “포차 왕래에도 지장을 주니까 그런 낡아빠진 문을 파괴해버려라!”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한성신보 사장 및 일본인 거류민 단장인 나카이 기타로가 임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통과한 문이니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카이는 그 대안으로 남대문 좌우 도로 확장안을 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지금의 서울 성내~남대문~남대문 정차장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동대문 역시 임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입성했다는 사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되었다. 결국 남대문과 동대문은 일본의 전승기념물로 살아남은 경우였다. 반면 일본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서대문(돈의문)은 1915년 속절없이 철거되고 말았다. 8.15 광복 뒤 정부는 일제가 지정한 보물 가운데 북한에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국보로 승격시켰다. 이후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이들을 다시 국보와 보물로 나누었다. 이후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 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다. 이듬해 재평가를 바탕으로 일부 문화재의 이름을 바꾸고 등급을 재조정했다. 이때 국보 1호인 남대문은 승례문으로, 보물 1호인 동대문은 흥인지문으로 본래의 이름을 회복했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전승기념물로 지정한 국보 1호 및 보물 1호를 오늘날 아무런 비판없이 대한민국 국보 1호, 보물 1호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국민이 중심이 되어 지정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보 1호, 보물1호를 진정으로 보고 싶다.

대한민국 보물 1호 동대문 = 흥인지문(興仁門)---인(仁)을 흥하게 하라!

대한민국 국보 1호 남대문 = 승례문(崇禮門)---예(禮)를 숭상하라!

동대문:興仁門, 서대문:敦義門, 남대문(崇禮門), 한복문:弘智門, 보신각(普

信閣) 4대문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사람은 어질고, 의롭고, 예절바르며, 지혜롭고, 신의가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요, 인격다운 인격이다. 4대문의 인의예지 전통을 말살하려고 일제(日帝)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으로 고쳐 불렀다.

3. 傳統 建築物의 文化財 意味

가. 한옥의 특징

한옥(韓屋)은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의 집이다. 자연의 기(氣)를 고려해서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背山臨水) 지세에 자리 잡는다. 한옥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예법에 따라 안채(여성들의 공간)와 사랑채(남성들의 공간) 그리고 행랑채(본채를 짓기 전에 임시 거처하는 곳, 창고)로 분리했다. 대문 구조는 바깥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오도록 하였고 밀려오는 복을 담은 그릇이 마당이다. 복을 채우는 그릇이므로 마당은 항상 비워 두었다. 한옥은 한국인의 철학 미학 과학의 정신을 두루 보여준다.

나. 목조 건축의 현판 의미

한옥 건축물은 거주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상하서열이 존재한다. 건물 현판에 걸린 명칭에 따라 중요도의 순위가 정해져 있다. 전(殿)-당(堂)-합(閣)-각(閣)-재(齋)-軒(軒)-루(樓)-정(亭)의 순서이다. 이 서열을 누가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전라남도 가사문학의 본고장 담양 쪽으로 가보면 온돌방, 마루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환벽당)-각(광풍각)-헌(명옥헌)-정(식영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우리 한옥의 현판에는 보궁(寶宮), 정사(精舍), 대(臺), 사(舍) 등도 있다.



(1) 전(殿)

전(殿)은 가장 격이 높은 건물로 규모고 크고 각종 품위있는 장식도 첨가된다.

- 궁궐- 왕, 왕비, 왕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 근정전 인정전 강녕전 자경전
- 사찰- 부처 혹은 보살: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지장전
- 성균관, 향교- 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 대성전

(2) 당(堂)

당(堂)은 전보다 한 단계 낮은 건물로 세자 영의정 스님 등의 처소이다.

- 궁궐- 자선당, 회정당, 영화당. 사찰- 심검당, 적묵당, 설선당
- 서원- 전교당, 입교당, 구인당. 성균당 향교- 명륜당
- 사대부 민가- 양진당, 충효당, 계서당

(3) 합(閣)

합(閣)은 안채 여인네들의 거처이다. 곤녕합은 1895년 10월8일 조선의 국모 명성왕후가 일본의 낭인들에게 시해당한 비운의 장소이다.

- 궁궐- 곤녕합, 정시합(경복궁 건청궁 내)

(4) 각(閣)

각(閣)은 궁궐, 서원의 서적 보관 장소이다. 사찰의 신들을 모신 건물이다.

- 궁궐- 규장각, 검거각. 사찰- 산신각, 칠성각, 삼성각, 용왕각
- 성균관, 향교, 서원- 장서각, 장판각. 조선 왕릉- 정자각, 비각
- 민가(별서정원)- 광풍각

(5) 재(齋)

재(齋)는 학문 연마나 독서, 사색을 하는 건물의 명칭이다.

- 궁궐- 낙선재, 수강재. 서원- 동재, 서재.

(6) 헌(軒)

헌(軒)은 재와 용도가 비슷하다. 대청마루가 발달된 것이 특징이다.

- 살림집 성격인 당(堂)의 형식을 갖춘 곳: 강릉 오죽헌, 낙선재 석복헌
- 정(亭)의 성격을 갖는 특별한 용도의 건물: 화성행궁의 낙남헌, 정관헌
- 지방 수령의 공무를 보는 건물: 동헌(東軒)

(7) 루(樓)

루(樓)는 마루를 설치한 건물로 성곽에서는 문루를 세우며, 사찰의 의식 공간, 서원이나 향교의 풍류나 접객을 위한 공간이다.

- 궁궐- 경회루, 주합루. 사찰- 안양루, 만세루, 강선루.
 객사 건축- 영남루, 죽서루, 축서루. 서원- 만대루, 수월루, 무변루.

(8) 정(亭)

정(亭)은 자연경관을 감상하거나 휴식 목적의 작은 공간이다.

- 계곡의 정자- 합천 홍류동, 괴산 전유동 계곡- 농월정, 군자정, 농산정
- 강호, 해안의 정자- 관동 8경: 총석정 청간정 망양정 월송정
- 별서정원의 정자- 담당 소쇄원, 보길도 부용동 정원: 세연정 식영정 송강정
- 수원 화성- 방화수류정

(9) 보궁(寶宮), 정사(精舍), 대(臺), 사(舍)

보궁(寶宮)은 불교 용어이다. 적멸보궁(寂滅寶宮)은 사찰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므로 불상을 모시지 않는 법당이다.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은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상원사 중대,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 영축산 통도사이다. 정사(精舍)는 학문을 연마하는 장소로서 정자 형태와 유사하지만 정사는 장기체류가 어려운 반면 정사는 숙식이 가능한 시설을 갖춰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대(臺)는 깎아지른 듯 한 절벽 모양의 자연지형을 일컫는 지형학 용어이다. 이곳에 정자를 지어 필운대(弼雲臺)는 백사 이항복의 집터였고, 봉황을 기다리는 집이란 뜻을 지닌 대봉(待鳳臺)은 담양 소쇄원 입구의 정자이며 동해 일출 광경의 백미로 꼽히는 장소가 낙산의 의상대(義湘臺)이다. 사(舍)는 규모가 작은 집으로 건물 자체의 신분은 낮다. 서원의 제반 업무를 관리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건물인 고직사(庫直舍)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 목조 건물의 구성 및 의미

(1) 목조 건축의 규모: 칸(間)

목조 건축에서 건물의 규모를 말할 때 ‘몇 칸(間) 집이다’ 라는 말을 한다. 이 때 ‘한 칸’ 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칸’ 은 건물의 평면구성을 파악하고 건물의 길이와 면적을 측정하는 기본단위이다. 즉 기둥 사이를 칸이라 부를 때 이 때 ‘칸’ 은 길이의 개념이다. 그러나 몇 칸 집이라 할 때 ‘칸’ 은 면적의 개념이다. 우리가 흔히 몇 칸 집이라 할 때는 정면 칸에다 측면 칸 수를 곱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정면 5칸, 측면 3칸일 경우 15칸 집이라 부르는 것이 전통적인 표현 기법이다. 흔히 아흔아홉 칸이라고 할 때 방이 아흔아홉 개가 아니라 집의 칸수가 아흔아홉이란 뜻이다.

(2) 배흘림기둥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놀랍다. 기둥들은 집의 크기에 따라 멀리서 보면

착시(錯視)현상을 유발한다. 가까이서 보았을 때와 멀리서 보았을 때 눈으로 느껴지는 차이가 생겨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둥에 흘림을 준다. 이 흘림을 주지 않으면 기둥의 중간이 훌쭉해 보이게 된다. 이 흘림기법을 사용한 기둥을 배흘림기둥이라고 한다. 고도로 숙달된 장인의 솜씨를 요구한다. 기둥의 밑 부분에서 1/3 지점이 가장 굵다. 각 기둥에 쓰이는 흘림기법은 ‘민흘림’ 이라 하며 아랫부분이 가장 굵고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가늘게 되는 특징이다. 배흘림기둥의 대표적인 건물은 부석사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 그리고 강릉 객사문 등이 있다.

(3) 공포(栱包)

공포(栱包)란 목조 건축물에서 기둥위에 얹혀지는 부재이다. 건물 천장을 높여주고 길게 뻗어 나온 서까래 상부의 처마하중을 이상적으로 받아 그 무게를 기둥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공포의 종류에는 주심포 다포 그리고 익공양식이 있다. 봉정사의 4개 건물(극락전-대웅전-화엄강당-고금당)은 전문적인 용어로 주심포계-다포계-익공계의 전형적인 구조형식을 가진 건물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즉 극락전 대웅전 화엄강당 그리고 고금당에 있는 공포를 통해서 고려 말부터 조선중기까지 건축양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4. 天文學을 통한 國家 正統性 確立과 文化財 發達

가. 천문학의 의의

하늘의 운행 법칙을 우리 조상들은 잘 이해하고 적용한 우수한 나라였다. 하늘이 열린 날인 개천절(開天節)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애국가에서도 하늘이 보호를 청할 만큼 하늘사랑이 남다르다. 선조들은 과학적으로 하늘을

관측하여 많은 기록과 유물을 문화재 유형으로 후세에 남겼다. 즉 천문학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입증되고 있다. 농경을 시작한 우리 선조들은 해와 달의 움직임 그리고 별자리 분석의 심층 연구를 하였다. 또한 천체를 연구하여 국가 대 계획인 조선의 달력을 만들어 24절기와 농사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기적을 이루어 조선 왕권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는 조선왕조 500년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다.

나. 첨성대 이야기

세계문화유산(世界文化遺産)인 고분벽화를 이 땅에 물려준 고구려에 이어 신라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대인 첨성대(국보 제31호)를 남겼다.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 재위시에 세운 것으로 몸체 곡선이 매우 아름답다. 몸통부는 27층으로 구성되어 달의 주기(27.3)에 맞추었다. 몸통을 쌓은 돌은 1년의 날 수를, 몸통부 중간에 있는 창을 기준으로 아래, 위가 12단으로 나뉘어지는 데 이는 1년 12달과 24절기를 의미한다. 정자석의 두 모서리는 동지 일출과 정확히 일치한다. 관측대의 구조가 동지를 나타내도록 설계됨은 첨성대 몸통부 하부 6단이 동지에서 춘분까지 각 절기의 날 수와 맞다는 사실이다.

몸통부의 아래쪽 여섯 층을 이루고 있는 돌의 숫자는 각16,15,15,16,16,15개이다. 이는 동지-소한, 소한-대한, 대한-입춘, 입춘-우수, 우수-경칩, 경칩-춘분 사이의 날수와 일치한다. 창문은 정남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틀어지게 설계되었다. 이는 춘분과 추분 때 광선이 첨성대 밑바닥까지 완전히 비치고, 하지와 동지에는 광선이 완전히 사라져 춘하추동을 나누는 분점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첨성대에서 바라본 신라의 밤하늘은 별자리가 변해도 북쪽의 북두칠성은 결코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모든 계절에 북극성 주위를 회전하

는 북두칠성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첨성대가 있는 그 자리이다.

다. 10,000원권 지폐에 담긴 하늘

현행 1만원권 지폐를 보면 전면에 세종대왕 초상을 배경으로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와 용비어천가, 그리고 뒷면에 ‘천상열차분야지도’ 라는 천문도를 배경으로 ‘혼천시계’ 보현산 천문대의 1.8m ‘광학천체망원경’ 이 그려져 있다. 전면의 임금 초상과 일월오봉도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왕의 존재를 상징한다면 뒷면은 수준높은 한국 천문학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월오봉도는 왕실에서 사용하는 궁중회화이다. 중국, 일본에서는 없는 조선의 독창적인 회화이며 병풍형태로 제작되면 일월오봉병이라 한다. 해와 달, 다섯 산 봉우리, 4그루 소나무, 한 쌍의 폭포, 님실거리는 파도가 좌우대칭으로 묘사된다. 이 그림은 가로 3등분한 구성으로 임금이 좌정했을 때 비로소 이 그림은 완성형이라는 놀라운 참여형 미술형태로 이 작품은 임금이 거처하는 곳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창경궁의 명정전에 가면 실물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태조(4년)에 돌에 새긴 계에서 2번째 오래된 천문도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국가를 정비하기 전에 천문도 제작을 서둘렀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늘의 명을 받아 새 나라를 세웠다는 명분과 새 왕조 출현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통치수단으로 천문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늘의 별자리를 12차와 분야에 맞추어 차례로 배열한 천문도이다. 맨 위에 해와 달에 대한 기록이 있고 가운데에는 1,467개의 별이 4개의 큰 원안에 표시되어 있다. 원의 중심에는 북극성이 있고 바깥쪽에 작은 원이 있으며, 큰 원과 작은 원 사이에 적도(赤道)와 황도(黃道)가 그려져 있



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관측 연대 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라는 것이다. 조선의 별자리를 관측한 장소의 위도를 계산해 보니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위도 38도로 확인되었다.

라. 世宗大王과 세계 최고 天文學者 이순지(李純之)

세종대왕은 과학자로 장영실, 이천 등을 언급하지만 천문학 분야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이순지였다. 서양은 천문학자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등이 있다. 이들보다 최소 200년전 15세기에 이미 우리의 선조들은 지동설을 주장했고 일식, 월식을 정확히 관측할 수 있었으며, 우리 지형에 맞는 달력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중심에 이순지 천문학자가 있었다.

일식(日蝕)이란 태양이 달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이다. 예전에는 일식은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해는 왕을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해가 빛을 잃었다함은 하늘이 왕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했다. 조선시대에 일식을 관장하는 ‘술자’ 라는 벼슬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첫 번째 기사는 ‘술자’ 인 이천봉이 일식시간을 1각(15분) 앞당겨 예보한 죄로 곤장을 맞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순지는 일식, 월식을 미리 계산해 내는 ‘교식추보법’ 책을 저술했고, 이미 갈릴레오보다 200년 전에 지동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세종대왕은 그의 실력을 인정하여 과학정책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의 첫 번째 임무가 우리 실정에 맞는 달력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그는 혼신의 힘으로 국가 대 프로젝트인 조선의 달력을 완성하여 이 달력에서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1447년(세종 29년) 음력 8월1일 오후 4시 50분 27초에 일식(태양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이 시작될 것이며, 그날 오후 6시 55분 53초에 끝날 것이다. 조선시대 천문학자 이순지의 기록은 570년이 지난 현대 물리

학의 계산과 단 1초 차이로 우수한 창의력의 신화였다. 세종대왕은 달력의 이름을 칠정력이라고 붙여 주었다. 세계에서 3번째로 일식을 예측할 수 있는 천문학의 선두주자의 나라로 국격이 상승하는 순간이었다.

마. 고구려 고분벽화

2004년 7월1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제 2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북한 소재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현재 남아있는 벽화 고분은 국내성 30점, 평양부근 75점 내외, 이 가운데 별자리 그림이 나타나는 것은 25점 내외이다. 고구려인들이 고분벽화를 통해 그들의 하늘에 대한 생각을 온 세상에 포효하는 것 같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별자리는 해와 달 그리고 북두칠성이다. 고구려인들은 하늘의 가족이었다. 고구려인들에게 해와 달은 고구려의 정체성과 연관된 천체(天體)였다.

주몽의 외할아버지인 하백은 태양의 광명이란 뜻으로 태양신을 뜻하며, 아버지인 해모수의 해(解) 또한 해와 통한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삼족오는 고대신화에서 태양안에서 산다는 세 발이 달린 상상의 까마귀이다. 이처럼 해는 고구려의 건국신화에 등장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다.

고분벽화에 그려진 해와 달을 관찰해보면 일정한 유형이 나타난다. 해는 항상 동쪽에, 달은 서쪽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벽화의 천장에 있는 해와 달은 각각 동과 서를 나타내는 방위 표시이기도 했다. 해와 달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별자리는 북두칠성이다. 예전 우리 어머님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북쪽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올렸을 때 그 대상이 된 별도 북두칠성이다. 북두칠성은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의 숭배대상이 되고 있다.

고구려 별자리의 독창성에 주목해야 한다. 고구려 벽화속에 그려진 별의



크기가 현대 천문학의 관측 결과 밝혀진 실제 크기와 유사하게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바. 고인돌 유적과 하늘

2000년에는 형식의 다양성으로 인해 한반도의 고인돌 유적 3곳이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은 2000년 12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하다. 이 유적으로 우리 민족의 뿌리인 단군의 존재가 단순한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중반에 개정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개정 내용

2006년 판	2007년 판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기원전 2333년)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기원전 2333년)

고조선(古朝鮮)이 하나의 국가로서 성립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 흔적이다. 별자리에 대한 지식은 오늘날 군사상 1급 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이 관찰해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급 체제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별자리 분석의 증거가 되는 고인돌은 대개 북한에서 발견되었다. 고인돌은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중의 하나이며, 전 세계 고인돌 수의 40%인 3만 5천여기가 남한에 밀집돼 있고, 북한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곳에서도 2만기 이상의 고인돌이 분포해 있다고 한다.

■ 별자리가 보이는 고구려 고분벽화

번호	고분명	위치	조성 시기	특징
1	덕흥리고분	평안남도 남포시	408년	가장 많은 별자리가 있는 고분. 태양(삼족오), 달(두꺼비), 북두칠성, 견우와 직녀(은하수) W자형 별자리
2	약수리고분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5세기 전반	해와 달, 북두칠성, 사신도(최초 정립)
3	각저총	중국 길림성 집안시	5세기 전반	해(삼족오) 달(두꺼비), 북두칠성, 남두육성
4	무용총	중국 길림성 집안시	5세기 전반	해와 달, 청룡, 백호, 28수의 별자리
5	장천1호분	중국 길림성 집안시	5세기 중-후반	해(삼족오), 달(두꺼비, 옥토끼) 북두칠성, 남두육성
6	덕화리 1,2호분	평안남도 대동군 덕화리	6세기 전반	해(삼족오), 달, 사신도, 북두칠성
7	개마총	평양시 심석구역	6세기 전반	해와 달(토끼와 두꺼비), 사신도
8	통구사신총	중국 길림성 집안시	6세기 후반	일상, 월상, 사신도
9	오회분 4호묘	중국 길림성 집안시	6세기후반, 7세기전반	해(삼족오), 달(두꺼비), 황룡
10	강서대묘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6세기후반, 7세기전반	사신도, 황룡
11	강서중묘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6세기후반, 7세기전반	사신도, 해와 달



5. 韓國 精神文化의 東洋 宇宙觀

한국의 띠 문화는 문화의 복합체로서 과학기술의 발달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황금돼지의 해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우리 문화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방인 취급하는 주된 원인은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종교적 이유 혹은 미신으로 치부하면서 외면했기 때문이다. 동양의 우주관인 천간(天干), 지지(地支), 음양오행(陰陽五行), 그리고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사상들은 우리 선조들이 바라본 우주관의 복합체인 것이다.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중,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 원리를 증명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동양의 사유세계를 지배하는 천간, 지지, 음양오행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을 하나씩 익혀나가 우리 문화재를 이해하는 밑거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가. 10천간(天干), 12 지지(地支)

기해(己亥) 기미(己未) 갑자(甲子) 을축(乙丑) 등 어떤 해에 붙이는 한자 이름을 간지(干支)라고 한다. 간지는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를 합해 이르는 말이다. 천간은 하늘을 상징하는 부호를, 지지는 땅을 상징하는 부호이다. 같은 간지가 돌아오는 데에는 60년이 걸린다. 그래서 간지를 육십갑자 혹은 육갑이라고 한다. 자기가 태어난 해와 60년 후의 간지가 같기 때문에 61번째 생일을 환갑(還甲) 혹은 회갑(回甲)이라 부르고 축하를 한다.

우리 문화유산을 이해하는데 필수 요건 중 하나가 띠 개념이다. 이를 한자어로 지(支)라고 부른다. 모두 12마리의 동물로 구성된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를 말한다.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가 된다. 이 12마리 동물을 십이지(十二支)라 부른다. 십이지의 순서가 동물의 발톱에 의하여 정해졌다. 동물의 발톱으로 음양을 구분한다. 1,3,5,7,9,11에 해당되는 동물의 발톱은 양수인 홀수이고, 2,4,6,8,10,12에 해당되는 동물의 발톱은 음수인 짝수라는 사실이다.

십이지(十二支)는 우리의 문화재속에 스며들어 시각과 방위신 역할을 한다.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를 자시(子時)라 부르며 방위는 북쪽이다. 새벽 1시에서 3시까지를 축시(丑時)라고 부르며 방위는 북동쪽이다. 그 이후 2시간 단위로 연결시키면 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오시(午

時)라고 부르며 방위는 남쪽이다. 오시 가운데 12시는 한가운데 있는 오시
이므로 바를 정(正)자를 사용해서 정오(正午)라 부른다.

■ 천간(天干), 지지(地支)의 통계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천간	甲갑	乙을	丙병	丁정	戊무	己기	庚경	辛신	壬임	癸계	甲갑	乙을
숫자	4	5	6	7	8	9	0	1	2	3	4	5
지지	午오	未미	申신	酉유	戌술	亥해	子자	丑축	寅인	卯묘	辰진	巳사
동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색깔	푸른색		붉은색		노랑색		흰색		검은색		푸른색	

■ 십이지(十二支) 순서

홀짝	동물	발가락 수
1	쥐	4(앞), 5(뒤)
2	소	4
3	호랑이	5
4	토끼	4
5	용	5
6	뱀	2(헛바닥)
7	말	1(3)
8	양	4
9	원숭이	5
10	닭	4
11	개	5
12	돼지	4

나. 음양오행(陰陽五行)

동양(東洋)의 우주관에서 천간(天干)은 10글자, 지지(地支)는 12글자, 갑자(甲子)는 60글자로 되어있다. 서양의 아라비아 숫자는 발음은 다르지만 모양은 전 세계가 동일하다. 컴퓨터는 1과 0의 2진법으로 10진법의 사람과



대화를 한다. 음양오행(陰陽五行)은 2기운과 5가지 본성으로 되어있다. 옛날 사람들은 숫자 1은 남자를 뜻하고 2는 여자를 뜻한다고 생각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숫자 1과 2를 합한 숫자 3은 생명의 탄생을 뜻하는 완전한 수로 여겨졌다. 세상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완벽해진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이런 짝이 음과 양이다. 음과 양이 2글자에 기초를 하듯 숫자의 내용 구성은 동양 고전의 바탕이다.

■ 음양 조건표(陰陽 早見表)

음(陰)		양(陽)	
지(地), 월(月)	땅, 달	천(天), 일(日)	하늘, 해
여(女),	여자	남(男)	남자
우(右), 우수(偶數)	오른쪽, 짝수	좌(左), 기수(奇數)	왼쪽, 홀수
수(水), 사(死)	물, 죽다	화(火), 생(生)	불, 살다
집(集), 정(靜)	모임, 고요함	산(散), 동(動)	흩어짐, 움직임

음양오행(陰陽五行)은 우주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이다. 해와 달의 운행이 음양오행이고 인간이 태어나 죽는 과정이 음양오행이다. 현대과학은 동양 철학의 근본인 음양오행의 사상으로 컴퓨터 공학, 물리학, 화학에 응용하고 있다.

음과 양은 순환적으로 음속에 양이, 양속에 음의 성질이 포함되어있고, 목-화-토-금-수라는 오행(五行)을 탄생시켰다. 숫자 1과 2를 합한 숫자 3은 생명의 탄생을 뜻하는 완전한 수로 여겨졌다. 세상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완벽해진다. 자연이 음과 양의 두 숫자에 기초를 하듯, 사자성어(四字成語)를 비롯한 모든 동양 고전은 숫자에 기반을 두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고 의미를 간단하게 집약하여 지혜와 교훈을 주는 글이다.

■ 비빔밥의 음양오행 원리

비빔밥의 재료를 보면 동양의 전통사상인 오행(五行) ‘목 화 토 금 수’가 포함된다. 목(木)은 시금치를 비롯한 녹색 나물로 목을 상징하는 색이다. 화(火)는 붉은 색의 고추장이 있다. 토(土)는 누런 황색의 계란이다. 금(金)은 서쪽과 금을 상징하는 흰색의 쌀밥이다. 수(水)는 검정색의 참기름이다. 비빔밥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음식이지만 음양오행으로 해석하면 완벽에 가까운 음식이다. 우리 선조들은 음수보다 양수를 상서로운 수로 생각했다. 양은 살아서 생동하는 생명력을, 음은 수동적이고 정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양수가 두 번 겹친 설날(1. 1), 삼짇날(3. 3), 단오(5. 5), 칠석(7. 7)을 특별한 명절로 꼽았다. 특히 5월5일 단오는 일년 중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서 비빔밥을 먹으면 몸에 매우 좋다.

다. 천원지방(天圓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는 천원지방(天圓地方) 사상이다. 이는 하늘은 원만하고 땅은 방정하다. 하늘의 정신은 원만하여 모든 것을 포용한다. 우주 만유가 전부 하늘에서 나왔다. 그것을 원(圓)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단은 둥글게 쌓았다. 땅의 정신은 방정하다. 즉 반듯하다. 그러므로 땅에 제사를 지낼 때 네모반듯하게 단을 쌓았다.

천원지방의 원리는 우리 한글의 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글의 모음 글자의 3 가지 기본자가 '●', '—', '|'이다. ●는 하늘의 둥근 모양, —는 땅의 평평한 모양, |는 사람의 서 있는 모양이다. 즉 하늘과 땅이 늘 순환과 교류의 과정을 통한 교감을 함으로써 만물이 생성되고 그 만물 가운데 사람이 으뜸이라는 삼재(三才)사상을 반영하여 한글 모음은 소리를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독특한 우주론적 원리도 내포하고 있는 위대한 세계기록문화유산(文化遺産)으로 각인되고 있다.



천원지방의 원리가 적용된 조형물은 환구단(圜丘壇)과 사직단(社稷壇)이 있다. 환구단은 천자(天子)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단으로 둥글게 설치했다. 사직단의 사(社조)는 토지의 신을, 직(稷선)은 곡식의 신을 의미하며 이들에게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사직단이다.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조형물인 사직단을 정사각형으로 설치했다는 것은 동양의 우주관에서 음양론에 근거하여 천지를 인식하는 기본틀인 천원지방 사상을 따랐기 때문이다.

인간은 소우주(小宇宙)였다. 소우주인 인간이 거주하는 집에도 당연히 우주의 원리가 건축물속에 숨어있다. 그것이 기둥이다. 기둥의 모양에는 원기둥과 네모기둥이 있다. 원기둥은 하늘의 기운을 상징하여 주로 공적인 건물에 사용되며, 네모난 각기둥은 사적인 공간인 침전이나 일반 민가에서 사용했다. 궁궐에 왕의 집무공간인 정전(正殿)인 근정전(勤政殿), 편전(便殿)인 사정전(思政殿)은 둥근 기둥인 반면 침전인 강녕전(康寧殿), 교태전(交泰殿)은 사각기둥으로 되어있다. 이렇듯 어느 하나 소홀하게 다룬 것이 없는 것이 우리 문화재(文化財)이다.

6. 文化財 風水 理論

전통지리학(傳統地理學)인 풍수(風水)에서 땅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정한다. 즉 땅은 인간이 개발하고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땅 위에서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땅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이는 외면한 채, 풍수를 학문으로 배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미신이라고 매도하는 우리의 자세는 문제가 있다. 풍수에서는 땅이 살아 움직인다고 가르친다. 땅이 살아 숨을 쉬고 그 위에서 인간도 목숨을 이어간다. 사실 땅과 인간은 하나인 것이다. 땅이 죽으면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인간의 목숨은 유한하지만 땅의 생명력은 영원하다.

이런 점에서 땅의 이치를 탐구하는 풍수는 서양학문에서 중시하는 과학을 뛰어넘는 초 과학적 학문이며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귀중한 문화유산(文化遺産)이다.

가. 풍수 : 바람 풍(風), 물 수(水)

풍수(風水)는 장풍득수(藏風得水)로서 바람을 저장하고 물을 얻는 일이다. 우리 선조들은 바람을 막아주고 물이 있는 장소가 인간이 살기에 좋은 터라고 보았다. 장풍득수를 하려면 배산임수(背山臨水)를 하면 된다. 즉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서는 물을 얻는다는 원리이다. 여기에 추가해서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좌우로 청룡과 백호에 해당하는 산이 있으면 더 아늑한 장소가 된다. 이처럼 배산임수와 좌청룡, 우백호의 지세(地勢)를 따지는 것이 전통적인 풍수이다. 성리학(性理學)을 바탕으로 건국한 조선은 풍수가 당당한 학문으로 자리잡고 500년 조선왕조와 그 맥을 같이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풍수지리설의 근거로 조성된 조선왕릉 40기가 2009년 6월27일 스페인 열정의 도시 세비야에서 개최된 제 3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대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지식을 사랑하는 서구사회에서도 현대 과학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신과학운동(new science movement), 자연과의 조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동양사상에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풍수(風水)의 유형(類型)

(1) 한국의 자생 풍수: 형국론(形局論)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70%가 산이다. 이러한 산악풍토가 한국의 고유한 풍수 형국론을 만들었다. 산의 모양을 보고, 소가 누워있는 모습, 봉황이 날아 들어오는 모습, 호랑이를 닮은 모습 등 산의 모양을 인간이나 동식물



형상에 비교하는 것이 형국론이다. 경북 봉화에 지림사(智林寺)에 봉화북지리마애여래좌상(국보 제201호)이 있다. 지림사와 마애불상에는 풍수가 있다. 절이 있는 뒷산은 호골산(虎骨山), 즉 호랑이 형국을 하고 있다. 호랑이 머리 형상 앞으로 강이 흐르고, 강 건너편의 지형은 개의 형상을 닮았다고 전해온다. 실제로 강 건너편 지역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호랑이 기세를 꺾기위해 절을 건립하고 불상을 호랑이 꼬리부분에 조성하였다. 호랑이 꼬리가 늘리면 힘을 쓰지 못하는 동물이다. 봉화북지리마애여래좌상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2) 중국에서 들어온 풍수 이론

(가) 간룡법(看龍法)

용(龍)의 모습을 본다는 의미이다. 풍수에서는 산줄기를 용으로 인식한다. 땅의 기운이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관찰하는 것이 간룡법이다. 경남 밀양시 중심가에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인 영남루(嶺南樓)가 있다. 밀양강이 보이는 지점의 가장자리에 서서 좌측으로 눈을 돌려보면 일자봉(산 봉우리)에서 내려오는 산줄기의 끝 지점이 용두목(龍頭目)이다. 즉 용의 머리 부분이다. 이 용이 밀양강에서 물을 마시는 형국이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그들은 밀양의 정기를 끊기 위해 이 산을 이용했다. 밀양강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용의 목 부분에 철길을 놓아 잘라 버렸다.

세(勢) → 형(形) → 혈(穴)
태(胎) 식(息) 잉(孕) 육(育)

큰 맥락에서 ‘세-형-혈’ 로 이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형’ 에서 ‘혈 처’ 로 들어가는 데 4단계가 있어 태-식-잉-육이다. 세산(勢山), 형산(形山) 혈처(穴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자리로서 강한 산줄기의 생기(生氣) 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형산에서 혈자리로 들어가는 기운을 산모의 출산 과정에 비유한다. 태는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사람의 형태를 만드는 순간이다. 식은 자궁 속에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다. 잉은 산모의 몸에서 아기가 나오는 순간이다. 육은 태어난 아기를 양육한다는 뜻이다.

(나) 장풍법(藏風法)

장풍이란 바람을 감춘다는 뜻인데 외부의 바람을 막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부의 바람으로 혈(구멍)에서 분출되는 생기(生氣)이다. 장풍법이란 혈자리 주변 산들을 관찰하는 단계를 말한다. 풍수지리로 자세(地勢)를 살필 때 전후좌우에 네 개의 산인 사신사(四神砂) 이론은 장풍법에서 유래되었다. 사신사는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등 4종류의 산을 말한다. 사신사의 기능은 혈에 생기(生氣)를 만드는 것이다.

좌청룡은 꿈틀거리면서 명당을 돌아돌 듯 감싸 안아야 한다. 우백호의 호랑이는 모두 걸터앉아 서로 영접하는 듯 해야 한다. 전주작은 앞의 산이 명당을 향하여 모여드는 듯 하니 그 기세가 마치 상무(맑고 명랑한 모습의 춤)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후현무는 주산을 일컬음인데 머리를 드리운다는 것은 머문다는 것이니 멈출 곳을 정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청룡은 꿈틀거릴수록 좋고, 호랑이는 엎드려 있어야 좋으며, 앞산은 주작이 춤을 추듯 날아오는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 후현무는 거북이 머리처럼 숙여야 좋다는 내용이다.



(다) 득수법(得水法)

득수는 물을 얻는다는 말이다. 지맥(地脈)은 물을 만나면 그 흐름을 멈추게 된다. 문화재 현장에 가면 항상 물이 있었고 다리를 건넜다. 그 이유는 기승풍즉산 계수즉지(氣乘風則散, 界水則止), 산줄기를 타고 내려온 땅기운은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줄기를 만나면 멈추는 특성 때문이다. 근정전(勤政殿)에 도달한 생기는 더 이상 광화문인 육조거리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생기를 멈추게하는 장치가 필요했다. 물줄기는 땅기운을 막아주는 일종의 바리케이드다. 이런 역할을 담당할 것이 경복궁의 영제고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이다. 이런 경우 물줄기를 우리는 명당수(明堂水)라 부른다.

(라) 정혈법(定穴法)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자리를 찾는 것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곳의 중심 건물은 거의 혈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혈자리 혹은 명당터에서 오래 머무는 것은 좋은 보약 한 첩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다. 혈자리와 명당의 차이는 무엇인가? 혈자리(穴處)는 오직 한 곳에만 존재한다. 궁궐의 정전, 사찰의 중심 전각, 왕릉의 봉분 같은 곳이 혈자리이다. 그러나 명당(明堂)이라는 말은 혈자리 앞에 있는 넓은 마당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궁궐의 정전 앞마당을 조정이라 부르는데 그곳이 명당터이다.

(마) 좌향론(坐向論)

형국론, 형세론으로 혈자리를 정했다면 그 터에서 방향을 정하는 마지막 단계가 좌향론이다. 좌향은 陽氣(햇볕 공기 온도)를 취하고 혈이 맺힌 혈장의 모양에 알맞게 陰氣(양분 물 온도)를 최대한도로 공기감응(同氣感應)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는 양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복록(福祿)과 재물(財物)의 생기(生氣)를 취할 수 있는 선택된 방위를 말한다.

한편 앞에 보이는 산에 살기(殺氣)를 띠는 드센 바위들이 시야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방향을 회피하려고 했다. 나무를 심거나 담을 쳐서 가리는 수법을 활용했는데 이를 “불견(不見)처리”라고 하였다. 산살(山殺)은 바위들이 돌출되어 있는 형상의 풍수용어이다. 경치가 빼어나 관광자원으로 손색은 없는 데 풍수에서 산살은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다.

다. 풍수와 환경심리학(環境心理學)

봉황은 어질고 현명한 성인(聖人)과 함께 세상에 나타난다는 성스런 전설의 새이다. 수컷은 봉(鳳)이라 하고, 암컷은 황(凰)이라고 한다. 오동나무에 살면서 감천(甘泉)의 물을 마시고 대나무 열매를 먹과 산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이 봉황과 늘 함께 하길 원했다. 봉황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려면 봉황의 먹이가 되는 대나무가 풍부해야 한다.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다. 이는 오동나무와 봉황과의 관계가 깊음을 나타낸 말이다. 따라서 봉황이란 지명이 있는 곳에 오동나무와 관련된 지명이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강원도 횡성군에는 봉복사(鳳腹寺)가 있다. 덕고산 아래에 대한불교 조계종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 절이다. 봉복사가 한자 그대로 봉황의 배 부분에 해당된다. 설악산 봉정암(鳳頂庵)은 봉황의 정수리 부분, 여주 봉미산에 있는 신흥사는 봉황의 기운으로 뻗어있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중부지방 일대가 날개 펼친 한 마리 봉황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유쾌한 일인가? 안동 봉정사, 가야산 해인사의 봉황문, 대구 팔공산 동화사 봉서루, 담양 소쇄원의 대봉대가 있다. 안동 봉정사는 천년 고찰이다. 지난 1999년 4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하였고 최근 한국의 세계유



산에 잠정목록사찰로 등재되어 더욱 소중한 사찰이기도 하다. 봉정사(鳳頂寺)란 봉황이 머무는 절이란 뜻의 풍수적 명칭이다. 봉황의 기운을 듬뿍 받겠다는 풍수지명이다.

7. 文化財 方向의 學習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정작 우리 문화재를 볼 때는 그것을 만든 우리 선조들의 시각으로 보지 못한다. 그 까닭은 한국식 교육을 받지 않고 서양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재는 그것을 만든 우리 선조들의 시각으로 볼 때 진정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

가. 왼쪽(左), 오른쪽(右)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 좌(坐)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좌란 내가 앉아 있는 자리이다. 즉 내가 중심이 된다. 내가 중심이 되어 앞을 바라보는 데 그 방향을 향(向)이라 부른다. 향할 향(向)으로 내가 앉아서 앞을 바라보는 것을 두 글자로 좌향(坐向)이라 한다. 이것이 주인시각이다. 이와는 반대로 손님시각 또는 서양인 시각으로 내 앞에 서서 나를 향해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문화재는 반드시 주인시각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는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조선을 개국한 후 수도를 한양(漢陽)으로 옮겼다. 도읍지가 정해지면 도성에 건설해야 할 것이있다. 궁궐(宮闕), 종묘(宗廟), 사직(社稷), 그리고 성곽(城郭)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물은 종묘와 사직이다. 먼저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는 궁궐의 터가 정해지면 그 터를 기준으로 종묘와 사직을 건설해야 한다. 이때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이 있다. 궁궐의 왼쪽에는 종묘를 건립하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세운다.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위치 즉 주인시각으로 봤을 때 좌측에는 문수보살, 우측에는 보현보살이 있다. 이렇듯 우리는 쌍으로 이루어진 것의 이름을 부를 때 좌측을 먼저, 우측을 나중에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좌의정-우의정도 마찬가지이다.

나. 절대향(絕對向), 상대향(相對向)

우리의 전통방위 인식에는 절대향과 상대향이 있다.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고 지는 쪽이 서쪽이라는 것이 절대향이다. 이와 반대로 주요 건물을 무조건 북쪽으로 설정하고, 전면을 남쪽으로 보는 시각이 상대향이다. 우리의 문화재 조형물은 모두 상대향을 기준으로 배치되어 있다. 좌청룡 우백호(左靑龍 右白虎)란 용어도 결국 상대향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다. 주체가 선정되면 그 주체는 무조건 북쪽이 된다. 그 주체를 중심으로 앞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은 동쪽이 되며 오른쪽이 서쪽이 된다. 우리 선조들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성리학(性理學)을 바탕으로 제례(祭禮) 의식은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가정에서 흔히 병풍을 두른 후 조상의 위패나 영정을 모신다. 위패의 위치가 선정되면 그곳이 상대향 북쪽이 된다. 그 위패를 기준으로 좌측은 동쪽, 우측은 서쪽이 된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제사를 모시는 제주(祭主)가 중심이 아니고, 제사상을 받는 신주(神主), 즉 돌아가신 조상이 중심이 되어 모든 사물을 바라본다는 사실이다.

다. 좌상우하(左上右下), 우상좌하(右上左下)

양택(陽宅)과 음택(陰宅)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의 집은 양택, 죽은 자의 집은 음택이다. 양택과 음택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의 우선순위는 정반대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 즉 양택에서는 왼쪽이 항상 오른쪽보다 서열이



높다. 이를 좌상우하(左上右下)라고 한다. 그러나 죽은 자의 공간인 음택에서는 정반대이다. 오른쪽이 왼쪽보다 서열이 높다. 즉 우상좌하(右上左下)의 원칙이 성립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바라보는 공간개념이며 우리의 전통시각이다. 왼쪽이 서열이 높다는 원칙을 적용해 보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찰, 궁궐, 서원, 사대부 가옥 등을 답사해 보면 된다. 오른쪽이 서열이 높다는 원칙을 보려면 종묘, 조선왕릉, 사당 등을 답사해보면 확연히 깨칠 수 있다.

라. 동입서출(東入西出)

동입서출(東入西出)은 동쪽을 입구로 서쪽을 출구로 삼는 출입문 양식을 말하는 용어이다.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이 서쪽으로 지는 운동성에 따라 사람의 행동도 그에 따라 움직인다는 자연동화적인 발상이다. 유교 문화의 산물인 종묘, 왕릉 그리고 서원 사당의 출입문을 드나들 때 선조들은 동입서출을 유교예제로 삼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문화재의 출입구가 삼문(三門)체제로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동입서출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8. 結論 및 示唆點

(문화재 정체성과 보존 인식의 개선 필요성)

횡성의 有形文化財는 통일신라시대(8~9세기)에 만든 중금리 삼층석탑(강원도유형문화재 제19호)과 상동리 석불좌상(강원도유형문화재 제20호)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시기상 가장 오래된 것은 둔내면 둔방내리에 있는 초기 철기시대의 주거지 유적으로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아 안타깝다. 또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면서 世界遺産(문화유산, 자연유산, 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포함)으로 40건 이상 등재된 진정한 문화강국의 대한민

국에서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보는 방법에 관한 안내서가 없다는 것이 유감이다. 소중한 문화재를 바로 알고 보존하는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한국의 문화재는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지녔던 높은 안목으로 창출한 전통 문화의 결정체이다. 그러므로 서양식 사고방식과 학문체계로 우리 문화재를 해석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우리 문화재는 우리 시각(우리 선조들의 눈높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風水도 객관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지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생각을 풍수라는 명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선호한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모두 미신을 치부하고 배척하거나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를 언급할 때 풍수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2% 부족하거나 잘못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 관련 서적이나 문화재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풍수에 대한 언급은 가뭇에 콩나듯이 피상적으로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풍수사상은 비과학적이거나, 객관성이 없다는 사실, 신비주의적 경향이 강하니, 학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말은 자제해 주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었으면 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문화재를 이야기하면서 조상들의 생각을 읽어 내겠다는 겸손한 생각이 있다면 감히 풍수사상을 그렇게 매도하지는 않았으리라 본다. 우리의 문화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과학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에 대한 배려이다.

우리 선조(先祖)들의 터잡기 원칙을 살펴보면 하늘의 법칙, 땅의 기운을 염두에 둔 터잡기를 해왔다. 문화재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험해야 한다. 문화재가 그 터를 떠나면 문화재로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재 도굴꾼들은 국가의 정체성, 선조들의 자연관을 훔치는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거의 200,000여 점에 이른다고 한다. 그 수에 비하면 우리가 지닌 문화재의 숫자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문

화민족(文化民族)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도 문화재를 보는 안목을 키울 때가 온 것이다. 이것이 문화재 공부법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널리 알려진 파르테논 신전은 기둥만 그리스 아테네에 있고 나머지 모두는 영국에 있다. 또한 고대 신비스런 미라는 본고장인 이집트에 불과 18개만 소장되어 있다. 영국에 이전된 것이 무려 312개인데 대영박물관에 다수가 있다. 놀랍게도 모든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과 인수증을 받고 영국으로 가져왔다. 결코 해적행위나 노략질의 불법 반출은 없었다. 문화재를 당당히 소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의 불법 해외 반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AD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한순간에 멸망한 폼페이 유적이 19세기에 발굴이 되어 고대 로마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지하에 무진장한 유물 유적으로 그림, 돌 나무 벽화 등 모든 것들을 발굴된 자리에 그대로 보관하여 미래에 다시 큰 유물 유적이 발굴되면 비교분석의 고증 자료로 활용하며 새로 복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남대문이 화재로 흉물이 되자 바로 현대적인 기술로 복원하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인다. 유럽권 도시의 거리 보도는 어김없이 강도 높은 네모난 돌로 깔아놓아 균열이나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 땅속에 묻혀있는 문화재 파손을 방지하는 세심한 정책이 있었다. 로마 도시 건물과 특히 영국 국회의사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명성을 떨치는 바 2차 대전 중 히틀러가 그 지역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였다.

백범(白凡) 김구(金九) 선생은 백범일지(白凡日誌)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갈파했다. 이는 문화가 국력이고 문화대국을 이상적인 국가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고(故)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이다.’ 라고 피력했다.

21세기는 확실한 세계화(世界化) 시대로 그 선두와 중심에 문화가 있다.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상식이다. 우리 문화가 배제된 세계화는 모두 허상이며 가짜이다. 우리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깔려야 한다. 국방 경제 환경 어느 한 분야도 소홀이 할 수 없지만 문화재 교육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들이 문화재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문화재를 공부할 수 있는 토양을 국가가 제공해주어 우리 고유의 국가(國家) 정체성(正體性)을 확립해야 한다.

참고 문헌

- 조훈철, 문화재 공부법, 문학바탕, 2015
- 김현준,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교보문고, 1993
- 박창범, 한국의 전통과학 천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 유흥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창작과 비평사, 1997
- 윤상철, 세종대왕이 만난 우리 별자리, 대유학당, 2011
- 장영훈, 왕릉이 조선의 산 역사다, 도서출판사, 2005
- 장영훈, 서울풍수, 도서출판 답디, 2005
-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1999





Ⅲ

황성사람,
황성이야기

황성에서 보는 새



한상균

I. 들어가는 말

작년 12월부터 3개월은 가장 행복한 때였다.

왜냐하면 백조라고 하는 큰고니를 만나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음악을 흥얼거리고 발레 춤을 상상하며 아침마다 갈풍리와 남산을 찾아 큰고니를 촬영했기 때문이다.

남산리 전천에서 2019년 12월 8일 두 마리를 처음 본 후 그 수가 늘어나더니 황성을 남산리 전천과 갈풍리 섬강에서 2020년 1월 중순에 23 마리까지 관찰되다가 2월 28일 이후에는 보이지 않았다. 2월 29일 저녁 무렵 우연히 황성호(망향에 동산)에서 수천마리가 내려앉은 모습을 보았는데 아마 한국에 왔던 큰고니가 귀향하다가 하룻밤 쉬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헤엄치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웠지만 촬영 못해 아쉬웠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장비를 갖추고 황성호를 찾았지만 장관을 볼 수 없었다. 아쉽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 보며 황성에서 주로 본 새를 소개한다..

II. 황성에서 보는 새

2011년 황성문화원에서 발행한 “황성문화 통권 제 29 호” 에서 ‘황성에서 보는 새’ 라는 제목으로 10목 31과 45종의 새를 소개하였고, 2019년 발행한 통권 34호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황성에서 촬영한 5목 12과 19종을 소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그 후에 촬영한 6목 6과 8종을 소개한다.

이번 호에 설명하는 그 순서는 아래 표와 같다.

번호	분 류		내 용	비 고
	목	과		
1	기러기	오리과	사냥꾼 애를 태우는 쇠오리	
2			아름다운 백조의 호수가 떠오르는 큰고니	
3	논병아리	논병아리	새끼를 업어 기르는 논병아리	
4	두루미	뚝부기	물에 살면서 닭과 유사하게 생긴 물닭	
5			이마가 빨간 쇠물닭	
6	딱따구리	딱따구리	개미를 좋아하는 청딱따구리	
7	수리목	수리과	꼬리깃이 흰 흰꼬리수리	
8	참새목	휘파람새	개개개개 소리내는 개개비	

가. 기러기목 오리과

1. 쇠오리 - *Anas crecca* Linnaeus, 1758

〈사냥꾼 애를 태우는 쇠오리〉



1-정답게 휴식하는 쇠오리 한쌍 2020년3월14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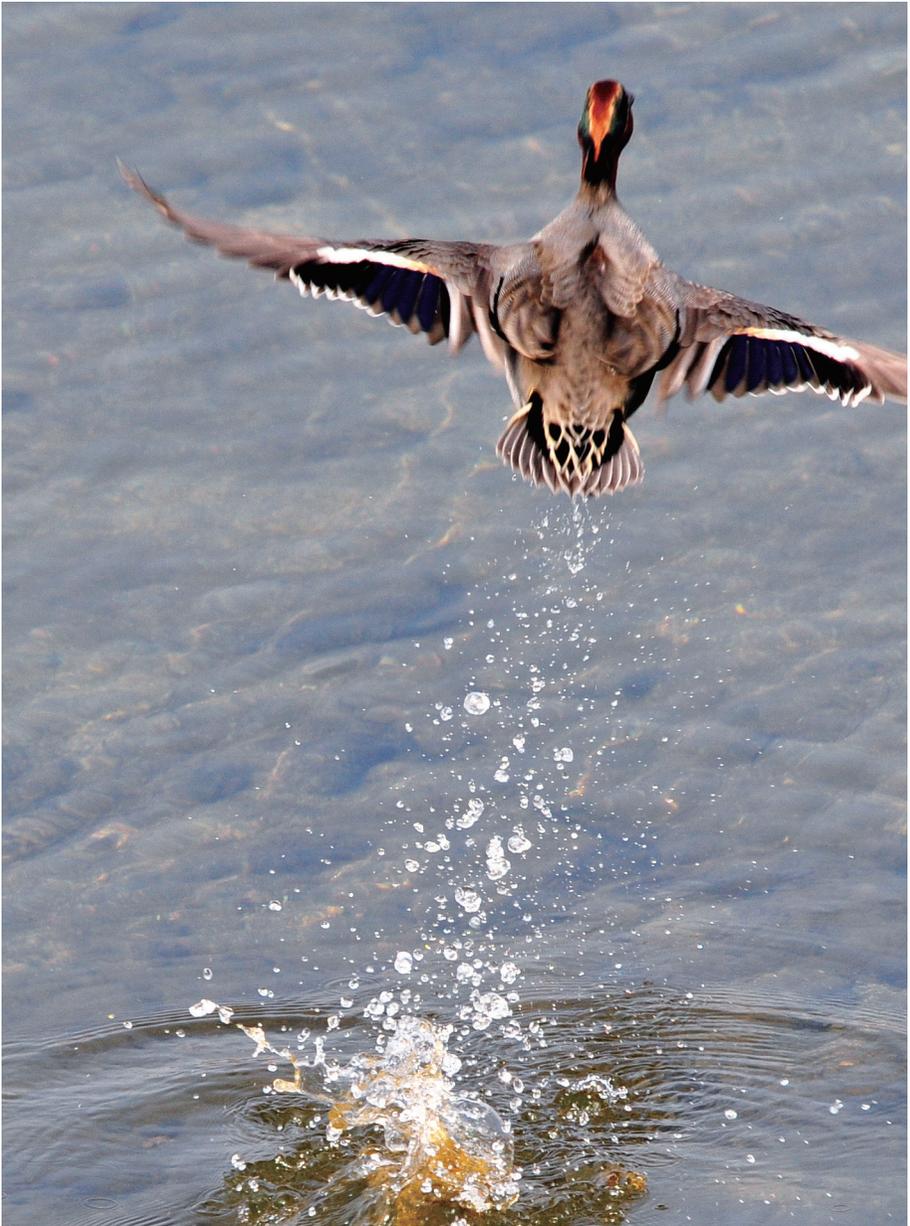




2-먹이활동하는 쇠오리 수컷(상)과 암컷(하) 2020년 3월 14일 횡성읍 남산리 전천



3-집단으로 휴식하는 쇠오리 2020년2월5일 횡성읍 남산리 전천



4-위급 상황에 날아오르는 쇠오리 2020년3월14일 횡성읍 남산리 전천



III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5. 먹이 활동하는 쇠오리 2020년2월5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2020년 2월 5일 남산리 다리 밑에서 휴식하는 무리를 처음 만나 촬영을 시작했는데, 3월 25일 이후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겨울철새로 몸길이 약 35cm의 소형 오리이다. 멀리서 보면 수컷은 얼핏 밤색 머리를 한 소형 회색오리로 보인다. 이마와 정수리·뒷머리는 붉은 갈색이고, 보랏빛 광택이 나는 짙은 녹색 선이 눈 주위에서 뒷목으로 이어진다. 아래꼬리덮깃 양쪽에는 삼각형의 크림색 얼룩점이 뚜렷하며, 날 때에는 날개의 흰색 줄무늬가 돋보인다. 암컷의 몸 빛깔은 전체적으로 얼룩진 갈색이다. 나는 속도가 빠르다. 먹이활동 하다가 갑자기 날아오르는 모습을 봤는데 무척 빨랐다. 그래서 쇠오리는 쏘아잡기가 가장 어려운 야생 오리 중의 하나인데, 몸집이 작는데다 나는 동안 재빨리 예측불가능하게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다른 오리들처럼 소리를 내서 유인하거나 미끼를 써도 반응하지 않으므로 사냥꾼들에게는 참으로 까다로운 목표물이다.

한국에서는 보통 작은 무리 단위로 겨울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이 썩은 곳이나 하천·호수·늪·하구·바다에 살면서 낮에는 호수, 바다, 간척지, 강변 등 안전한 곳에서 무리를 지어 쉬고, 밤이 되면 논밭이나 습지, 갈대밭, 냇가 등지에서 먹이를 찾는다. 얇은 못이나 좁은 물가에서 먹이를 잡기 때문에 대개 무리지어 다닌다.

물가 풀숲에 등우리를 틀고 한배에 8~10개의 알을 낳아 21~23일 동안 암컷이 품는다. 여뀌 등의 열매와 새로 돋아난 잎, 작은 연체동물, 물에 사는 무척추동물 등을 먹는다. 시베리아 등지에서 번식하고 한국, 일본, 타이완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2. 큰고니 *Cygnus cygnus* Linnaeus, 1758

〈아름다운 백조의 호수가 떠오르는 큰고니〉



1-넛물에서 큰고니 성조의 먹이활동 2020년1월3일 황성을 남산리 전천





1-넷물에서 큰고니 성조의 먹이활동 2020년1월3일 횡성읍 남산리 전천



2-먹이 활동하는 큰고니 유조 2020년1월8일 횡성읍 섬강



2-먹이 활동하는 큰고니 유조 2020년1월8일 횡성읍 섬강



3-큰고니가 날아오는 모습 2019년12월8일 횡성읍 남산리 전천





3-큰고니가 날아오는 모습 2019년12월8일 횡성읍 남산리 전천



4-넷물에 내리는 모습 2019년12월8일 횡성읍 남산리 전천



4-리더로 위엄을 보이는 모습 2019년12월8일 횡성읍 남산리 전천



5-넷가에서 먹이 활동하는 큰고니 무리 2020년1월31일 횡성읍 남산리





5-넷가에서 먹이 활동하는 큰고니 무리 2020년1월31일 황성읍 남산리



6-넷물에서 먹이 활동하는 큰고니 무리 2020년1월8일 황성읍 남산리



6-냇물에서 먹이 활동하는 큰고니 무리 2020년1월8일 황성읍 남산리



7-물속 수초를 먹는 큰고니 2020년1월30일 황성읍 섬강



8-수초뿌리를 먹는 큰고니 2020년1월5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9-수초뿌리를 먹는 큰고니 2020년1월5일 횡성읍 남산리 전천

2019년 초에 북천리 섬강둘레길에서 큰고니를 처음 보고도 촬영을 못해 아쉬웠는데 남산리 전천에서 12월 8일 두 마리를 처음 본 후 그 수가 늘어나더니 횡성읍 남산리 전천과 갈풍리 섬강에서 2020년 1월 중순에 20여 마리까지 관찰되다가 2월 28일 이후에는 보이지 않았다. 2월 29일 저녁 무렵 횡성호(망향에 동산)에서 수천마리가 내려앉아 헤엄치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마 한국에 왔던 큰고니가 다 모여 쉬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촬영 못해 아쉬웠다.

큰꼬니는 길이 약 1.5m, 펼친 날개의 길이 약 2.4m이다. 몽골에서 번식한 후 2,600km를 서해안을 따라 우리나라에 와 겨울을 난다. 무거워서 하루 종일 다리로 지탱하여 서 있기가 힘들어 넓은 공간의 호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자랄 때 더 그러하다. 큰고니는 하루의 대부분을 물에서 수영하거나 물속에서 먹이를 찾거나 물 바닥에 있는 수초를 먹거나 하며 시간을 보낸다. 지상이나 수상에서 큰 무리가 목을 수직으로 세워 앞으로 꺼덕이며, 「훗



호, 훗호」 하는 소리를 내며 걷거나 헤엄 친다. 큰고니는 큰 몸에 비해서 아주 잘 난다. 봄이 오면 수컷과 암컷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들어 올리며 큰 울음소리를 내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된다. 이것은 서로 짝을 찾기 위한 구애행동으로 대부분 짝을 맺어 번식지로 떠나게 된다. 큰고니와 고니는 가족 간에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단위를 기본으로 무리를 이루는 특징을 가진다. 5월 하순~6월 상순에 크림색 알을 3-7개 낳으며, 암컷 혼자서 알을 품어 35~42일이 지나면 부화한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 약 120~130일이 지나면 하늘을 날 수 있다. 먹이로는 주로 호수나 냇물의 수생식물의 줄기나 육지산 식물의 열매를 먹지만 수생곤충과 민물에 사는 작은 동물도 잡아먹는다. 1968년 5월 31일 천연기념물 제201-2호로 지정되었고,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수명은 약 20년이다.

나. 논병아리목 논병아리과

3. 논병아리-*Tachybaptus ruficollis Pallas 1764*

〈새끼를 업어 기르는 논병아리〉



1-먹이 활동하는 논병아리 2019년12월14일 횡성읍 섬강



2-먹이 활동하는 논병아리 2019년12월31일 황성읍 섬강

2019년 12월 14일 남산리 앞 전천에서 쉼 새 없이 먹이 사냥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몸길이 26cm로 논병아리과 가운데 가장 작은 논병아리였다. 내륙의 천, 호수, 저수지, 연못물웅덩이에서 작은 무리를 볼 수 있는데, 물 갈퀴가 달린 발로 잠수해서 물고기, 수생곤충, 연체동물, 갑각류 따위의 동물성 먹이를 잡아먹는다. 잘 날지는 못해서 천적을 피할 때도 날개를 퍼덕이면서 물 위를 달릴 뿐 날아오르지는 않는다. 가을철에 찾아오는 흔한 겨울새이다. 4~9월에 전국의 습지 및 저수지에서 번식을 한다. 보통 암수로 짝을 지어 세력권을 가진다. 둥지는 갈대, 부들 같은 풀줄기 사이에 지으며, 풀줄기 및 뿌리를 이용하여 수면 위에 뜨게 만든다. 한배에 3~6개의 알을 낳고 암수가 교대로 품는다. 알을 품는 기간은 20~25일이며, 새끼는 바로 둥지를 떠나 어미등에 업혀 먹이를 받아먹는다.

새끼가 잠수하여 먹이를 잡기위해 훈련이 필요하므로 1.5~3개월간 양육되어야 독립할 수 있다. 새끼를 업는 것은 사람이나 유인원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논병아리류도 새끼를 업어 키운다. 이렇게 새끼를 업어 키우는

이유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고,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차가운 수온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새끼들이 모두 성장하면 새끼들의 독립을 위해서 냉정하게 쫓아낸다.

다. 두루미목 뜸부기과

4. 물닭-*Fulica atra* Linnaeus, 1758

〈물에 살면서 닭과 유사하게 생긴 물닭〉



1-물닭 2019년12월14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2-물고기를 잡아먹는 물닭 2019년12월24일 횡성읍 남산리 전천



3-먹이 활동 하는 물닭 2019년12월24일 횡성읍 남산리 전천



4-물고기를 잡아먹는 물닭 2019년12월24일 횡성읍 남산리 전천

2019년 12월 14일 남산리 전천에서 까마귀처럼 새카만 물닭이 먹이 사냥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물닭의 몸길이는 약 32~42cm인데, 흰 이마판을 제외하고 대부분 검은색이다.

우리나라에 10월경에 찾아와 겨울을 나는 겨울철새이지만 일부 무리는 번식도 하는 텃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강이나 호수, 저수지에서 흔히 관찰된다. 물갈퀴와 유사한 판족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 수영과 잠



수에 능하며, 위험할 경우 수면을 박차며 물위를 뛰면서 날아간다. 겨울에는 많은 수가 오리류 등과 무리를 지어 월동한다. 강, 저수지에서 곤충, 작은 어류, 식물의 줄기 등을 먹는다.

탁탁하는 소리, 폭발음, 트럼펫 소리를 낼만큼 시끄러우며 밤에 종종 그러하다. 물닭은 개방된 물에서 헤엄치는 모습이나 물가 초지를 걷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공격적인 종으로서 짝짓기시기에 영토 주장을 심하게 하며 부모 모두 영토 방어 자세를 취한다. 짝짓기 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큰 무리를 이루는데, 이는 포식자 회피와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주는 야간에 이루어지며 놀랍게도 드넓은 지역을 날아다닌다. 물닭은 이름에서 보듯이 닭이라는 이름 앞에 물이 붙었는데 이것은 닭과 이름이 비슷한 것일 뿐, 실제 닭과는 목부터 나뉘어, 생물학적으로 가깝지는 않다.

저수지나 하천 등 습지 주변의 풀숲에서 5월에서 7월 사이에 번식을 시작한다. 둥지는 수면과 약간의 경사도가 있도록 입구를 만든다. 한배에 낳는 알의 수는 6~10개 정도이고, 암수가 교대로 21~24일간 포란한다. 부화 후 약 28일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5. 쇠물닭-*Gallinula chloropus* Linnaeus, 1758

〈이마가 빨간 쇠물닭〉



1-먹이 활동하는 쇠물닭 2010년7월22일 부여 공남지



2-먹이 활동하는 쇠물닭 2020년2월11일 횡성을 남산리 전천

2010년 7월 22일 부여 궁남지에서 쇠물닭을 처음 보았다, 그 후 횡성 남산리에서 촬영할 수 있었다. 쇠물닭은 몸길이 33cm이다. 이마에 달걀 모양의 붉은 판이 있다. 수명은 7년 정도이다.

중부 이남에 번식하는 여름새이다. 보통 4월 중순부터 도래하며 10월 하순까지 관찰된다. 땅 위에서는 쪼리를 많이 흔들면서 걷고 물에서는 머리를 흔들면서 헤엄을 치는데, 못이나 농경지·수로·물웅덩이, 하구나 하천 지류의 수초 지대에 산다. 물이 얇은 곳에서는 풀줄기 사이를 숨어 다니므로 잘 보이지 않지만 사방이 트인 넓은 곳에서는 잠수도 하면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먹이는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 곤충, 연체동물, 갑각류, 환형동물 등을 먹는다. 호숫가나 못가, 저수지, 하구 등 갈대, 줄풀, 마름, 가시연꽃, 큰고랭이, 개연꽃 등의 수초가 우거진 곳에서 번식을 한다. 둥지는 갈대, 부들 줄기 사이에 풀줄기를 엮어 만들고, 알을 낳는 시기는 5월 중순에서 8월 상순이며 한 둥지에 보통 5~8개에서 많게는 12~15개까



지 낳는데, 이는 둥지 하나에 여러 마리의 암컷이 알을 낳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은 암수 함께 품고, 기간은 19~22일이다. 부화 후 둥지를 떠나 어미와 생활한다.

라. 딱따구리목 딱따구리과

6. 청딱따구리-*Picus canus* Gmelin, 1788

〈개미를 좋아하는 청딱따구리〉



1-청딱따구리 수컷의 먹이활동 2020년4월6일 횡성읍 삼일공원



2-청딱따구리 수컷의 먹이활동
2020년4월15일 황성읍 삼일공원



3-청딱따구리 수컷의 먹이활동
2020년4월6일 황성읍 삼일공원



4-풀밭에서 먹이 활동하는 청딱따구리 수컷 2020년4월6일 황성읍 삼일공원



2016년 4월 6일 삼일공원에서 처음 본 후 2020년 4월 6일과 15일에 두 차례 오후 5시 삼일공원을 산책하다 운 좋게도 수컷을 촬영하였다.

몸길이 약 30cm이다. 이마의 빨간색이 두드러져 수컷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암컷은 이마에 빨간색 부위가 없는 점 외에는 수컷과 비슷하나 전체적으로 회색이 강하다고 한다. 단독으로 나무를 옮겨 다니며 먹이 활동을 하는데 콩지깃을 이용해서 나무줄기에 수직으로 앉아 있거나 나무줄기 주위를 빙빙 돌면서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고 풀밭에 앉아 먹이활동도 하는데 어찌나 빠르지 촬영하기가 힘들었다. 높은 음절에서 낮은 음절로 ‘뽀 뽀 뽀 뽀’ 하는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웠다. 날 때는 날개를 퍼덕이고 나서 날개를 몸통에 붙인 채 파도 모양을 그리면서 날아갔다. 주로 부리로 나무줄기를 쪼아 구멍을 파고 그 속에 사는 곤충류를 먹는데, 그 외에 특히 개미를 좋아하고 딱정벌레, 매미, 나비, 메뚜기 따위를 잡아먹는다. 장미과 식물의 열매도 즐겨 먹는다. 관목이나 땅 위에도 내려앉아 개미를 잡아먹는데, 사람이 다가가면 나무에 꼼짝하지 않고 머무르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4월 말에서 6월 사이에 번식을 시작하며, 오동나무, 백양나무 같은 단단하지 않은 나무나 죽은 고목의 줄기를 직접 파서 둥지를 틀고 4월 하순에서 6월까지 6~8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2주 정도 암수가 교대로 품되 수컷이 품는 기간이 약간 길다. 수명은 10년이다. 한반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비교적 흔한 텃새라고 한다.

마. 수리목 수리과

7. 흰꼬리수리-*Haliaeetus albicilla* Linnaeus, 1758

〈꼬리깃이 흰 흰꼬리수리〉



1-먹이감을 찾는 흰꼬리수리 2020년1월13일 횡성읍 갈풍리





2-먹이감을 향해 날아가는 흰꼬리수리 2020년1월13일 횡성읍 갈풍리

몸길이 80~94cm로 크고 육중한 대형 맹금류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새로 드물게 관찰된다. 꼬리깃이 희기 때문에 흰꼬리수리라고 불린다. 성조는 황갈색에서 담황갈색의 머리와 목, 백색 꽂지를 제외하고는 균일한 갈색이다. 흰꼬리수리는 타고난 물고기 사냥꾼이다. 물가 주변을 날다가 수면 가까이 헤엄치는 물고기를 발견하면 그대로 물 위로 내려앉아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낚아챈다. 주로 연어, 송어 등과 같은 큰 물고기와 짐승인 산토끼와 쥐, 조류인 오리, 물떼새, 도요새, 까마귀 등을 주식으로 삼는다. 내륙의 호수, 하천, 하구 및 개활지나 산림에도 서식하나 산악지대에는 살지 않는다. 단독으로 생활하지만 번식 직후 어린 새를 동반하기도 한다. 겨울철새로만 알려졌던 흰꼬리수리가 최근에 전남 신안군 흑산도와 대둔도 등 섬에서 둥지를 짓고 알을 품는 것이 확인되었다. 흰꼬리수리의 산란기는 3~4월이며, 나무 위에 나뭇가지를 엮어 접시형의 둥지를 짓고 흰색의

알을 1~3개 낳는다. 알은 암수가 교대로 품어 38일 정도 지나면 깨어난다.

새끼는 암수가 함께 기르며 부화한지 3달 정도가 되면 둥지를 떠날 수 있게 된다. 둥지를 떠난 후에도 한 달 반에서 두 달 반가량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다. 겨울에는 결빙되지 않은 수면을 찾아 일부가 남하 이동한다. 한국에서는 임진강·한강·낙동강 등 큰 하천이나 하구, 또는 동서 해안 및 남해도서 연안 등 도처에서 월동한다. 1973년 4월 12일 천연기념물 제243호로 지정되었고,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바. 참새목 휘파람새과

8-개개비-*Acrocephalus arundinaceus* Linnaeus, 1758

〈개개개개 소리내는 개개비〉



1-개개비 성조 2020년6월9일 황성읍 남산리



2-개개비 성조 2020년6월9일 황성읍 남산리





3-개개비 성조 2020년6월9일 황성읍 남산리

개개비비 하고 운다 해서 개개비라고 이름 붙여졌다.

17.5~18cm의 소형 조류이다.

5월경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도래하는 흔한 여름철새이자 통과철새이다. 봄과 가을에 흔히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며 갈대나 물가 초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몽골 중부, 아무르 지역, 중국 동북부, 일본 등지에서 번식하고 인도차이나반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에서 월동한다.

잡식성으로 먹이는 메뚜기, 파리, 모기 같은 곤충류 같은 동물성과 나무

열매이다. 천적은 맹금류, 여우, 뱀, 인간 등이 있다. 서식지는 갈대밭이지만 갈대밭이 줄고 하천이 오염되면서 수가 줄고 있다.

번식 등지는 주로 물가의 갈대밭이며 수면에서 약 0.8~2m 높이의 갈대 줄기 몇 가닥을 엮어서 그 위에 짓는다. 이외에 대밭, 관목에도 등지를 튼다. 번식 기간은 5~8월이며 알의 개수는 4~6개이다. 포란 기간은 약 14~15일이며 새끼가 자라 등지에서 떠나는 시기는 약 12일이다.

Ⅲ. 나가는 말

새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나는 새로운 새 사진을 찍을 때마다 새 이름을 알아가는 새로운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황성문화에 ‘황성에서 보는 새’ 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 소개하게 되었다.

그동안 촬영한 새 사진 74종을 황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의 도움으로 한편의 책으로 발간하게 되어 나로서는 분에 넘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보잘것없는 새 사진을 공개하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서지만 그 동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니 한없이 기쁘다. 책이 나오도록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를 알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네이버 카페 회원님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하며,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새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도서〉 한국의 새 123, 서정화, 박종길, 신구문화사, 2010
네이버백과사전, 다음백과사전 등



Photo Essay

우리 토종오이, ‘물외’ 에 대한 단상(斷想)

글/사진 : 정재영 (소설가, 횡성문인협회 회장)



그 흔하던
내 어릴 적
‘물외’

왜
우리 땅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을까?



이른 봄이면
 어머니는
 잿간(옛날에는 화장실이다 화로재를 갔다 버렸기에 그리 불렀다.)에
 오줌과 잘 섞여 숙성된
 거름을 소쿠리에 담아
 잿간 뒤 텃밭에 넣고는
 그 위에 흙을 덮고
 토종 조선오이 ‘물외’ 를 심으셨다.



그렇게

갯간 뒤편에서

물외는 쭉쭉 자랐고

난

하교 길

허기진 배(학교서 주는 옥시기 가루죽은 하교 때에는 이미 다 소화가 된 상태였다)

‘숙~숙’

문지르며

‘물외’ 하나 딱 따

때 절은 런닝 셔츠에 몇 번 ‘쭉 ~쭉’ 문지르고는

이내

‘우적 ~우적’ 씹어 먹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했던가?

‘하~!’

그때

‘아삭~아삭’ 전해오는 들크므레한 물의 맛.

정말

둘이 먹다, 한 놈 죽어도 모를 정도의 맛이였다.

한 개

두 개

세 개

그렇게 물 외 서너 개를 날로 먹고 나면

등쪽에 달라붙었던 허기 채워지고

시원하게 트림을 했다.



여름날

저녁이면

들에서 늦게까지 농사일하다 돌아오신 어머니는

텃밭 물외 댓 개 따다

‘뚜닥 ~뚜닥’

썰어서서

조선 양념간장에 쓱 풀어 오이 냉국을 만드셨다.

까물럭거리는 등잔불 아래서

울망줄망

우리 열 식구는

쌀알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는 ‘깡옥시기’ 밥,

물외 냉국에 말아

‘후르륵 ~후르륵’

목구멍으로 넘겼었고.



70년대 초.

새마을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온 나라를 휩쓸 무렵

토종 조선오이 보다 훨씬 크고,

몸매 작 빠지고

무엇보다 가지마다 다닥다닥 열리는 ‘왜(倭)오이’가

상품성을 인정받으며

이 땅에서

토종오이인 물외를 밀어내고

주인 자리를 차지했다.

농가들은

돈이 되기에 너도나도

비닐하우스를 짓고,

파이프를 세우고,

농약을 마구 퍼부으며,

왜오이를 대량으로 생산해 냈다.

그뿐인가

소비자들이 매끈하게 똑바로 자란 오이를 선호하자

오이 맺히기 무섭게 오이 열매에 플라스틱 캡을 씌우고

그 캡에서 일정한 크기로 오이를 생산해 냈다.

마치 공장에서 똑같은 품질의 물건 대량으로 찍어내듯.





그렇게
농촌에서,
우리 땅에서,
‘아습 ~아습’
우리 토종오이 ‘물외’ 는 사라져가고
잊혀져 갔다.
안타깝게.
그러다
강원도 오지에서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물외 토종 씨앗을 구해
물외를 심기 시작하고
물외 향수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음알음
물외씨를 구해
우리 땅에 다시 심기 시작했다.



화천이 고향인
매화회 친구 신 교장이
올봄
수타사 가는 길에
고향에서 귀하게 얻은 씨앗이라며
물외씨
열 개를 편지 봉투에 담아 내게 건넸다.



난
문익점의 목화씨 만큼
소중하게
그 물외씨 열 개를 가져와
샘글
텃밭에
그야말로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해
물외씨를 심고,
텃밭을 오며 가며
밭아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 정성이 하늘에 통했는지
열 개 씨앗 모두
싹이 텄고
한 포기애 두 그루씩 물외 모종을 심었다.



다행스럽게도

지지난해

흥성읍내 한의원 다 돌면서 얻어 온 한약 찌꺼기 넣고 발효시킨 텃밭이라
 아무런 거름을 안 했는데도

물외는

하루가 다르게

그야말로 ‘물의 크듯(어머니는 빨리 크는 것을 보면 꼭 그런 말씀을 하셨었다)’

‘쭉 ~ 쭉’

자랐고

지난주부터

가지 사이에

샛노란 꽃등을 내어 걸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오롱 ~ 조롱’ 오이를 매달기 시작했다.



이 맛에 농사짓나 보다.
내 분신과도 같은
농작물
무탈이 쑥쑥 자라는 걸 바라볼 때의
그 신기함과
경이로움.

사실
옆에 같이 심은 ‘왜오이’ 에 비해
물외는 크기도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내겐



세상 그 어떤 오이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
어릴 적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내 유년기의 향수가 가득 담긴 물의 옆기에.



오늘 저녁
어머니가 해 주셨던 것처럼
갓은 양념한 조선간장에
물외 쓱쓱 썰어 넣고
물외 냉국 만들어
콩보리밥 한 그릇 넣고
‘후르륵 ~ 후르륵’
먹어 볼 참이다.
냉동실 얼음도 듬뿍 넣고.



잘 생긴 물외 몇 개는 따지 말고
노랗게 익혀 노각 만들어
귀한 씨 받아
내년에는
물외 필요로 하는 지인들에게
씨앗 나눔을 할 생각이다.



물의 냉국
그
입안에 착 감기는 내 유년의 맛을
뇌리에 떠올리며
안도현 시인의 詩
‘물의 냉국’ 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낭송해 본다.



외가에서는 오이를
물외라 불렀다 물외는
금방 펌프질한 물을 퍼부어 주면
좋아서 저희끼리 물 위에 올라앉아
새끼오리처럼 동동거렸다
그때 물외의 팔뚝에
소름이 오슬오슬 돋는 것을
나는 오래 들여다보았다
물외는 펌프 주둥이로 빠져나오는
통통한 물줄기를 잘라서
양동이에 띄워놓은 것 같았다
물줄기의 둥근 도막,



물외를 반으로 똑 꺾어
젊은 외삼촌이 씹어 먹는 동안
외할머니는 저무는 부엌에서
물외 채를 쳤다
햇살이 싸리울 그림자를
마당에 펼치고 있었고
물외냉국 냄새가
평상 위까지 올라왔다

안도현 詩 '물외냉국'





정재영

198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되고
1988년 '문예사조' 신인상에 중편소설이 당선 돼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문단정화위원회 위원)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황성지부 회장

장편소설 '아름다운 것들'

중편소설집 '물속에 뜬 달'

소설집 '바우'

포토에세이집 '섬강에서 그리움을 만나다' 외

횡성의 전문예술단체 「농음」이 걸어온 길



김지희

국립국악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국악과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활동을 하던 김지희가 2004년 횡성으로 귀농한 남편과 결혼하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된다. 이후 농업 농촌의 현실과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창작판소리 횡성택의 쌀타령으로 전국을 누비며 공연을 하던 중



200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진예술가 선정, 횡성문화관 대강당에서 3월 21일 22일 창단 공연으로 전통예술단 농음의 행보가 시작되었다.



III 횡성사람 횡성 이야기

창단 이후 횡성 관내 축제에도 매년 참가하여 주제에 맞는 새로운 작품도 창작하고 횡성의 소리를 알리기 시작한다.

문화나눔

2010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순회공연

뮤지컬 **짜오안**



7월 6일 (화) 1시 흥성 새농성교회 본당
 7월 7일 (수) 7시 광택 평생복지센터 대강당
 7월 8일 (목) 8시 예산 구만초등학교 다목적실
 7월 13일 (화) 2시 곡성 리저문화센터 공연장
 7월 14일 (수) 11시 나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월 15일 (목) 4시 장수 일암노인복지센터 강당
 7월 25일 (일) 1시 문경대학 요양실습실
 7월 26일 (월) 2시 여주 장애인 복지관
 7월 28일 (수) 2시 함안문화원 대강당
 7월 30일 (금) 7시 홍천문화원 대강당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종문화예술회관
 후원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후원 공연문의 세종문화예술회관 017-364-7310



III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2010 횡성 회다지소리축제 (창작극 또 한 굽이 가시는 길)



2013 횡성회다지소리민속문화제 (창작극 그 길에 꽃 되어)



2010 황성한우축제 (소리콘서트 아라리Yo)



2011 황성한우축제 특별공연 (소요逍遙)

매년 강원문화재단 또는 황성군의 지원을 받아 정기국악공연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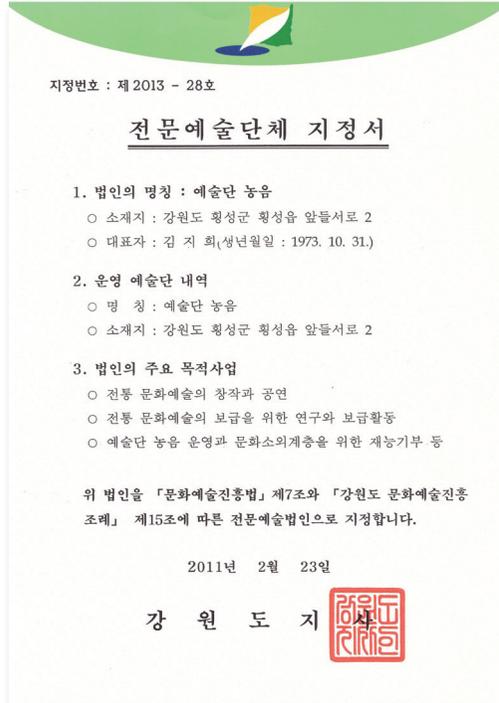


2012 렉처콘서트 풍류
(원주 청소년 문화의 집 공연장)



2013년 국악콘서트 지척에 입을 두고 출연진

강원도 전문예술단체 지정을 받고



III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2014년 창작극 황소아줌마, 순이를 제작하여 횡성군 4.1만세 운동 기념행사에도 참가한다.



창작극 황소아줌마 순이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5년 횡성군 4.1만세운동 기념식

2015년 부터는 평창동계올림픽 일환으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에서 횡성무형문화재 회다지소리를 주제로 한 창작극 안녕, 영희야 공연으로 2017년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었고, 올림픽 이후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1등을 차지하였다.



2018 강릉아트센터



2019 우수작품 선정 기념공연 (정금민속관)

창단 초기부터 꾸준히 수집 발굴해 온 횡성의 소리와 강원도 소리를 기반한 대중적 공연으로 소리콘서트도 기획하고 꾸준히 발전 시켜 2017년 서울 공연까지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2014 원주 시청 앞 광장



2017 소리콘서트 길을 걷다 (마포아트센터)

2017년
 횡성 아라리를 편곡한 아라리Yo
 강릉영산홍

인제뗏목아리랑

세 곡을 편곡하고 녹음하여 첫 싱글앨범을 낸다.



2018년 10여년간 준비해 온 횡성의 소리를 음반으로 제작하고 예술단 농음 10주년 기념공연을 올린다.



III
횡성사람
횡성 이야기



2018 10주년 기념공연 중 횡성 모심는 소리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예술단 농음 10주년 기념 공연을 마치고

강원도의 인물들을 주제로 한 연극계와 콜라보레이션 한 창작 작품활동도 하였다.

2020년 농음 대표 김지희는 횡성 최초로 강산제 심청가 완창 판소리를 선보여 소리꾼으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예술단체로서 예술적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였다.

예술단농음 정기공연

김 지 희
완창 판소리
강산제 심청가

2020.
7. 5. SUN
14:00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주최 주관
농음 예술단

| 후원
횡성문화재단
횡성군





2020 김지희 완창판소리 강산제 심청가(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코로나 19의 여파로 많은 공연과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 해 농음은 김지희 완창판소리, 유정애가 앵콜 공연, 카페에서 들려주는 창작판소리 산골나그네 등 안전하고 건강한 공연으로 횡성군민들의 예술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예술적 생산과 소비가 아직 조금 척박한 이 곳에서 전문예술인도 생활예술인도 신명나게 활동하고 그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문화와 역사와 예술의 도시 횡성군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그 길에 앞장서 오늘도 뜨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창작한다.

 예술단 농음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황성문화원 사무국장
민준식

의학의 발달과 충분한 영양섭취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은 건강 100세를 맞이하였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60의 나이에 정년을 한다. 인생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는 의미는 60세 퇴직이후 40년이라는 세월을 나 자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100세가 되는 어르신들에게 ‘장수를 축하’ 한다는 의미로 ‘청려장(靑藜杖)’을 선물로 주고 있다.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식물의 줄기로 만든 지팡이를 말한다. 명아주는 예로부터 심장에 좋은 식물로 몸에 지니고 있어도 효력이 있다고 전한다. 또한 명아주로 만든 청려장은 매우 가볍지만 단단해서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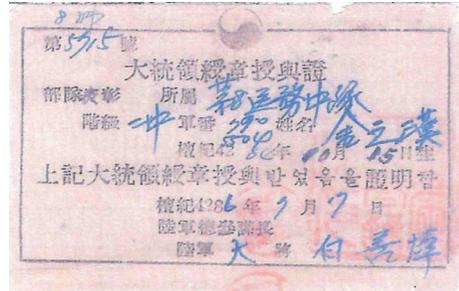
1988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33년 동안이나 매주 일요일 낮 12시 우리의 안방극장을 책임지는 ‘전국노래자랑’의 사회자는 국민 MC 송해이다. 송해는 1927년생이니 우리나라 나이로 94세이다. 국내 최고령 사회자이며, 단일 프로그램을 33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최장수 사회자이기도 하다. 그의 건강 비결을 물으면 늘 BMW를 강조하기도 한다. BMW는 버스(Bus), 지하철(Metro), 걷기(Walking)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생활화 하여 실천한다는 것이다. 또한 61세 때부터 매주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할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황성에도 90이 넘는 나이에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다. 황성교육도서관에서 황성군민을 대상으로 서예한글을 가르치시는 김원한 선생

님이시다. 김원한 선생님은 1930년(호적 1931년) 황성출생으로 1949년 황성공립농업중학교(지금의 황성고등학교) 재학 중 강원도 학무국에서 시행하는 초등학교 준교사 채용고시에 응시하였다. 합격 후 1949년 7월 16일 한 달간의 강습을 수료, 1949년 9월 30일자 황성읍 옥동리에 있는 성동국민학교에 발령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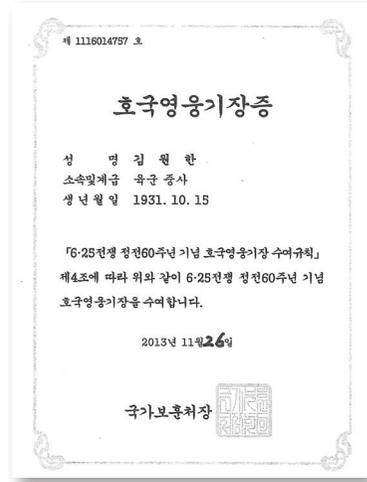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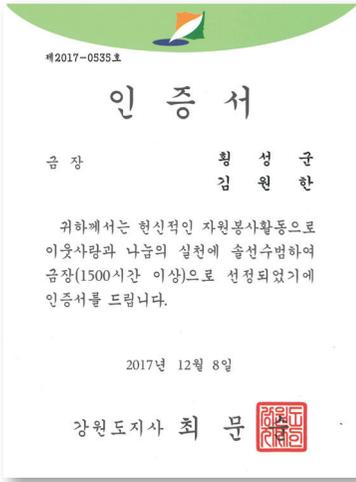
6.25사변 중군기장 수여증 (왼쪽)



대통령 수장수여증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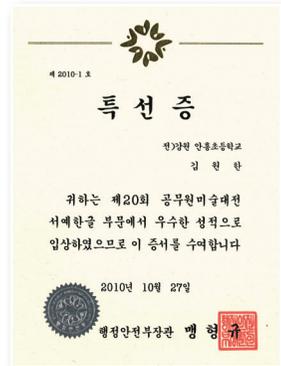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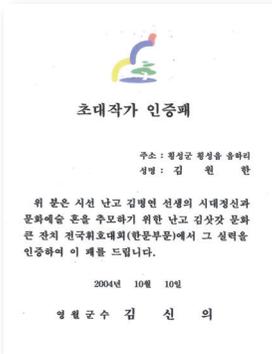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1년 1월 8일 육군 보병 제8사단에 입대하여 1952년 10월 15일 6.25사변 중군기장을 받았고, 1953년 7월 7일 대통령 수장 수여증을 받았다. 군 생활 5년 6개월 만에 ‘육특 을293호’에 의거 이등상사로 1956년 6월 30일 만기 제대 하였다. 제대 후 1957년 2월 제대교원 전형검정고시를 거쳐 그 해 6월 30일자로 성동국민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교편을 잡은 기간 중 정선군에서 2년을 제외한 40여년을 황성군에서 후학을 가르치다, 1997년 2월 28일 정년퇴직 ‘국민훈장 동백장(대통령)’을 받았다. 퇴직 후 천주교 황성성당에서 2년여간 공근면 일원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지속하여 금빛평생교육 봉사단으로 2009년 황성군수, 2012년 강원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동장 (500시간 이상), 2015년 은장 (1,000시간 이상), 2017년 금장 (1,500시간 이상)을 수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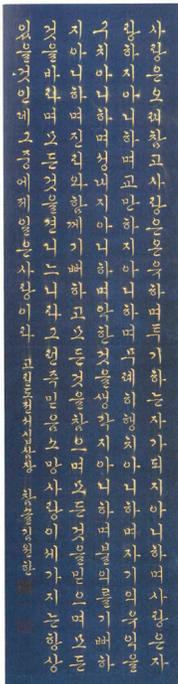
2013년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6.25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증」 제 1116014757호를 수여하였다.



자기계발로는 71세인 2000년 제3회 김삿갓 전국회화대회 한문서예부문에서 입선을 시작으로, 2004년 김삿갓 문화 큰 잔치 전국회화대회(한문서

예부문)에서 초대작가 인증패, 2006년 제3회 한국전통서예대전에서 한글 부문 최우수상, 2008년·2009년·2010년 3년 연속 공무원미술대전 서예 한글 부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선장을 수여하는 등 현재까지 120여회에 달하는 상을 받았다.

1999년 70세의 나이에 황성교육도서관에서 서예한글을 지도하기 시작해 2020년 91세인 현재까지 22년간 가르치고 있다.



고권도서 13점 | 제3회 한국전통서예대전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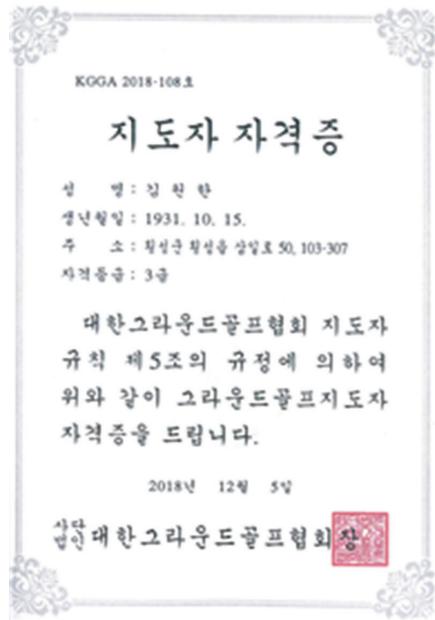


반사중경 | 제2회 황성사경대전 특선



III 황성사람 황성이야기

수강중인 서예회원들은 2006년 제16회 김생 전국 휘호대회 입선을 시작으로 2020년 올해 제 14회 마한 서예문인화 대전 특선, 입선을 비롯하여 매년 전국대회에서 황성교육도서관 수강생들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89세의 나이인 2018년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발급 ‘그라운드골프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노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노년은 단순히 덤이 아니라 노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황성문화원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황성군 여성회관의 문화학교, 실버문화 페스티벌인 ‘샤이니 스타를 찾아라’ 등 인생 후반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노인 스스로도 이뤄져야 하며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도 보다 현실적 대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기대한다.

트럼펫과의 인연



첫 번째 인연 - 횡성고등학교 밴드부



횡성고등학교 재학 당시



횡성고등학교 밴드부 창설 당시

강원도 횡성군 입석리에서 1937년 출생한 나는 1950년 6.25 사변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3년 후배들과 함께 다녔다. 초등학교 동급생들보다 3년 뒤진 학창시절이 좀 어색했지만 당시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별일 아니었다.

내가 트럼펫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55년 고1 때였다. 공식이던 음악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학교밴드부가 새로 조직되어 나는 횡성고등학교 밴드부 창설 트럼펫 연주자가 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원주에 “고협”이란 악단이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펫 연주자의 부재로 공연을 못하게 되었고, 악단의 요청으로 나는 “고협” 과 함께 연주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학교 밖 첫 공연이 되었다. 1956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신협” 과 “고협” 이라는 2개의 악단이 있었는데 “신협” 은 해산되었고 “고협” 도 나를 마지막으로 해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횡중고 4·7회
진 용 근



III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두 번째 인연 - 해병군악대

1957년 11월 고3이던 난 우연히 해병군악대 특별하사관 모집광고를 접하고 해병군악대 지원 입대를 하게 되었다. 3개월의 기본 훈련을 마치고 배치된 곳은 해병포항기지사령부군악대, 당시 해병대엔 사령부, 포항기지, 김포1사단 등 4곳에 군악대가 있었다.

5년간 포항해병군악대에 근무를 하며 군악대 후배로 가수 윤희기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함께 6인조 캄보밴드를 만들어 미 고문단 클럽에서 연주를 하였다. 전역 후 윤희기는 키보이스란 단체에서 활약을 하였고 나는 무교동의 클럽에서 악단장으로 음악활동을 하였다. 해병군악대 시절 해마다 이승만대통령 생일 2월 26일과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때는 서울 해병군악대로 파견되었으며, 1959년의 육해공군 해병대 합동 심포니오케스트라 “안익태 코리아환상곡 원각사 공연” 은 아직까지도 가슴에 울림을 주는 잊을 수 없는 대공연이었다.



가수 윤희기와 함께 해병군악대 사진

당시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대형공연장이 ‘원각사’ 밖에 없었으며 그 후 원각사는 원인 모를 화재로 소실되었고 그 후 광화문에 대형공연장으로 시민회관이 지어졌고 그것이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세 번째 인연 - 해외(괘)으로 떠나며 끊겼던 인연

1962년 포항부대에서 5년 근무 중 사령부군악대로 옮겨 왔다. 낮엔 한남동 해병대군악대에서 근무를 하고 밤엔 미8군부대에서 클럽 밴드의 일원으로 음악활동을 했다. 그 당시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은 미8군에서 일하였으나 점차 미군이 줄어들면서 무교동 대형 클럽으로 활동 영역을 거의 모두가 옮겨 가게 되었다. 나도 예외 없이 “진용군과 그 악단” 이라 이름(서울시 단체등록번호 6번) 무교동의 클럽에서 6년 넘게 연주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현재 미국 LA에 거주하는 친구 이병훈의 추천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 레코드사인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작곡가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건강이 악화되어 오아시스 레코드사와는 짧은 인연으로 끝맺음되었다.

오아시스에서의 재미있는 기억은 그 당시 가수 나훈아씨가 삭발에 청바지 차림으로 첫 레코딩을 위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그 후 나는 잠시 고등학교 음악교사를 거쳐 서울 철도청에 창설되는 철도악대 트럼펫 연주자로 6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해외 통신사업을 위해 철도청을 퇴직하고 1976년 한국을 떠나 괘에 정착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인연 - 트럼펫과 다시 만난 인연

사업을 위해 괘으로 이주하게 되며 트럼펫을 놓게 되었고 영영 트럼펫과의 인연이 끝나게 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힘든 해외 생활 속에서 신앙



을 알게 되었고 다시 교회음악을 접하게 되며 트럼펫은 하늘이 내게 주신 인연이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신앙생활에 열중하다보니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어느새 나는 목회자가 되어 있었다. 목회자 길로 인도된 것은 안수집사 때 사이판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때도 트럼펫은 항상 나와 함께 했고 연주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나는 한국을 자주 방문하였으며 그 때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며 연주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정작 내 인생에 나를 품고 키워주었으며 트럼펫을 시작한 계기를 만들어 준 고향 횡성과는 가까워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다섯 번째 인연 - 다시 시작된 고향과 트럼펫 인연

나의 고향 횡성에는 유일한 여동생이 살고 있다. 한국 방문 때마다 며칠씩 머물곤 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정이 끝나면 다시 괌으로 돌아갔다.

2016년 가을에도 한국을 방문하여 일정을 소화하고 변함없이 횡성의 여동생 집을 방문하였다. 여동생에게는 8남매의 자녀가 있는데 일곱 번째 조카가 트럼펫에 관심이 있어 내가 쓰던 오래 된 트럼펫을 주고 다시 괌으로 떠났다. 트럼펫을 받은 조카는 2018년 7월부터 독학으로 트럼펫 연습을 시작하였다. 트럼펫은 힘들고 어려운 악기라 독학으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조카는 열정적으로 트럼펫에 정진하였고 그것을 발판으로 2020년에는 횡성문화원에 트럼펫 반을 개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호회원이 15명이나 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큰 도시에서 보기 힘든 트럼펫 동호회가 횡성에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

2019년부터 나도 횡성문화원 트럼펫 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60여년의 트럼펫 노하우를 고향 횡성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으며 횡성에서 후배들과 함께 즐겁게 연습하고 있다.

트럼펫을 통하여 횡성 문화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되고 나와 트럼펫의 첫 인연인 횡성으로 돌아와 다시 트럼펫과 다섯 번째 인연되어 흐뭇하다.

2021년에는 문화원에 ‘횡성문화원 군민오케스트라’가 창설된다고 한다. 참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다. 횡성군의 문화 발전과 횡성군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음악의 도시로 뿌리를 내리는데 한 획을 긋는 역사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박순엽 횡성문화원원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과 음악을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횡성문화발전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다.



다섯 살배기의 잊혀 지지 않는 6·25전쟁



상이군경회
황성군지회장
심재원

나는 6·25전쟁 때 황성군 둔내면 영랑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나(5세), 여동생(3세), 작은어머니(작은 아버지는 군 입대) 이렇게 일곱 식구가 살았다.

치열했던 6·25 겨울 전쟁은 산골마을 영랑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궁중리, 현천, 영랑리는 적군의 이동경로로 격렬한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다.

우리 가족은 잠을 자다 발자국 소리에 깨어나 동이 트고 날이 밝아 문을 열고 내다보니 집 앞 보리밭과 동네에 수 천 명의 인민군이 가득 차 있었고 동네의 소는 다 끌려다 잡아먹었다. 소가죽을 벗겨 네 귀퉁이에 말뚝을 박고 숯 대용으로 만들어 물을 붓고 소고기를 끓였는데 소가죽은 타지 않고 고기는 그 속에서 익었다. 나도 얻어먹은 생각이 난다.

온 산천은 인민군이 가득 차 있고 마을의 온 집을 수색 쌀, 보리쌀 등 모든 곡식을 가져다 밥을 해 먹었다.

숨겨놓았던 곡식을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고, 이고 일제 때 파 놓은 금점굴로 몰래 옮겨가는 것을 따라다녔던 일이 지금도 생각한다.

격한 야간 폭격으로 오후에는 불을 때 화로에 담아 금점굴로 가 밥을 지어 먹으며 연명을 하고 낮에는 집으로 오곤 하였다. 나는 폭격할 때 놀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프셔서 밤에도 금점굴로 피난을 가지 않고 젓먹이 여동생과 함께 집에 남아계셨다.

그런데 아군 비행기가 폭격을 하여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은 그 자리에 서 목숨을 잃었다. 득실거리는 인민군을 소탕하기 위한 폭격이었지만 양민의 희생이 컸으며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젓먹이 여동생도 비참하게 희생되었다.

세 식구나 사망한 크나큰 슬픔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 나, 작은 어머니는 금점굴에서 목숨을 부지하였다.

다섯 살이었던 나는 다리가 아파 금정굴로 피신할 때 할머니 등에 업혀 다녔던 생각이 아련하다.

그 후 국군과 인민군은 진격과 후퇴를 거듭하며 전쟁을 하다 인민군은 북으로 쫓겨 갔다.

마을이 조용해져 집에 와 보니 타다 남은 사랑채 한 칸에 살아남은 우리 가족 4명은 숨어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한국군 선발대가 들어왔다, 선발대가 대검을 장착한 총을 들고 방에 들어 닦쳐 수색을 하였다. 방안에는 다리에 총상을 입은 인민군 한 명이 있었다.

발각된 그를 할머니는 너무 불쌍하여 우리 아들이라고 둘러댔으나 결국 밖으로 끌려 나갔으며 그 후 소식은 모른다.

그 다음 미군이 들어왔다. 온 산천과 들에는 시체와 부상병으로 가득하고 장티푸스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도 많았다.

국군과 미군은 북진하고 남은 것은 시체와 미군들이 먹던 전투식량 씨레이손이었다.

할아버지가 아침 지게를 지고 나가시면 소쿠리에 씨레이손을 한가득 담아 오셔서 그것을 먹었다. 그 중 작은 봉지에 갈색 가루가 담겨있었다. 어른들은 쓴 그것이 독약인지도 모른다고 하여 모두 버렸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커피였다.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 시신을 들것에 들고 공동묘지로 가던 모습, 머리 채가 풀어져 들것 밑으로 축 늘어져 일렁이던 모습이 떠오를 때면 지금도 가슴이 저민다.

가족을 돌보며 소 세 마리 중 한 마리를 지켜내신 할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직후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다. 작은 아버지는 11사단에 예속되어 백마고지 등 수 많은 전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셨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나는 고아가 되어 의지할 곳 없이 험한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자랐다.

그 후 나는 성년이 되어 1967년 5월 국군에 입대, 화천 적근산 부근 비무장 지대 최전방에 주둔한 15사단 39연대 1대대 1중대에서 1970년 9월 제대할 때까지 40개월 군 복무를 하였다. 그 때만해도 적군의 침입이 빈번하여 소탕작전이 벌어지곤 하였다.

나는 그 때 배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설상가상 고엽제로 상이 6급을 받았다.

춘당 아홉 꿈동이들의 사물놀이 이야기



춘당초등학교 교장
이영재

1. 학교연혁

황성군 청일면에 위치한 춘당초등학교는 1937.04.30. 청일보통학교 간이학교로 설립되어 1942.03.31. 춘당국민학교로 인가를 받고 현재까지 총 173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아담한 춘당초등학교는 전교생 아홉 꿈동이들이 배움을 즐기며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2. 사물놀이 동아리 구성 현황

전교생 9명으로 구성된 춘당꿈동이는 총 5가구의 남매, 자매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네〉 연이네 가족은 총 4남매로 위로 중학생 언니, 오빠가 있습니다. 연이네는 악기를 다루는 능력과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연이, 남준이 둘이서 장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슬기네〉 슬기네는 2자매로 위로 중학생 언니가 있습니다. 툭툭 튀고 영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력인 슬기는 연이와 함께 사물놀이 동아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성이네〉 2019년에 전학 온 하성이네는 4남매 중 첫째, 둘째인 하성이 하음이가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시간이 적지만, 꾸준히 노력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민이네〉 슬기네 와 마찬가지로 유민이도 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묵묵하고 차분하게 활동에 임하며, 다른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줘서 인기가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 실력이 많이 늘어서 기대되는 학생 중 하나입니다.

〈예나네〉 동아리 내에서 가장 많은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는 예나네는 4자매 중 3자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나네는 춘당꿈동이의 보물입니다.



춘당꿈동이들의 모습

3. 이야기

꿈이 많은 아이들이란 뜻의 춘당꿈동이는 2018년 3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물놀이에 관심이 많던 송세영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장구를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하셨고,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장구를 배우며 우리나라 악기의 아름다움을 알아갔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며 아이들의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을 무렵,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통일 노래 경연 대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주기 위해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춘당꿈동이 9명 외에 유치원 학생 3명까지 총 12명이 각자 다룰 악기를 나누고 하나하나 동작을 맞춰가

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참가하는 경연 대회라서 경험이 부족한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얼마나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열심히 연습한 결과 9월 지역 예선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가한 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아이들은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기쁨도 잠시 10월에 있는 본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부족했고, 할 것은 많아 보였습니다. 중간놀이 시간과 점심 시간까지 활용하여 쉬는 시간도 없이 오로지 본선에만 집중하였고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지쳐갈 무렵 본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통일 노래 경연 대회 본선은 KBS 방송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경쟁팀을 보며 아이들은 많이 놀라기도 했고 떨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본선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자신감과 그동안의 노력을 생각했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함께 올라와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무대에 올라서서 노력의 결과물을 마음껏 쏟아내었습니다. 처음 섰던 무대지만 지금까지 아이들이 섰던 무대 중에 가장 큰 무대였고, 다른 참가자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낀 무대였습니다. 경연을 끝내고 다른 팀들의 경연을 보다 보니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고, 춘당꿈동이는 특별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대상에서 특별상으로 떨어진 성과에 아이들이 많이 실망스러워하며 투덜거렸지만, 큰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연을 한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019년 1월. 만언니로써 1년 동안 학생들은 이끌어 왔던 6학년 묘린(청일중)이가 졸업으로 동아리를 떠나게 되고, 3월에 1학년 예인이가 동아리 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떠나고 한 명이 들어와 다시 9명이 되었고, 그 해 4월에 하성이네가 전학을 와서 총 10명이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학생도 있고, 기초부터 새롭게 배우기 위해 다시 장구를 연습했습니다. 설



장구를 연습하며 5월에는 황성군 청소년 어울림 마당, 6월에는 강원 진로 박람회, 8월에는 원주아동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연도 다니고 매일매일 중간놀이 시간마다 연습하여 설장구도 슬슬 완성되어갈 무렵, 여름방학 국악캠프에서 본격적으로 사물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특성과 의견을 고려해서 사물악기를 배정하였고, 새로운 목표인 전통문화 경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다시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장구만 배우다가 새로운 악기를 배정받아서 연습을 시작하니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서로서로를 격려해가며 전통문화 경연 대회 온라인 예선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악기가 손에 익기까지의 시간과 맞춰본 경험이 부족했던 탓인지 아쉽게도 예선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아이들은 대회 준비가 아닌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가을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을 다녔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느라 지친 학생들이 지역 행사 공연 후에 축제에 직접 참가하여 신나게 뛰어놀면서 그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열심히 연습한 것을 대중 앞에서 내보이고,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자신감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2학기가 끝날 무렵 다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18년 묘린(청일중)이가 나간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6학년 남형이(청일중)와 진주(청일중)가 졸업할 시기가 왔습니다. 장구와 팽과리를 연주하며 춘당꿈동이를 이끌어왔던 남형이와 진주는 졸업공연을 마지막으로 동아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6학년이 없기 때문에 5학년인 연이와 슬기가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성이 동생 하음이가 1학년으로 입학하면서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동아리 인원은 9명이 되었습니다.

선배들이 졸업을 하고 새내기 학생이 들어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비상인 상황에서 학교 또한 개학 연기에 들어갔고, 결국에는 온라인 개학으로 1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시간이 계속되면서 코로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였고, 5월에는 학생들이 비로소 학교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학하자마자 학생들과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학교 내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 수칙에 적응하게 되고, 개방된 공간에서 사물놀이 연습을 조금씩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 대회였기 때문에 시작부터 경연 대회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1학기에 연습을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중간놀이 시간에만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점심시간 까지 모여서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예열 과정 없이 처음부터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선생님과 한 팀이 되어 경연하는 사제동행 사물놀이 경연 대회를 계획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함께 사제동행 사물놀이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선생님께는 배우기만 하던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고 다른 팀과 경쟁을 하면서 즐겁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고 힘든 여름이 지나갔지만 사물놀이 경연 대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대회가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오순도순 모여 사물놀이 대회 연습을 하면서, 열리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 10월이 돼서야 사물놀이 대회를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회와 많은 공연에 참가하여 무대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사물놀이 경연 대



회 무대 위에서도 떨리는 기색 없이 당당하게 연주하고 웃으며 내려왔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하기 힘든 소중한 경험들을 통해 춘당꿈동이 학생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려오느라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끝까지 함께 한 학생들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통일 노래 경연대회(지역 예선)



통일 노래 경연대회(본선)



횡성군 청소년 어울림 마당



강원 진로 박람회



원주 아동 뮤직 페스티벌



전통문화경연대회 연습 사진



청소년 축제 공연



동문회 행사



졸업축하 공연



사제동행 사물놀이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연습



동아리 연습 사진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미래청소년상 수상





IV

문예마당

가



(시인, 황성문인협회 사무국장)
김은주

해님이 어스름한 퇴근 무렵은
한산하던 도로가
어수선해지는 때
등지를 찾아
서둘러 향하는 행렬

그 옛날 반갑던 아버지의 주머니 속
풀빵에 젖어있던 종이봉지처럼
자동차 허리춤에 따뜻한 미등 켜고
줄줄이 들어서는 이 시대의 가장들

진회색 새벽을 밟고나가
양계장의 닭처럼 의미 없는 진통에다
미결로 채워진 서랍을 닫지만
임무를 마친 용맹한 무사처럼
상처 몇 개 짙은 별처럼 달고
흐트러진 당당함을 투구처럼 덧입고
집으로 드는 승용차 뒷 유리엔
노을빛을 닮은
해가 크게 걸려있다

동시



(시인, 황성문인협회 회원)
김정자

밥 먹을 땐
골고루 먹어야지
좋아하는 것만 찾음 어떻게 해

손가락은
왜 입에 물어?
뭐 그리 깨끗하다고

우산 또 잃어버린 거야?
벌써 몇 개 인줄 알아?
잘 챙기했잖아!

벗은 양말
뭉친 채 두지 말고
좀 펴 놓으라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매일 얘기해도
안 고쳐지는 습관들
도대체
넌 누굴 닮은 거니?

엄마는 오늘
외할머니로부터
그 답을 듣는다

- 너도 그랬어



IV
문예마당



(소설가, 황성문인협회 회원)
연영흠

"어머,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원일로를 걷고 있을 때다.

맞은편에서 팔을 끼고 걸어오던 연인 중에서 여성이 반색을 하며 인사를 건넨다. 이런 경우 곤혹스럽기만 하다.

'누구일까? 옛된 얼굴로 봐서 학부형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제자겠지.'

많이 본 듯한 얼굴이고 어렴풋이 기억이 잡힐 듯도 싶다. 그러나 이름은 커녕 어느 곳에서 가르쳤는지도 감이 안 잡히니 난감하다.

"저어, 누구더라. 기억이 잘 ……."

"아유, 선생님도. 저 영주예요. 간현에서 가르치신……."

"아아, 신영주!"

"그래요. 선생님."

10여 년 전에 2년간이나 담임했던 제자였다. 영주는 다방면에 뛰어난 재원으로 2년 연속 실장을 맡기도 했다. 또,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로서 같은 길을 걷게 되면서 몇 차례 안부를 전하기도 했던 터였다.

"미안하구나. 다른 생각을 하다가 몰라봤어. 학교생활은 잘 하겠지. 이쪽 분은 남편인가?"

선한 인상의 젊은이가 공손히 머리를 숙인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가워요. 영주 신랑을 꼭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멋진 사람과 맺으면

서 소식도 없었나. 결혼은 언제 했어?"

영주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한다.

"선생님도, 결혼할 때 전화를 드렸는데요……. 작년에 춘천에서도 잠깐 뵈는 적이 있고……."

아차! 이 고질의 건망증으로 인해 또 황당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3년 전이던가, 청첩의 전화를 받았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니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난다. 그뿐인가? 작년 여름 방학 때 춘천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만나기도 했다. 그때 신랑을 소개받고 함께 환담을 나누기까지 했다. 남편이야 한 번밖에 못 본 처지니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각별하게 아꼈던 제자를 몰라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결혼을 언제 했느냐는 말은 이만저만한 망발이 아니다.

멍청한 모습을 보인 스승에 대해 영주의 섭섭함이 컸으리라. 그보다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았을까. 한심한 사람이라고 흉을 보는 것이야 내 잘못이니 감수하겠지만, 행여 저런 선생에게 배웠으니 오죽하겠느냐며 나로 인해 다투기라도 했다면 이 업보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내게 있어서 건망증으로 인한 실수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얼마 전까지 모셨던 교장 선생님의 자녀가 지난달에 결혼을 했다. 그런데 당일 저녁에야 생각이 나서 몹시 당황했다.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과 함께 가보자고 약속까지 해놓고는 태평스레 등산을 떠난 것이다. 나를 끔찍이 생각해 주셨던 분이었고, 예식장이 인근에 있었는데도 그런 결례를 했으니 지금도 면목이 없다.

또, 작은어머니 환갑 때는 그날 아침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출근할 무렵에야 생각해 내고 부랴부랴 조퇴를 맞고 가느라고 종일 부산을 떨었다. 요즘 일이 바빠서 늦게 왔다고 둘러댔지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실수인 것이다.



학창 시절에는 건망증으로 인해 귀가하다 말고 다시 등교를 한 적이 있다. 나는 보충수업이니 자율학습이니 해서 새벽에 집을 나와 어둑어둑할 무렵에야 귀가하던 인문계 고교를 다녔다. 1학년 때 겨울이었는데, 그날따라 청소를 마치고 조금 늦게 학교를 나갔다. 쌀쌀한 날씨 탓인지 갑자기 용변이 보고 싶었다.

30여 년 전의 춘천은 한적했었다. 특히 내가 하숙하던 효자동 쪽에는 도로 옆으로 드문드문 밭이 있었고, 숫제 담이 없는 집도 있을 정도였다. 나는 길가의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밖으로 나왔다.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만 어슴푸레하게 짙은 어둠을 새벽 무렵으로 착각했나 보다.

내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학교를 향했다. 교문에 들어서니 암흑 속에서 도서관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비로소 실수를 깨닫고 혈레벌떡 집으로 돌아오니 하숙집 아주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까닭을 묻는다. 평소보다 두 시간 가까이 늦은 귀가 사유를 둘러대면서 스스로도 황당했었다.

건망증으로 인해 곤욕만 치른 것은 아니다. 군대 시절에는 부모나 애인의 생일이라면서 울적해 하는 전우들을 자주 보았다. 나는 이제까지 그런 것으로 마음을 쓴 적이 전혀 없다. 아직까지도 누가 일깨워 주지 않는 한 가족 생일은커녕 내 생일조차 기억 못 하니 말이다. 그뿐 아니라 섭섭한 일을 겪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며칠을 넘기지 않고 거의 잊어버린다. 살다 보면 직장이나 학생들로 인한 속상한 일이 가끔씩 생기지만, 대부분 마음에 남기지 않는다. 어찌 보면 느슨한 삶을 사는데 건망증이 도움을 준 셈이다.

그런데도 나를 빈틈없고 기억력이 비상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것은 기록을 남기는 습관 때문인 듯하다. 심각한 건망증의 보완책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때는 사소한 일까지도 기록을 남겼다. 또, 명색이 국어 교사이니 일단 붓을 들면 비교적 조리 있게 정리를 하는 편이다. 가끔씩 그 메모장을 뒤적이면서 퇴고도 하니 어떤 일은 오래

되고 사소한 것이라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라는 대중가요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나야말로 중요한 것은 깜박하면서도 시시콜콜한 것은 기억하는 셈이다.

언젠가 서울의 어느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를 몇 년 만에 만난 적이 있다. 마침 저녁때라 식사를 함께 하면서 반갑게 술잔을 나누었다. 그 친구가 음식점의 아가씨에게 진한 농담을 하며 너스레를 떨기에 나는 무심코 핀잔을 주었다.

"자네 버릇은 여전하군. 예전과 다름없어."

그가 무슨 말이냐는 듯 바라본다.

"5년 전 추석 다음날이던가. XX 술집에서 소주를 X 병 마셨는데, 안주는 XX였잖아. 2차로 XX에 가서 맥주를 X 병 마셨고, 술이 얼큰하여 XX 다방에 들어갔었지. 차를 시키면서 아가씨에게 자네는 똑같은 농담을 했어. 순진한 그녀는 자네를 XX로 착각하고..."

그는 기겁을 할 만큼 놀라며 '무서운 놈'이라고 혀를 내 두른다. 그러나 내가 어찌 수년 전 일을 세세히 되새길 수 있겠는가. 그때의 상황을 반쯤은 장난삼아 메모했고, 뒤에 정리를 했으므로 그 사실만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내 기억력은 옛 시절에 대해 환담을 나누다 보면 내가 분명히 한 일도 생소하게 들려서 대화가 안될 만큼 형편없는 편이다.

아무튼 중요한 일을 까맣게 잊을 때는 한심하기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편리한 것이 나의 건망증이다. 하지만 건망증이 비켜 가는 거의 유일한 사건이 원죄처럼 내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M이라는 지인이 있다. 그는 고교와 대학의 후배이며 같은 학교에서 수년간 근무하기도 했으니 어찌 보면 가까워야 할 사람이다. 선한 인상에 붙임성이 좋은 그를 주위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했다. 나도 그를 가장 믿을 수



있는 벗이자 동료라고 여겼다. 그런데 어떤 일로 거리가 멀어졌고,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갔다. 둘이 주먹다짐을 하거나 심한 언쟁을 한 것도 아니고, 업무 면에서 충돌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주위에서까지 눈치를 챌 만큼 냉랭한 사이가 된 것이다. M이나 나는 대인관계가 무난하다는 평판이었고, 어느 면으로 봐도 서로 대립할 처지가 아니었다. 큰 언쟁을 했던 사람과도 금세 화해하거나 잊어버리는 나인데도, 유독 그에게만은 너그러울 수 없던 것이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된다.

어느덧 그와 나는 아무도 화해를 주선할 수 없을 만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 M이 그 학교에서 전근 가던 날, 나는 그를 잊기로 다짐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일기장에 있는 것까지 없애 버렸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느님, 만약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꾸짖고 벌해 주옵소서. 혹시 그가 잘못했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그에게 조그마한 해코지라도 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소서."

속으로는 M과 아예 마주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기원했는지도 모른다. 그 이후 그를 만난 적이 없으며 지금은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도 잊어버렸다. 어쩌면 마주친다 해도 얼굴을 몰라볼지도 모를 만큼 세월이 흐른 것이다.

그러나 간혹 바람결같이 그의 소식이 들릴 때면 분노의 파도가 사납게 일어난다. 왜 다투었는지, 어떤 점이 싫었는지, 그의 무엇이 섭섭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미움의 감정만은 결코 식지 않는 것이다. 두서너 해 동안 담임했던 제자를 마주했을 때도 이름을 생각하지 못해서 찢찢매는 듯한 머리면서 10여 년을 만나지 못한 그의 이름만은 삭제하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암세포같이 뿌리를 내린 증오가 누런 고름을 토하며 영혼을 파먹고 있는 듯하여 몸이 떨린다.

"일엽 스님도 춘원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더랍니다."
하고 애자는 다음날 삭발을 했습니다.

속 깊이 박힌 비수를 뽑아줄 이가 없어
끝내는 부처님 손을 빌려야 했던 여자가
어디 애자 하나일까마는
밤마다 꿈에 온다는 남자를
"까닭 없습니다." 했다가,
"그것만은 맘대로 안되네요." 하고 고쳐 말할 때는
커다란 눈망울이 섬뜩하도록 빛나곤 했기에,

눈 펄펄 날리던 날,
날선 칼날 아래 뻑뻑 밀려나간 그녀 까만 머리를
내가 대신 죄 되게스리 자꾸 아까워합니다.

천 길 낭떠러지 위에서 잡았던 손을 탁 놓아버린 순간에도
못된 남자는 탁 놓아주지 않았는가.

지난날의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번뇌하는 비구니의 정경을 그린 신동춘의 「산속의 기도」이다. 애자의 번뇌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동정과 함께 애뜻한 아름다움까지 느껴진다. 하지만 불혹이 지난 나이에든 치사한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꼴은 뭐란 말인가. 지독한 건망증과 오랜 세월로도 치유될 수 없을 만큼 증오란 끈질긴 것일까?

의복은 깨끗한 몸을 지녔을 때에 장식이 되면서 몸의 치부를 감춰주기도 한다. 그러나 더러운 때가 속살 구석구석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아무리



두터운 의복이라도 악취를 막을 수 있을까. '불을 가슴에 안았는데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라는 잠언의 구절처럼 끈질긴 심화를 간직한 가슴을 건망증인들 가려 주겠는가. 아무리 끈끈한 사랑이라도 쉽게 잊혀주지만, 깃털같이 가벼운 미움도 결코 덜어주지 않는 것이 건망증의 실체인가 싶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다. 한국전쟁 때 두 다리를 잃으신 그분은 애오라지 우리 3형제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다. 유난히 병치레가 심했던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학교의 체육 시간마다 제외되어야 할 만큼 약질이었고, 부모님께서는 애물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건지기 위해 목발을 짚은 몸으로 여러 해 동안 2백여 리 버스길을 데리고 오가며 병원에 드나드셨다. 춘천 골롬반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올 때면 아버지는 성모상 앞에서 합장하시고 한동안 머무르시곤 했다. 차디찬 눈바람이 날리던 어느 겨울날에 병원의 성모상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던 아버지가 떠오른다. 손발이 시린 나는 빨리 가자고 보챘었고…….

아버지는 내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에 40년 남짓한 생을 마치셨다. 그 순간에도 나는 애통보다는 앞으로의 삶이나 걱정했던 불효자였다. 나이가 한참이나 든 뒤에야 그때 흰 눈을 맞으며 기원하셨던 사연이 무엇이었을 지를 짐작하고, 그제야 가슴이 미어졌다. 그러나 나는 어چه처럼 생생한 그 사랑마저 건망증을 핑계로 잘도 잊고 살아간다. 어쩌다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야 할 일이 있을 때면 바쁜 세사에 짊어질 내야 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고향길마저 멀고 지루하게 느낄 때가 많았으니 언제쯤 철이 날까. 깊은 사랑은 가볍게 날리면서 잠깐 스친 미움은 왜 그리 사무치던가.

인공 심장으로 영생을 얻은 과학자를 소재로 한 SF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멈추지 않는 심장 때문에 죽음이 비켜갔던 그는 벗들이 모두 떠나고, 자신보다 더 나이가 든 자식들과 자기 또래가 된 손자들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낀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 그는 끝내 자살을 선택한다. 자신이 제작한 인화 물질 속에 뛰어들자 삼시간에 온몸이 불길에 휘말렸다. 몸과 뇌도 타면서 흰색은 사라졌지만 불길이 꺼진 잔해 속에서 영생을 보장하던 기계 심장은 여전히 힘차게 박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다. 뼈가 녹아도 멈추기를 거부하는 싸늘한 기계처럼, 미움은 목숨이 다한 뒤에도 업보처럼 남는가. 그래서 음산한 유령처럼 악연을 찾아서 세상을 떠돌아야 할까?

흰 눈이 가지마다 머물러
 약사전 앞뜰만 이렇게 일없이
 먼데 사람 생각나도록 아름다우면 어쩍니까.
 달만 자꾸 차서 잠 깨우도록 마당을 밝히시면 어쩍니까.
 애자, 아픈 속의 가시를 어서 뽑아 버리세요.
 애자는 큰스님이 되십니다.
 관세음보살…….

「산속의 기도」의 마지막 시구가 가슴을 스친다. 내게 있어서 건망증이란 스스로마저 속이기 위한 알뜰한 방편이 아니었을까. 그 달콤한 포장 속에는 갇아야 할 보은은 편리하게 지워버리고, 치사한 원한은 날을 더욱 세우는 위선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고질이라고 자위하며 안이한 삶 속에 영주하는 한, 시름의 비바람은 멎지 않을 것이다. 건드리면 상당히 고통스럽겠지만, 이제라도 이 가시를 뽑으려는 시도를 하고 싶다. 건망증에 의지하지 않고, 관용과 사랑으로 미움의 암세포를 녹여 보리라. 잊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 풀고 뚫을 때 비로소 먹구름은 사라질 것이다. 언젠가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걷히고, 휘영청 밝고 맑은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져 본다.



1



(수필가, 횡성문인협회 회원)
김 명 숙

그냥 써요.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글들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가 문득 그렇게 당신이 생각나지 뭐겠어요. 그리고는 내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자리에서 벗어나, 조금 무거워진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집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두서없이 쓰여진 글을 당신께 부치고 싶었지요. 읽고 있어요? (아무래도 좋아요. 이미 내 안에서 뛰쳐나간 말들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니까요. 허공중에 흩어져 버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읽어준다면 조금 낫기는 하겠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당신과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면 좋겠다고. 정말 느닷없이 말이에요. 4호선 전철을 타고 내가 금정역쯤 도달했을 때, 느닷없이 당신께 전화를 걸어 바다를 보러 가자고 제의를 하면 당신은 군소리 없이 '알았다'는 대답만 하고는 입은 옷 그대로 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표를 끊고, 개찰구를 빠져나와 이내 바다 행 막차에 몸을 싣는 거예요. 끼니를 거른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어찌면 우리는 아무것도 입 속으로 집어넣지 않겠죠. 그러다 정 참을 수 없는 허기에 현기증이 나면 당신은 카스 맥주를 한 강통 사고, 나는 하이트 맥주를 한 강통 사서 거창하게 건배를 한 다음에 단 숨에 마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마 거의 말이 없을 거예요.

간혹 차창에 비치는 서로의 옆얼굴을 흘깃거리는 눈으로 훑쳐보다가, 눈길이 마주치면 겸연쩍은 웃음을 어색하게 주고받겠지요. 그러다가 깜빡깜빡 졸지도 모르고, 또 느닷없이 객차를 잇는 중간 통로쯤으로 뛰쳐나가 문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뺨을 때리는 밤바람을 음미할지도 몰라요. 어찌면 당신은 담배 한가치를 멋들어지게 피울지도 모르거나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당신의 반쯤 벌어진 입술과, 그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연기에 내 입김을 붙여넣어 사방으로 흩어지게 장난을 칠지도 모르죠. 그러다 간혹 지난 시절 사람의 이름자 입가에 걸어 놓을지도 모르고, 단정히 유니폼을 차려입은 차장에게 객쩍은 눈짓을 할지도 몰라요. 당황한 차장이 헛기침을 하며 저쪽 객차로 사라지면 우리는 얼굴을 있는 대로 뒤로 젖히고 깔깔깔 웃어대겠죠.

우리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로 뛰어 갈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보다 더 괴상하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모래를 박차고 뛰어가면 이제 막 잠을 깬 말간 물결들이 갑자기 성이 나서 우리에게 달려들겠지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누가 더 멀리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나 내기를 할 거예요. 신발도 벗지 않고, 입은 옷 그대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 들어가다 청록의 바다 물결이 코밑까지 들이닥치면 화들짝 놀라 허겁지겁 물으로 기어 나오겠죠. 그리고는 잔물이 철벽이는 모래바닥에 드러누워 두 손을 입에다 모으고 또 소리를 지를 거예요. "야호!!!!!"

당신을 생각하면 '자유'라는 말이 떠올라요.

자유. 무엇인가 지극히 억압되어 있으나 세상 그 어떤 것도 구속할 수 없는 '자유'말이에요. 무슨 짓을 하든 자유로울 것이라고 왜 인정되어 질까. 하루 종일 모래밭에 누워 하늘을 흐르는 구름과 구름을 물들이며 소멸해 가는



태양과그 태양의 꼬리를 잡고 이내 솟아오르는 별들과어슴푸레한 달빛을 감상하면서 의식이 아련해 질 때까지 그렇게 꿈쩍 않고 누워있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안도감.허름한 조개구이 포장마차 안에서 행색이 초라한 사내들과 술잔을 기울여도 결코 천박하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걸치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 던지고 달빛이 교교히 흘러내리는 바닷가를 뛰어다녀도 용서될 것만 같은 편안함.

설명은 할 수 없지만웬지 그럴 수 있을 것만 같아요.밤새 술을 마시다가 아무데나 쓰러져 잠이 들어도,당신 배 위에 내 무거운 다리가 걸쳐져 있어도, 깨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표정으로 해맑게 깔깔깔 웃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세상이 금지하고 있거나,내가 스스로 억압하고 있는 모든 규율과 규범과 법칙과 도덕적인 관념에서 해방되어,한순간일지라도 그렇게 세사를 비웃으며 떠도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말이지요.(정말..... 그럴 수 있다고 왜 믿어질까요?)

아마도 우리는 해갈되지 않는 갈증과설명할 수 없는 강박에 자신을 옹아매고,아직도 그 뒷에서 누군가가, 나를, 꺼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은 하지만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또한 자유 속에 노출되면 그러한 자유가 이내 구속이 되어 더욱 심한 갈증을 유발시킬지도 몰라요.

오늘 느닷없이 당신께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는 참아요.정말로 전화를 걸면,그리하여 느닷없이 4호선 전철을 타면,역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약속을 하면,그래서 바다 행 막차를 타면,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편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 일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상상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짧은 시간 자유롭네요. 당신이 아니라면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만나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휴화산이거든요. 우리는 점화장치가 망가진 폭약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폭발되지 않아야 될 열기를 품고 있어요, 우리는. 꿈처럼.

짧은 시간 썼어요.

그냥. 하루가 저물어 가는 이 시간에 잠시 나는 나를 떠나 바다 행 막차를 타러 역으로 갑니다. 우리가 타고 싶은 바다 행 열차는 아마 오래도록 플랫폼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박현숙

가을 햇살이 촘촘
 나뭇잎 사이로 흠어지며
 여름 내 뜨거웠던 몸 밀어내고
 그리움 털어내고
 단단해진 사랑이 곁여온다

세상에 하얀 사랑은
 이른 아침부터 고요를 흔드는 햇살을 안고
 파란 하늘은
 다시 시작하는 나뭇가지를 흔들며
 바다와 함께 출렁인다

시월의 햇살은
 날마다 새롭게 기다리는
 산기슭 깊은 그림자 가을이 깊은데
 온누리에 초록을 나누며
 새소리도 세어보지 않았던 먼 길이었다

할머니 잔등처럼 휘어진 갈 언덕엔
풀포기들의 노란꽃들과 쭉부쟁이 한창인데
나뭇잎들이 붉은 연정인 까닭은
내려놓은 푸르름의 흠어짐 때문일까
강물 흐르는 소리마저 이야기고 싶어서다

바람이 분다 갈 바람이
나뭇잎 마다 기웃거리다
빨간 노란 실루엣
햇살 찾아 떠나는 오늘을
슬피하기도 애태우려 하지도 않으려 한다.





V

문화학교

횡성 한국무용단 동아리 탐방

2020 The 실버스타-K with 강원, 횡성문화원 '횡성 한국무용단'



김종성

강원도와 강원도문화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0 The 실버스타-k with 강원」을 진행 한다는 공문을 받고, 횡성문화원에서는 ‘횡성 한국무용단’이 참가하게 되었다. 참가 자격은 전국의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및 문화원 회원과 노인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읍면동 복지센터 등 60세 이상 어르신을 주축으로 구성된 문화동아리, 팀당 최대 인원은 30명 이내로 하고 60세 미만 구성 비율은 30% 이하다. 횡성문화원 횡성 한국무용단은 김영아 강사와 한국무용단 강좌 수강생들이며, 횡성관내 지역축제에 축하 공연 참가 등 꾸준히 활동 하고 있다. 횡성 한국무용단이 준비한 호남우도 농악놀이에서 탄생된 ‘버꾸춤’은 완도 금당도 출신인 서한우 명인이 농악의 버꾸놀이를 무대에 맞게 창작무로 만들면서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춤이다. 약 6분간의 동영상을 찍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문화사랑방1에서 「버꾸춤」 연습

2020년 10월 29일 「2020 The 실버스타-k with 강원」 영상촬영을 위해 원주 백운아트홀 로 가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보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되었다.

2020년 10월 29일 아침 10시에 차량을 타고 원주 백운아트홀로 출발했다. 주차장에 도착하여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을 했다.



▲ 대기 장소

동영상 촬영 들어가기 전에 버꾸춤 연습을 하며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고 떨리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에 임하는 모습이 보였다.



▲ 버꾸춤 공연



▲2차 발열체크 후 공연장 입장



공연장 입장 전에 2차 발열체크 후 입장을 했다. 사회자의 짧은 소개 후 공연을 시작했다.



▲버꾸춤 공연 시작



▲버꾸춤 공연

동아리의 열성적인 공연이 잘 마무리되고 그동안 준비한 공연을 열심히 하신 횡성 한국무용단의 노력하는 열정과 즐거움이 보이는 공연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도 열심히 연습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준 횡성 한국무용단 수강생분들 에게 축하드리고 싶다.



▲실버스타-k with 강원시상식



▲실버스타-k with 강원 동상 트로피

횡성 실버에어로빅 동아리 탐방

2020샤이니스타를 찾아라!

횡성문화원 '실버에어로빅'

횡성문화원 '횡성우리소리'



김종성

강원도문화원연합회에서 2020년 실버문화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강원지역 오디션」을 진행 한다는 공문을 받고, 횡성문화원에서는 '실버에어로빅', '우리소리' 두팀이 참가신청을 하게 되었다. 참가 대상은 공연 형식(양악, 국악, 무용, 연극 등)의 구성을 갖춘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신청을 받았다.

횡성문화원 실버에어로빅팀은 조미경 강사와 실버에어로빅강좌 수강생들이며, 횡성관내 지역축제에 축하공연,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찬원의 「딱! 풀」과 김호중의 「너나나나」라는 곡을,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는 실버에어로빅 안무를 구성하여 약6분간의 동영상 을 찍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문화사랑방1에서 김호중의 「너나나나」 안무 연습

횡성문화원 우리소리팀은 박양순 강사와 문화학교 국악(판소리)강좌 수강생들로 구성되어, 우리소리의 매력과 즐거움을, 지역축제에 참가하여 축하 공연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는 동아리다. 판소리 다섯마당 가운데 하나인 심청가를 선택하여 무대를 준비하였다. 약 7분간의 동영상을 찍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20년 7월 23일 문화사랑방2에서 심청가를 연습



▲2020년 8월 11일 문화사랑방2에서 심청가를 연습

2020년 8월 25일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온라인 강원지역 오디션」 영상 촬영을 위해, 강원도문화원연합회에서 횡성문화원을 방문하여 횡성문화원 발표회장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발표회장 들어가기 전 발표회장 소독 및 발열체크, 문진표를 작성하고 촬영장소로 들어갔다.

첫 번째로 횡성 실버에어로빅팀의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나인숙 반장의 짧은 인사말씀과 팀 소개 후 어르신들의 활기찬 무대가 시작되었다.



▲나인속 반장의 인사말씀 및 팀 소개

두 번째로 흥성 우리소리팀의 동영상 촬영을 하기 위하여 발표회장 들어가기 전 발열체크, 문진표를 작성하고 촬영장소로 들어갔다.

송춘호 수강생의 짧은 인사말씀과 팀 소개 후 심봉사와 심청이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심청가 공연이 시작되었다.



▲인사말씀 및 팀 소개



2020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온라인 강원지역 오디션

강원도문화원연합회



2020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온라인 강원지역 오디션

강원도문화원연합회



▲ 심청가 무대

두 동아리의 열성적인 공연이 잘 마무리되고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을 비껴갈 순 없지만, 그동안 동아리가 준비한 노력을 보면 젊은 사람 못지않은 열정과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하루하루 세월을 비켜 나가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기시는 모습을 보면 보기 좋은 미래의 모습, 롤 모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2020년 9월 3일 2020샤이니스타를 찾아라 온라인 강원지역 오디션결과는, 황성문화원 실버에어로빅팀이 라이징스타상을 수상하여 강원도 대표로 본선 진출하였다.

2020년 9월 7일 황성문화원 원장과 사무국장, 과장이 강원도문화원연합회를 방문하여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2020년 9월 16일 2020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지역오디션 본선 진출이 확정되어 2020년 10월 26일 황성문화원 발표회장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다. 발표회장 들어가기 전 발열체크, 문진표를 작성하고 오후 2시 30분에 황성실버에어로빅 동영상촬영을 시작했다.





▲발표회장에서 음향팀 준비중



▲이찬원의 「딱! 풀」

코로나19로 인하여 관중이 없는 동영상 촬영을 했지만, 그동안 갈고닦아 온 실력을 무대에서 잘 보여주었고 연습을 하면서 즐거워하신 것 같다.

언제나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이찬원의 「딱! 풀」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의 빛나는 경연 무대를 2020실버문화페스티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문심사위원 평가 70%, 온라인 대국민 투표 30%를 통해 최고의 사이니스타를 뽑는 이벤트를 했다.





VI

문화원 소식

2020 문화사업실적

❁ 작은영화관 위탁운영

횡성문화원은 횡성군민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는 목표와 저렴한 가격 등으로 최신영화를 보여주는 작은영화관 사업 수행기관으로 2020년 9월 28일 선정되어 2020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한다.

횡성군 작은영화관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

횡성군 공고 제2020-1009호에 따라 횡성군 작은영화관 수탁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횡 성 군 수

◆ 위탁대상 : 횡성군 작은영화관

◆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0. 9. 25.(금) 11:00
- 장 소 : 횡성군청 2층 소회의실
- 심사대상 : 수탁신청기관(업체) 2개소

◆ 수행기관 선정결과

- 심사대상 심사위원 합산 평균점수 90.2점으로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현황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횡성문화원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3로 6	박순업

❖ 보훈선양문헌발간사업

6·26전쟁 때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 낸 참전용사들의 호국정신을 기억하며 후세들이 기억 할 수 있는 책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잊혀져가는 역사를 기억하는 6.25 증언록을 발간하여 횡성군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 제25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10.15.)

제25회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는 ‘세대공감 자연 & 사물울림의 하모니’를 주제로 강원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화천문화원이 주관하여 화천군 봉어섬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하여 강원도 시군별 16개 문화원 팀의 경연이 팀별 10분 이내로 경연을 진행했으며 횡성문화원 어사매풍물패 및 춘당꿈동이가 경연을 참가했다. 횡성문화원 <어사매풍물패>는 장려상을 수상하고 춘당꿈동이는 미래청소년상을 수상했다.



▲ 어사매풍물패



▲ 춘당꿈동이



● 향토문화기록촬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향토문화유적등과 각종 문화행사 자료들을 촬영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록, 보관하고 있다.



❁ 애향지 발간

● 횡성문화 발간

횡성문화원 애향지 통권 제35호로 발간되는 『2020 횡성문화』는 애향활동전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 창달과 군민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발간되었다. <향토사의 숨결, 문화유산,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문예마당, 문화학교> 등을 수록해 전국문화원과 문화원 회원 및 관내기관 및 단체, 공공도서관, 자료실 등에 배포하여 횡성을 알리는 애향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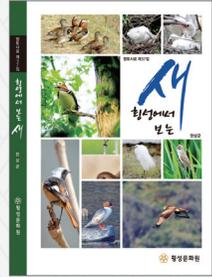
문화원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다양한 문화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화원 홈페이지를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해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업무 능률 또한 향상시켜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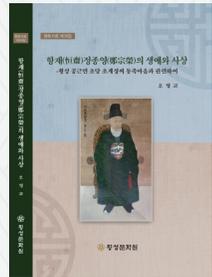


♣ 향토사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

향토사료 제37집 「횡성에서 보는 새」을 발간하였다. 이 책을 통해 새의 목, 과, 종명을 분류하고 생태를 관찰 주변 횡성지역에 서식하는 신비한 새의 세계를 연구하고 찍은 사진을 정보를 공유하고 알리는 기회이며 횡성문화원에서 이를 발굴하여 횡성지역의 새의 생태를 조명하고자 한다.



향토사료 제38집 「항재(恒齋)정종영(鄭宗榮)의 생애와 사상 - 횡성 공근면 초당 초계정씨 동족마을과 관련하여」은 항재 정종영의 전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고 한 개인이 그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며 정치·사회적인 삶은 영위했는지, 시대정신 및 그 흐름의 과정을 살피고 정치사·사상사 탐구 외에 조선, 한말, 해방이후 근현대의 지역사를 이해하는 작은 기초가 된다.



V 문화사업실적

● 관내 향토사료발굴 자료조사(5.22)



횡성문화원에서는 향토사료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횡성 관내 향토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자료를 수집 및 연구하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보존 및 계발시켜 나가고자 한다. 금년에는 태기산 일원(태기분교터 등)을 답사하여 옛날에 화전민들의 어려운 교육환경과 생활에 대해서 답사를 하였다.

❁ 향토사 연구

● 제30회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 발표대회 (6.24.)

지역의 향토사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매년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 발표대회”가 개최된다. 도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으면서도 관리 소홀로 점차 잊혀져가는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 재조명하며 전통문화의 정립과 선양을 통하여 향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강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되는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 발표대회는 금년에는 영월문화원이 주관하여 영월문화원 1층 락앤홀에서 열렸다. 횡성문화원에서는 민준식 사무국장이 「조선 중기 재상 고흥산 위민행정과 그의 가계 고씨동굴 연관성 고찰」라는 주제로 참가하여 노력상을 수상하였다.





●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5.11.~12.18.)**

횡성문화원은 매년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제21기 횡성문화원 문화학교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성 계발 및 지식기반을 창출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으로 사회적 역량을 높여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2020년도 운영현황〉

강좌명	강좌내용	강사명	교육기간
서예교실(한 글)	한글필법	김해동	5.11. ~ 12.18.
서예교실(한 문)	한문필법	천금용	5.11. ~ 12.18.
서예교실(문인화)	문인화필법	천금용	5.11. ~ 12.18.
수묵화	수묵화 기초 및 실기	이정자	5.11. ~ 12.18.
어르신풍물교실	장구,북,징,쟁과리 사물 및 기능	김혜숙	5.11. ~ 12.18.
국악(판소리)	국악가락 및 창법	박양순	5.11. ~ 12.18.
한국무용(기본부)	한국무용(기본부)춤사위 실기	김영아	5.11. ~ 12.18.
실버에어로빅	건강체조 실기	조미경	5.11. ~ 12.18.
가야금 교실	가야금 기초기법 및 가락	이영	5.11. ~ 12.18.
우쿨렐레 교실	우쿨렐레 연주기법	신은경	5.11. ~ 12.18.
생활영어 교실	생활영어 및 여행영어 기초	송혜영	5.11. ~ 12.18.
기체조	기체조 실기	이진영	5.11. ~ 12.18.
사물놀이(야간)	장구,북,징,쟁과리 사물 및 기능	송세영	5.11. ~ 12.18.
난타교실(야간)	난타 기초 및 퍼포먼스	최영아	5.11. ~ 12.18.
서각교실(야간)	전통서각, 현대서각, 죽공예	곽현주	5.11. ~ 12.18.
색소폰(야간)	색소폰 기초 및 연주기법	김종은	5.11. ~ 12.18.
하모니카(야간)	하모니카 기초 및 연주기법	이숙경	5.11. ~ 12.18.
트럼펫(야간)	트럼펫 기초 및 연주기법	최재우	5.11. ~ 12.18.
합계	18개 과목		7개월





서예(한글) 교실



서예(한문) 교실



서예(문인화) 교실



수묵화 교실



어르신풍물 교실



국악(판소리) 교실



한국무용(기본무) 교실



실버에어로빅 교실



가야금 교실



우쿨렐레 교실



생활영어 교실



기체조 교실



사물놀이 (야간) 교실



난타교실 (야간)



서각교실 (야간)



색소폰 (야간) 교실





하모니카 (야간) 교실



트럼펫 (야간) 교실

〈 제21기 문화학교 운영성과 〉

- ◆ 제25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장려상
- ◆ 2020 The 실버스타-K with 강원 동상
- ◆ 2020 실버문화페스티벌 샬리니스타를 찾아라 강원오디션 라이징스타상, 본선진출.

문화원 회원 입회안내

황성군 관내 성인 남·여 거주자로
학력 및 직업 등의 자격 제한없이
수시로 누구나 입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 : 10,000원 연회비 30,000원
황성문화원 ☎ 343-2271



V 문화원 소식

2020횡성문화 (통원 제35호)

발행일 _ 2020.12.27

발행처 _ 횡성문화원 ☎ (033) 343-2271

발행인 _ 박순업

기 획 _ 민준식

디자인·제작 _ 서원기획 ☎ (033) 343-2404

※본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본 책자의 일부 내용은 횡성문화원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